기본연구
—
2025-23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정지은 · 장창성 · 김나라

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본 저작물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2025년도에 작성하여 제공한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정지은)이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www.krivet.re.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머 리 말

급격한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 전환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학령기에 습득한 지식과 기술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과거 정규 교육을 마치고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선형적 진로 경로는 소멸하고, 성인들은 반복적인 진로 전환과 경력 재설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이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3년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성인 진로개발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제도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성인 진로교육이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개인이 평생에 걸쳐 일과 학습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인프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진로교육 정책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성인 진로교육 정책은 일자리 중심의 접근을 넘어 평생 진로개발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선별적 고용서비스가 아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 안전망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4대 추진 영역으로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확립',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마련', '포용적 생태계 조성'과 함께 14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향후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추진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성인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평생 진로개발 사회가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귀중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분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어 주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의견은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2025년 12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 장 고 혜 원

제목 차례

요약_vii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 5
제3절 연구 방법 ····· 6
제4절 용어의 정의 ····· 11

제2장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배경_13

제1절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이론적 기반 ····· 15
제2절 국내 성인 진로교육 담론의 전개 ····· 25
제3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정책 ····· 33

제3장 성인 진로교육 운영 현황 분석_59

제1절 성인 진로교육 운영 사례 ····· 61
제2절 성인 진로교육 참여 요구 ····· 77
제3절 성인 진로교육 운영에서의 쟁점 ····· 81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100

제4장 주요국의 성인 진로교육 정책 동향 분석_103

제1절 국외 성인 진로개발 지원 정책 동향 ····· 105
제2절 국가별 성인 진로교육 정책 사례 ····· 108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131

제5장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_137

제1절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방향 ····· 139
제2절 성인 진로교육 정책 과제 도출 ····· 143
제3절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전략 ····· 156

SUMMARY_179

참고문헌_183

부록_193

[부록 1] 델파이 조사지(1차) ····· 195
[부록 1] 델파이 조사지(2차) ····· 203

표 차례

〈표 1-1〉 관계자 면담 참여자 정보 ····· 7
〈표 1-2〉 전문가 협의회 개요 ····· 8
〈표 1-3〉 델파이 조사 패널 정보 ····· 9

〈표 2-1〉 진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 16
〈표 2-2〉 일자리 우선(work-first) vs 진로 우선(career-first) ····· 17
〈표 2-3〉 직업훈련, 성인교육, 평생학습의 개념 변화 ····· 18
〈표 2-4〉 성인 진로지도 시스템에 대한 정책 지침(OECD, 2021) ····· 20
〈표 2-5〉 영국 CDI의 Good Adult Career Guidance(2025) ····· 21
〈표 2-6〉 평생 지도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 개발 지침(공통 정책 지침) ···· 22
〈표 2-7〉 성인 진로교육 정책 설계 프레임 종합 ····· 24
〈표 2-8〉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정진철 외, 2021) ···· 28
〈표 2-9〉 서울시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 29
〈표 2-10〉 경기도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 30
〈표 2-11〉 평생·직업교육 관련 연구 ····· 31
〈표 2-12〉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발전 단계 ····· 33
〈표 2-13〉「교육기본법」 내 '진로교육' 관련 조항 ····· 34
〈표 2-14〉「평생교육법」 내 '성인 진로교육' 관련 조항 ····· 35
〈표 2-15〉「진로교육법」 내 '성인 진로교육' 관련 조항 ····· 36
〈표 2-16〉「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내 '진로교육' 관련 조항 ····· 37
〈표 2-17〉「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내
'진로교육' 관련 조항 ····· 38

〈표 2-18〉「고용정책 기본법」내 '진로교육' 관련 조항 ····· 39
〈표 2-19〉「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내 '성인 진로교육' 관련 조항 ····· 40
〈표 2-20〉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종합 ····· 41
〈표 2-21〉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내 성인 진로교육 관련 내용 ····· 42
〈표 2-22〉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내 성인 진로교육 관련 내용 ·· ····· 43
〈표 2-23〉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내 성인 진로교육 관련 내용 ·· ····· 44
〈표 2-24〉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내 성인 진로교육 관련 내용 ····· 45
〈표 2-25〉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표 ····· 49
〈표 2-26〉 '성인 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정의 및 측정 산식표 ···· 51
〈표 2-27〉 중장년내일센터 지원 내용표 ····· 54

〈표 3-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현황(2020~2024) ····· 65
〈표 3-2〉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 66
〈표 3-3〉 경기 베이비부머 앙코르 행복캠퍼스 주요 사업 ····· 71
〈표 3-4〉 지역별 성인 진로교육 운영 사례 특징 및 학습 이후 연계 비교 ····· 73
〈표 3-5〉 2025년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별 주제 및 주요 프로그램 ····· 76
〈표 3-6〉 성인 진로교육 관계자/전문가 면담 내용 ····· 81
〈표 3-7〉 국가-시도-시군구 단위 성인 진로교육의 역할 정립에 대한 의견 종합 ····· 90

〈표 4-1〉 성인 진로교육 정책 수립 주요 과제 및 고려사항 ····· 107

〈표 5-1〉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추진 배경 ····· 140
〈표 5-2〉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성인 진로교육 개념, 정책 비전 및 목표 ····· 145
〈표 5-3〉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 148
〈표 5-4〉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성인 진로교육 개념, 정책 비전 및 목표 ····· 149
〈표 5-5〉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 151
〈표 5-6〉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중요도 조사 결과 ····· 152
〈표 5-7〉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최종안 ····· 155
〈표 5-8〉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로드맵 ····· 157
〈표 5-9〉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관련 법률 ····· 176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 10

[그림 2-1]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 45
[그림 2-2]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구성(안) ····· 47
[그림 2-3]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제도 ····· 48
[그림 2-4] 중앙-지역 RISE 거버넌스 구조도 ····· 52
[그림 2-5]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경력개발 지향 유형 ····· 55
[그림 2-6] 고용노동부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개요 및 내용 ····· 56

[그림 3-1] 우리나라 평생교육 전달체계 ····· 62
[그림 3-2]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 전달체계 강화(구상안) ···· 63
[그림 3-3]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 ····· 64
[그림 3-4] 서울시민대학 교육과정 ····· 68
[그림 3-5] ‘서울 4050 인생디자인학교’ 교육과정 ····· 69

[그림 4-1] 해외의 성인 진로교육 주요 정책 영역 ····· 106

[그림 5-1]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추진 방향(안) ····· 142
[그림 5-2]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중요도 및 시급도 조사 결과
····· 154

요 약

1. 연구 개요

○ 현대사회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재편,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음. 과거의 선형적 진로 경로가 소멸하면서 성인들에게 평생에 걸친 역량 개발과 진로 관리가 필수 과제로 대두됨.

○ 2023년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성인 진로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정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본 연구는 성인 진로교육 개념과 정책 추진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 및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진로개발 지원 체계 마련과 성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헌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협의회, 관계자 면담, 델파이 조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함.

2.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배경

가.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이론적 기반

○ 본 연구는 진로개발 패러다임이 특성-요인 패러다임에서 발달 패러다임을 거쳐 생애 설계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주목함. 초기의 특성-

요인 패러다임이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적합성 매칭에 초점을 두었다면, 발달 패러다임은 생애 단계별 발달 과업을 중시하였고, 최근의 생애 설계 패러다임은 개인이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주체적 과정을 강조함. 이에 따라 진로개발의 범위는 직업 선택 중심에서 학습·일·삶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확장됨.

○ 정책 접근 방식 또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음. 전통적인 일자리 우선(work-first) 접근이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선별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진로 우선(career-first) 접근은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함. 이는 사회 안전망 구축, 공동체 가치 실현, 사회적 자본 확보를 중심 가치로 삼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진로개발 지원 체계를 지향함.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성인 진로교육이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생학습권 등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수 인프라임을 뒷받침하고 있음.

〈표 요약-1〉 성인 진로개발 지원 패러다임 전환

구분	전통적 접근	현대적 접근
중심 가치	경제적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사회 안전망, 공동체 가치, 사회적 자본 확보
목표 기능	노동시장 진입/재진입을 위한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지원	주체적 진로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개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사회참여 지원
범위	직업 선택 중심	학습, 일, 삶의 통합적 설계 및 생애 주기적 지원
정책 역할	선별적 문제해결 중심의 고용서비스	보편적 진로개발 지원 체계로서의 사회 안전망 구축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성인 진로개발 국제 기준을 종합하여 거버넌스와 재원(Governance & Funding), 질과 성과(Quality & Impact), 전달 방식(Provision & Service Delivery), 지원 범위와 포괄성(Coverage & Inclusiveness)으로 구성된 정책 설계 프레임을 도출함.

나. 국내 성인 진로교육 담론의 전개

○ 국내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2000년대는 IMF 사태 이후 국가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며 성인 진로개발 담론이 등장함. 2010년대에는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어 법·제도가 정비되고, 체계적인 지원 모델이 제시됨. 이후 2020년대는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며, 지역 단위 정책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실천적 확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다.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정책

○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진로교육법」은 교육부 중심의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소관인 「고용정책기본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직업능력개발과 경력개발 지원의 법적 토대를 제공함.

○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적 근거는 다수 존재하나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고,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적 진로개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확인함.

○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23~2027),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이후 성인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가 부재하고, 정책 간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성인 진로교육 운영 현황 분석

가. 성인 진로교육 운영 현황

○ 국내 성인 진로교육 운영 사례 분석 결과, 평생교육 전달체계와 직업교육훈련 전달체계의 제도적 인프라 위에서 다양한 성인 진로교육 운영 사례가 지역 단위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함. 기존 평생교육 프로그램 내 성인 진로교육을 포함하기도 하며,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나. 성인 진로교육 참여 요구

○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참여 요구 분석 결과, 성인 학습자의 진로교육 참여 요구는 연령, 생애 단계, 직업 경력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성인 학습자들은 상담-교육-고용지원이 하나의 경로로 연결된 통합적 지원 체계로 운영되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함.

다. 성인 진로교육 운영에서의 쟁점

○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계자 면담을 실시한 결과, 국가-광역-기초 단위 간 역할 정립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 주체와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점,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과 양성 체계가 부재하여 서비스 품질 편차가 크다는 점,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교육부-고용노동부 간 실질적 협력 거버넌스가 부재하여 정책 간 연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핵심 장애 요인으로 도출됨.

○ 이와 함께 국가-광역-기초 단위 역할 정립의 필요,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체계의 구축,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교육부-고용노동부 협력 거버넌스 등의 개선 요구를 도출함.

4. 주요국의 성인 진로교육 정책 동향 분석

○ 성인 진로교육 정책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 국가 선정은 OECD와 유럽연합(EU)에서 성인 진로개발 지원 체계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국가 중 거버넌스 구조, 재원 조달 방식, 전달체계, 품질관리 체계 등에서 각기 차별화된 강점을 가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분석 결과, 주요국 사례는 4개 정책 영역인 (1) 거버넌스와 재원, (2) 품질 및 성과관리, (3) 전달체계, (4) 지원 범위와 포괄성에서 공통적으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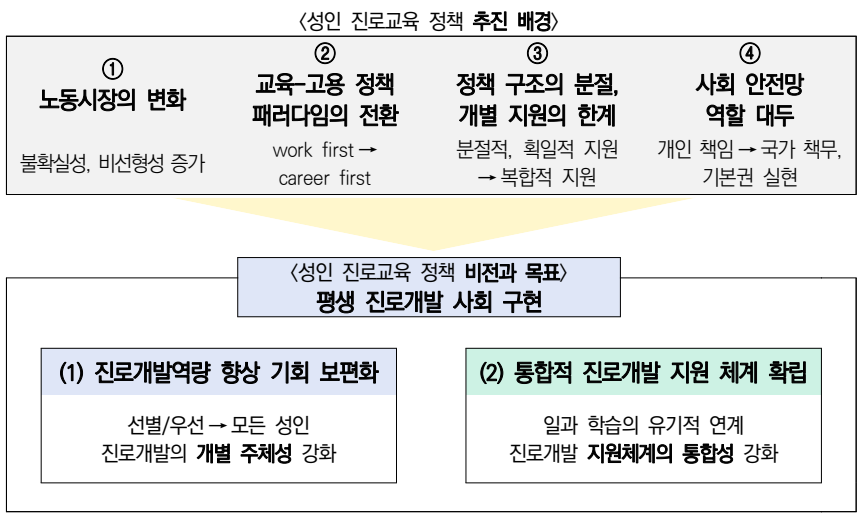
국가가 성인 진로개발 지원을 국가의 필수 책무로 규정하고, 개인의 주체성을 존중하되 국가가 인프라와 재원을 보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한국 정책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시사점으로 확인됨.

5.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가.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도출

○ 문헌분석, 사례조사, 관계자 면담, 델파이 조사 등 다층적 연구 방법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구체적 추진 과제(안)를 도출함.

[그림 요약-1]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추진 방향(안)



○ 진로지도·경력개발·평생교육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4대 추진 영역과 14개 세부 과제를 최종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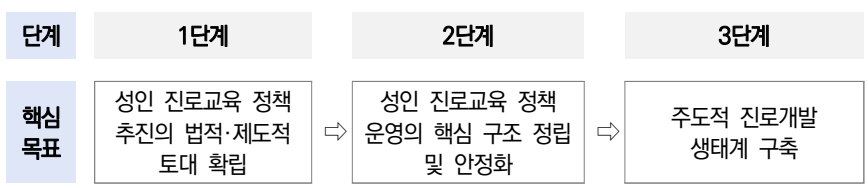
○ 최종적으로 도출된 4대 추진 영역은 (1)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2)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확립, (3)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마련, (4) 포용적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이며, 각각의 추진 전략별 세부 추진 과제를 함께 제시함.

나.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전략

○ 세부 추진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도 분석 결과,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과제는 총 6개,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중요도 평균이 4.00을 상회하는 과제는 총 6개,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 전체 평균 및 각각 4.0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는 총 2개로 나타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분절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후 표준화된 지원 체계를 통해 품질을 제고하며, 최종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지원 모델로의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제시함.

[그림 요약-2]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로드맵



○ 이와 함께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를 제안함.

〈표 요약-2〉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비전	모든 성인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주체적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	
목표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향상 기회 보장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성인 진로교육 체계 구축
추진 과제	(1)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1-1. 성인 진로교육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 1-2. 범정부 통합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 1-3. 성인 진로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
	(2)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확립	2-1. 성인 대상 국가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2-2. 성인 진로교육 전달체계 정립 2-3.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2-4. 성인 진로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
	(3)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마련	3-1. 성인 진로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 3-2. 지역 기반 성인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 3-3. 사회 파트너 참여를 통한 일터 기반 진로교육 지원 활성화
	(4) 포용적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	4-1. 개인 주도 진로교육 지원 체계 마련 4-2. 모든 성인의 진로교육 접근성 및 개별성 강화 4-3. 우선 지원 대상 발굴 및 선제적 지원 체계 강화 4-4. 성인 진로 경로의 다각화 모델 발굴 및 확산
선결 과제	성인 진로교육 개념의 명확화	성인 진로교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 / 일과 학습의 선순환 강화

주제어	성인 진로교육(Adult Career Eductaion),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용어의 정의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재편, 인구 고령화와 같은 거대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인들은 평생에 걸친 역량 개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진로 전환의 빈도를 높이고 있다. 과거 정규 교육 이수 후 첫 직장에서 은퇴하는 선형적 진로 경로가 소멸함에 따라, 개인의 진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가적 인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성인 진로개발 지원 강화는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다.

국제 사회는 진로개발 지원을 고용정책의 핵심 예방 수단이자,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기술 수요에 대응하고 직업교육훈련의 동기를 부여하는 전략적 도구로 제시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1; OECD, 2016).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진로개발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다(이지연, 권효원, 2021; OECD, 2021; UNESCO, 2021). 이는 성인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개발 지원이 고용촉진을 넘어 사회적 통합, 삶의 질

향상, 나아가 국가 생산성 제고에 필수적인 국가의 핵심 전략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 차원의 진로개발 지원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개인의 진로개발은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성인이 평생에 걸쳐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평생학습 기본권(헌법 제31조)을 구체화하는 핵심 기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이 평생에 걸쳐 일과 학습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European Training Foundation, 2021). 특히 성인은 다양한 학습 배경과 경력, 생애 역할을 지니고 있기에 학령기 진로개발 지원과는 차별화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획일적인 직업훈련이나 단발성 상담 방식으로는 성인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력전환 및 유지 등의 진로 과업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지원이 필요하다.

진로개발은 연속적이며, 다양한 사회 환경 요인과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므로, 진로개발 지원은 교육과 훈련, 노동시장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포괄적인 지원 체계에 기반해야 한다. 이는 성인의 진로개발이 직무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유연한 진로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 체계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2023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을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포함하며,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향상을 주요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성인의 진로개발이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책무성을 제도적 장치에 담아낸 진일보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진로교육 정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개별 프로그램 운영에 한정되어 있다. 성인 진로교육이 국가의 인재양성 체계 내에서 개인의 주체적 진로개발 역량을 향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개인의 지속가능한 진로개발과 진로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과 정책 추진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 및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진로개발 지원 체계 마련과 성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변화 및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성인이 주체적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국내외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률, 제도 및 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적 차원의 진로개발 지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립한다.

둘째, 국내 성인 진로교육의 운영 현황과 참여 요구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대학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의 성인 진로교육 운영 사례와 수요를 분석하여 현장 기반의 정책 요구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셋째, 성인 진로교육 정책에서 선도적인 해외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특히 거버넌스와 재원 조달, 품질 및 성과관리, 전달체계, 지원 범위와 포괄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내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앞선 분석을 종합하여 성인 진로교육의 정책적 추진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성인 진로교육을 국가의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시스템 내 핵심 의제로 정립하고, 범부처 간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지역 기반의 평생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및 유관기관 간의 역할 정립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모색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헌분석, 관계자 면담, 전문가 검토, 델파이 조사 등 복합적인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하였다.

1. 문헌분석

국내외 정책 동향, 관련 법령, 선행연구 및 보고서 등을 토대로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 정의, 국내외 주요 사례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2. 관계자 면담

관계자 면담을 통해 정책 현장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 설계 및 추진상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관계자 면담 대상은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및 성인 진로교육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성인 진로교육 정책 운영 현황, 정책 추진 시의 어려움 및 요구사항, 정책 설계 시 고려사항 및 우선순위 등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 현장의 인식과 함께 실행 조건과 장애 요인 등을 파악하였다.

현장 전문가는 성인 진로교육을 운영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학계 전문가는 성인 진로교육 관련 연구 및 실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특히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정책 실행 기관과 지자체, 대학에서 성인 진로개발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1-1〉 관계자 면담 참여자 정보

구분	일시		참석자
현장 전문가	1차	8월 6일(수) 오전	• A 시도 성인 진로교육 담당자
	2차	8월 6일(수) 오후	• B 시도 성인 진로교육 담당자
	3차	8월 8일(금) 오후	• C 시도 성인 진로교육 담당자
학계 전문가	1차	8월 5일(화) 오전	• 경력개발 전문가 : 지자체 시니어 대상 정책 실행 기관
	2차	8월 20일(수) 오후	• 고용서비스 전문가 : 고용노동부 경력개발 정책 실행 기관
	3차	8월 22일(금) 오전	• 평생교육 전문가 : 국가 평생교육 정책 실행 기관
	4차	8월 22일(금) 오후	• 경력개발 전문가 : 대학 평생교육 사업 책임자

3. 전문가 검토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방향 및 실행 방안(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관련 정책 및 학문 분야의 연구자 및 정책 실무자로 구성하여 정책 목표 및 과제 도출(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문가 검토는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 및 정책 방향과 과제(안)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2차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실제 정책 실행 방안 및 기관 간 연계 구조, 정책 거버넌스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1-2〉 전문가 협의회 개요

구분	일시	목적	참석자
1차 협의회	2025년 9월 24일	성인 진로교육 개념 및 델파이 조사지 초안 검토	진로지도·경력개발 전문가 2인 평생교육 전문가 1인 교육부 담당자 1인
2차 협의회	2025년 11월 28일	추진 과제 및 실행 전략 검토	교육부 성인 진로교육 정책 담당 부서 평생교육 전문가 2인 진로지도·경력개발 전문가 2인

1차 전문가 협의회에는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전문가인 교수 2인, 평생교육 전문가인 박사 1인, 교육부 성인 진로교육 정책 담당자 1인이 참여하였다.

2차 전문가 협의회에는 교육부 성인 진로교육 정책 담당자, 진로지도·경력개발 및 평생교육 전문가를 각각 2명으로 구성하여, 해당 분야 교수 3인과 전문기관 선임연구위원 1인이 참여하였다.

4. 델파이 조사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 및 과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수정된 델파이 기법(modified Delphi technique, Murry & Hammons, 1995)을 활용하여 1회 조사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2차례의 조사를 통하여 조사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이종성, 2006). 델파이 패널 설계를 위하여 평생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 및 과제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의 범주를 크게 진로지도·경력개발과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델파이 패널은 상기 전문성의 범주와 관련된 학술 연구 및 공공 서비스 전문가 중 전문성, 대표성, 참여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20명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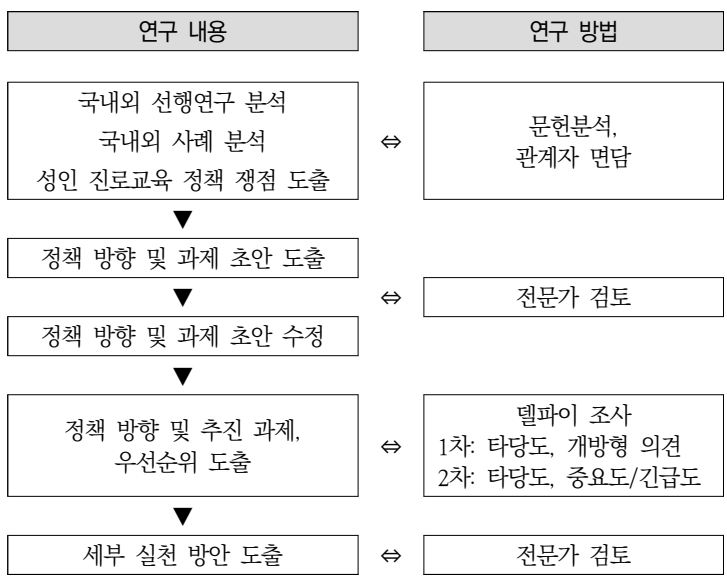
〈표 1-3〉 델파이 조사 패널 정보

참여자	전문 분야	전공	세부 전공	학력	소속
서○○	진로지도·경력개발	교육학	진로교육	박사졸업	대학
이○○	진로지도·경력개발	상담·심리학	상담 및 심리	박사졸업	대학
이○○	진로지도·경력개발	교육학	진로교육	박사졸업	대학
조○○	진로지도·경력개발	교육학	인적자원개발	박사졸업	대학
김○○	진로지도·경력개발	교육학	진로교육	박사졸업	기관
방○○	진로지도·경력개발	교육학	진로교육	박사졸업	기관
이○○	진로지도·경력개발	교육학	진로교육	박사졸업	기관
이○○	진로지도·경력개발	교육학	상담 및 심리	박사졸업	기관
홍○○	진로지도·경력개발	교육학	진로교육	박사졸업	기관
김○○	진로지도·경력개발	교육학	성인교육	박사졸업	기관
김○○	평생교육	교육학	성인교육	박사졸업	대학
백○○	평생교육	교육학	인적자원개발	박사졸업	대학

참여자	전문 분야	전공	세부 전공	학력	소속
문○○	평생교육	교육학	인적자원개발	박사졸업	대학
유○○	평생교육	교육학	인적자원개발	박사졸업	대학
현○○	평생교육	교육학	평생교육	박사졸업	대학
홍○○	평생교육	교육학	교육공학	박사졸업	대학
김○○	평생교육	교육학	평생교육	박사졸업	기관
김○○	평생교육	교육학	평생교육	박사졸업	기관
박○○	평생교육	교육학	교육정치경제학	박사졸업	기관
변○○	평생교육	교육학	평생교육	박사졸업	기관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 제시에서부터 현장 의견 수렴, 그리고 최종적인 정책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단계적인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적용된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전체적인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1] 연구 내용 및 방법



제4절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은 개인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평생에 걸쳐 의미 있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 실행, 적응, 성찰하는 연속적이며 순환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는 OECD의 진로지도(career guidance) 개념과 UNESCO의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패러다임이 강조하는 '평생에 걸친 학습과 경력개발의 통합'이라는 국제적 담론과 맥을 같이한다. 가속화되는 기술 및 산업 변화는 개인에게 일과 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반복적인 진로 결정과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Akkermans et al., 2024).

특히 성인의 진로개발은 과거의 단선적이고 정형화된 진로 경로를 넘어 예기치 않은 경력 전환에 대응해야 하며, 경력 관리를 위한 역량 개발과 다양한 삶의 역할 간 균형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성장 과정이다(정진철 외, 2021; Savickas,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평생 진로개발'이라는 용어를 통해 진로개발이 단편적인 직업 선택을 넘어 평생에 걸친 일과 학습, 여가활동, 교육·훈련과 사회 참여를 포괄하는 지속적인 과정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성인 진로교육은 '성인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진로개발 지원은 학령기 중심의 진로교육에 머물러 있으며, 성인 대상의 체계적 진로교육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지연 외, 2022). 이는 OECD 회원국 상당수가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진로교육 정책을 성인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와 사업 전반으로 정의한다. 이는 개별 프로그램 운영에 국한하지 않고, 성인의 진로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품질관리 및 평가, 데이터 및 인프라 구축 등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배경

제1절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이론적 기반
제2절 국내 성인 진로교육 담론의 전개
제3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정책

제2장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배경

제1절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이론적 기반

1. 진로개발 패러다임 변화와 성인 진로개발 지원의 필요성

가. 진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전통적 진로개발 이론은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직업세계를 전제로 하며, 개인의 성격, 흥미, 능력 등 '고정된 특성'이 어떻게 '고정된 직업'에 가장 적합하게 매칭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기술 혁신, 노동시장의 유동성, 산업구조의 변화는 진로개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Savickas 외(2009)는 개인의 삶과 진로를 '이야기(narrative)'로 구성하고 의미 구성 과정을 중시하는 생애 설계(Life Design)를 제안한 바 있다. 생애 설계는 직업 선택을 넘어 삶 전체의 방향성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진로개발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하는 시대에서 맥락 중심, 적응 중심, 정체성 중심의 진로지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Savickas et al., 2009).

〈표 2-1〉 진로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특성-요인 패러다임	발달 패러다임	생애 설계 패러다임
기반 이론	과학적 합리주의	심리사회 발달이론	구성주의, 내러티브 이론
중심 개념	적합성	발달 단계	의미 구성, 정체성
인간관	객관적 평가	발달 단계에 따른 변화	이야기로 구성된 주체적 존재
진로 목표	직업 선택	발달 과업	삶의 방향 설정 및 적응

자료: Savickas 외(2009)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생애 설계 중심의 진로개발 패러다임은 한 개인의 진로를 단순히 노동시장 진입에 국한하지 않고, 정체성과 의미, 관계 등 삶의 다양한 영역과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Savickas 외(2009)의 생애 설계 패러다임은 직업 선택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이 학습과 일, 삶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결국 이는 성인 진로교육 정책이 단순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연결을 넘어, 개인의 역량 강화와 자기실현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 진로 우선(career-first) 정책 전환

최근 수십 년간 노동시장 정책은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훈련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일자리 우선(work-first) 정책은 주로 구직 지원과 초급 직종에 필요한 기술 습득에 치중하면서 신속한 노동시장 (재)진입을 목표로 하였기에 일자리의 질(quality)과 적절성(suitability), 특히 장기 경력개발(future progression),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 장기적인 고용 안전성(long-term employment)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Fuertes et al., 2021).

반면 진로 우선(career-first) 접근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력개발과 역량 축적에 초점을 두어 지속가능한 고용과 경력을 형성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고용(sustainable employment)이란 고용의 질과 적합성(적정 소득, 근무 조건, 출퇴근 등), 승진 기회, 경력 경로를 보다 면밀히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Fuertes et al., 2021).

〈표 2-2〉 일자리 우선(work-first) vs 진로 우선(career-first)

구분	Work-first	Career-first
정책 목표	즉각적 취업	경력개발과 지속 성장
주요 대상	단기 실업자, 저숙련자	전 연령
지원 방식	신속한 구직-매칭	맞춤형 교육·훈련/진로 상담·설계
중점 가치	신속한 경제적 자립 복지 예산 절감	직업 안정성, 일-삶의 균형 적성 및 역량 반영
성과지표	취업률	고용의 질, 경력 만족도 소득 성장, 장기적 사회 통합

자료: Fuertes 외(2021)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진로 중심의 정책 설계는 고용 촉진이라는 단기 목표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진로개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우선시한다. 이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고용 정책을 실현할 수 있으며, 장기적 경력 성장과 직업의 적합성, 삶의 질을 고려한 가치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Futures 외(2021)의 진로 우선 접근은 노동 정책과 진로개발 지원, 역량 개발을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사회와 개인 간의 조화로운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공공정책으로서 성인 진로개발 지원의 필요성

직업훈련, 성인교육, 평생학습의 개념과 변화 과정을 조망한 Salajan과 Roumell(2023)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의 확산으로 인해 이들 세 영역은 모두 노동시장 중심의 담론으로 빠르게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평생학습은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학습으로 수렴되고, 성인교육의 공공성은 약화되었으며, 직업훈련은 기업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술 교육으로 협소화되었다(Salajan & Roumell, 2023).

〈표 2-3〉 직업훈련, 성인교육, 평생학습의 개념 변화

구분	전통적 개념	신자유주의 이후 변화	시사점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산업기술 습득을 위한 실용 중심 교육	산업수요 기반 훈련 민간 중심 맞춤식 스킬 개발	교육의 공공성 약화 기업 중심 구조 고착화
성인교육 (Adult Education)	시민성 함양, 공동체적 학습, 자아실현	직무 능력 향상 목적 중심 비형식 학습 축소	자율적, 비판적 학습 기능 위축
평생학습 (Lifelong Learning)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학습과 성장 강조	고용가능성 중심 개인의 시장 적응 수단화	개인 책임 강조 공공 지원의 축소

자료: Salajan & Roumell(2023)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특히 평생학습은 전 생애적 성장과 자아실현의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경력 관리와 노동시장 적응력 강화라는 목적에 집중되었다고 본다. 그 결과, 국가는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의 책임을 점차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진로 개발의 부담 또한 개인화되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Salajan & Roumell, 2023).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의 진로개발이 사회적 제

도와 정책적 지원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EU의 직업훈련-성인교육-평생학습 정책 영역이 정책 기반 조성 → 프로그램화 → 통합·확장의 단계적 진화를 거치며 하나의 통합적 정책 영역으로 공고화되었음을 밝히고 있다(Salajan & Roumell, 2023). 각각의 제도와 수단, 인프라 간의 교차점이 축적되면서 직업훈련과 성인교육, 평생학습을 아우르는 정책 연계와 다층적 거버넌스가 정착되었고, 이는 독립적 영역의 병렬적 묶음을 넘어 상호의존적인 핵심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성인 진로개발 지원이 통합적 정책 영역에서 핵심 기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설계 프레임

가. OECD(2021)의 성인 진로지도 정책 지침

OECD(2021)는 진로지도를 단순한 개인 서비스가 아닌, 국가 차원의 역량 개발과 고용정책을 견인하는 공공 인프라로 제시하며, 공공정책 차원에서 보편적 접근성과 맞춤형 지원, 품질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진로지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0년 OECD 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성인 진로지도 조사(Survey of Career Guidance for Adults: SCGA)는 성인들이 진로지도를 실제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가에 대한 국제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SCGA는 성인 진로지도에 대한 첫 국제 비교 데이터로, 분석 결과 성인 진로지도 서비스 이용률이 아직 제한적이나 온라인 채널 활용을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저숙련과 고령층 등 취약 집단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한 과제로 드러났으며, 맞춤형 진로지도가 취업과 훈련의 성과를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근거를 제공하였다(OECD, 2021).

성인을 위한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고려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제공 체계와 전달 방식(Provision and service delivery)', '지원 범위와 포괄성(Coverage and inclusiveness)', '질과 성과(Quality and impact)', '거버넌스와 재원(Governance and funding)'의 네 가지 틀에서 지침을 제시하였다(OECD, 2021).

〈표 2-4〉 성인 진로지도 시스템에 대한 정책 지침(OECD, 2021)

구분	내용
제공 체계와 전달 방식	• 진로지도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제공자의 전문성 강화 • 다양한 전달 경로 활용(원격 방식이 대면상담을 대체해서는 안 됨) • 온라인 진로지도 포털 강화(사용자 친화적,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지원 범위와 포괄성	• 진로지도 서비스의 유용성과 접근성 인식 제고 • 취약계층 지원: 고령 구직자, 저숙련자(노동조합 역할 강화)
질과 성과	• 품질 기준 확립: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기본 요건 명시 • 상담자 전문화: 역량 체계를 통한 상담자의 훈련 및 자격 표준화 • 고급 기술 평가 및 전망 정보 활용: 최신 노동시장 정보 • 개별 맞춤형 진로지도: 스킬 진단을 통한 맞춤형 경력·훈련 경로 제시 • 성과 모니터링: 성과 데이터의 정기적 수집·공유
거버넌스와 재원	• 진로지도 관련 모든 행위자와 조정 개선 • 공적 재원 확보: 공공 자금 지원, 취약계층 보조금 집중 지원 • 재원 분담 유도: 재정지원 제도 내 지원 가능 지출 항목 포함

자료: OECD(2021: 9, 10)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나. 영국 CDI의 Good Adult Career Guidance

영국은 Gatsby의 벤치마크가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 역시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와 평생 진로개발의 필요성

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진로지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Hutchinson & Hooley, 2025).

특히 디지털 전환, 고령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규모 노동시장 변동 속에서 성인 대상 진로지원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의 핵심 도구로 부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CDI(Career Development Institute)는 Gatsby 재단의 지원을 받아 「Good Adult Career Guidance」 기준을 정립하였다(Hutchinson & Hooley, 2025).

국제 비교 연구와 영국 현황 분석을 통해 성인 진로지도에서 보장되어야 할 특징으로 비전과 리더십(Vision and leadership), 협업과 협력(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전문인력(Professionals),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전달체계(National and local delivery),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Clearly understood and accessible services), 노동시장 데이터(Labour market data) 등 6가지를 제시하였다(Hutchinson & Hooley, 2025).

〈표 2-5〉 영국 CDI의 Good Adult Career Guidance(2025)

구분	내용
비전과 리더십	• 국가 차원의 명확한 진로지도 비전이 정책에 반영되고, 여러 정부 부처가 지원하며, 실행 계획과 연계됨.
협업과 협력	• 성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가 전략적·실무적으로 연결되어 협력함.
전문인력	• 적절한 훈련을 받은 다양한 전문인력이 진로지도를 제공함.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전달체계	• 신뢰받는 제공자가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성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서비스를 운영함.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	• 온라인, 대면을 포함해 명확한 연계, 의뢰 체계를 갖추어 성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노동시장 데이터	• 신뢰성 있는 노동시장 데이터에 기반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보장함.

자료: Hutchinson & Hooley(2025: 3)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작성함.

다. ELGPN의 평생 지도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 개발 지침

평생 지도(Lifelong Guidance)는 시민들이 의미 있는 학습 및 직업 기회를 선택하고, 이에 적합한 학습 경로를 설계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시민의 학습(교육, 직업훈련) 및 노동시장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몇 안 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평생 지도 정책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해 2007년 유럽 평생 지도 정책 네트워크(European Lifelong Guidance Policy Network: ELGPN)가 설립되었으며, 2015년 ELGPN은 「평생 지도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 개발 지침(Guidelines for Policies and Systems Development for Lifelong Guidance)」을 제안하였다(ELGPN, 2015).

이 지침은 대부분의 EU 시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과 일을 경험한다는 전제하에 교육·훈련, 노동시장, 사회적 포용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을 포괄하는 평생 진로지도 정책과 시스템 개발 기준 틀을 제시한다. 또한 평생 진로지도 정책과 서비스 운영을 위한 11가지 원칙과 18개의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ELGPN, 2015).

〈표 2-6〉 평생 지도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 개발 지침(공통 정책 지침)

구분	정의	중요성
1. Career Management Skills (CMS)	•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일 경로를 스스로 기획·결정·전환하도록 돕는 지식·기능·태도의 묶음. 개인관리·학습관리·진로관리 역량을 포함	• 학습 참여·성과·진학·취업·고용가능성 및 생산성·이동성 제고, 취약 집단의 사회·노동시장 통합에 기여
2. Access to Lifelong Guidance Services	• 시민이 생애 각 전환점에서 경로 결정을 돕는 서비스·도구·자원에 물리·디지털로 접근·	• 기회평등·사회적 형평·이동성·결속 강화, EU 권고와 권리(사회헌장) 이행 지원

구분	정의	중요성
	참여할 수 있는 수단과 조건. 수요>공급, 인식 부족·장벽 존재	
3. Assuring the Quality of Lifelong Guidance Provision	• 시민 관점에서 서비스·도구·활동의 품질을 표준·절차로 평가·개선하는 체계	• 서비스 일관성·신뢰성·효율성 확보, 학습·고용 성과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뒷받침
4.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Lifelong Guidance Provision	• 정책·서비스의 결과·성과를 측정·분석해 책무성과 투자 효과를 입증하는 활동	• 근거 기반 정책 결정, 자원배분 최적화, 이해관계자 신뢰 제고
5. Strategic Leadership: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 다부처·다기관이 전략·거버넌스· 운영에서 협력·조정하는 리더십 체계	• 단절·중복 해소, 정책 일관성·효율성 제고, 국민 체감도 향상
6. Improving Careers Information	• 최신·검증된 진로·노동시장·학습정보를 시민친화적 방식으로 제공·업데이트	• 잘못된 선택·미스매치 방지, 의사결정의 질 향상
7. Training & Qualifications of Practitioners	• 진로 전문가의 자격·역량 체계와 초기·현직 연수	• 전문성·윤리·서비스 품질 제고
8. Funding Lifelong Guidance Services	• 공공재로서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안정적 재원과 민간 참여 유도	• 시민의 권리 이행, 접근성·형평성 담보, 민관 역할 분담
9. ICT in Lifelong Guidance	• 정책·체계·서비스 전달을 고도화하는 디지털 인프라·콘텐츠·도구 및 디지털 역량	• 접근성 확대, 통합·증거 기반·행정효율, 이용자 행태변화 대응

자료: ELGPN(2015) pp. 13~54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함.

라. 성인 진로교육 정책 설계 프레임 종합

앞서 검토한 국제 기준을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하여, 본 연구는 국가 차원의 성인 진로교육 정책 설계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 프레임은 OECD(2021)가 제안한 4개의 축을 구조적 기반으로 삼되, 정책의 실질적 운영과 품질관리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CDI와 ELGPN의 9개 공통 지침을 반영하였다.

프레임의 4개 축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체계로 구성된다. 첫째, 거버넌스와 재원(Governance & Funding) 축은 정책의 제도적 기반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둘째, 질과 성과(Quality & Impact) 축은 성인 진로교육의 표준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지원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관리한다. 셋째, 전달 방식(Provision & Service Delivery) 축은 성인 진로교육을 효율적으로 설계 및 운영한다. 넷째, 지원 범위와 포괄성(Coverage & Inclusiveness) 축은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책 우선 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 4개의 축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고 순환하는 통합적 체계로 기능한다.

〈표 2-7〉 성인 진로교육 정책 설계 프레임 종합

구분	핵심 요소	연계 기준 (CDI/ELGPN)
① 거버넌스와 재원 (Governance & Funding)	• 국가 비전·리더십 정립 • 전략적 협력·조정 메커니즘 • 지속가능 재원 모델 수립(공공-민간) • 정보 데이터 거버넌스	CDI: #1 Vision; #2 C&C ELGPN: #5 C&C; #8 Funding; #9 ICT
② 질과 성과 (Quality & Impact)	• 국가 품질기준·인증체계 고도화 • 전문인력 역량체계 정립 • 효과성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진로관리 스킬(CMS) 내재화(목표-진단-추적) • 노동시장 정보 품질 및 최신성 보장	CDI: #3 Professionals; #6 LM data ELGPN: #1 CMS; #3 Quality; #4 Effectiveness; #6 Information; #7 Practitioners
③ 전달 방식 (Provision & Service Delivery)	• 국가-지역 전달체계 정비 및 역할 명확화 • 다채널 혼합형 서비스 제공 • 원스톱 및 의뢰 경로 표준화 • 통합 디지털 포털 구축 및 고도화 • 노동시장 정보 연계 서비스 설계	CDI: #4 Delivery; #5 Clear&Access; #6 LM data ELGPN: #2 Access; #5 C&C; #6 Information; #9 ICT
④ 지원 범위와 포괄성 (Coverage & Inclusiveness)	• 보편적 접근권 보장 • 우선 지원 대상 선정 및 선제적 지원 • 생활권, 직장권 접근성 확충 • 디지털 포용성 강화	CDI: #5 Clear&Access; #2 C&C ELGPN: #2 Access; #5 C&C; #9 ICT

자료: 연구진 작성

제2절 국내 성인 진로교육 담론의 전개

1. 2000년대: 성인 진로개발 담론의 등장

2000년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급변한 고용 환경과 '평생직장' 개념의 붕괴로 인해 성인 진로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였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진로교육의 대상이 학령기를 넘어 성인기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성인이 자발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 진로개발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진미석, 윤형한, 2003). 특히 진미석, 윤형한(2004)은 성인 진로개발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임을 강조하며, 진로개발 지원 인력의 전문성 체계화와 자격화 제도 마련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이지연 외(2003)는 한발 더 나아가, 진로개발을 개인의 기본권 실현 수단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진로정보와 진로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역설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 주도의 형평성 있는 진로지원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교육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성인기를 포함하여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의 국가 기준 수립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영대 외(2004)는 성인기를 '직업활동 유지 및 전환 단계'로 정의하며, 성인기 진로교육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상담을 넘어 직업의 안정적 유지와 전환 능력, 직무역량 향상, 삶의 만족과 사회적 적응을 도모하는 발달적 교육과정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성인 진로교육을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경력설계'로 정의하고, 국가 수준의 진로교

육 지침 수립, 생애단계별 전달체계 연계, 성인 대상 진로지도 전문인력 재교육 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성인 진로교육은 학습자 중심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성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한 유연한 프로그램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저성장 구조, 청년 실업,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과 같은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면서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적성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종합적 지원체제 구축의 국가적 책무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에 유한구 외(2007)는 전 국민의 생애 설계를 지원하는 국가 수준의 지원체제 구축을 제안하며, 이는 개인 측면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국가 측면에서는 국가 인적자원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한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진로지도와 진로교육을 포괄하는 생애 설계를 제안하고, 학습자의 진로개발 역량 강화, 접근성과 형평성 보장, 일선 현장의 실천력 강화, 장기적 관점의 기획, 그리고 질적 개선을 위한 시스템 설계 등 5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2. 2010년 이후: 제도화 논의의 본격화

2010년대에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 재편, 고용 형태의 다양화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성인 진로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김은석 외(2017)는 국가 진로개발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과 국가 차원의 경력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질 관리, 정보 인프라, 법·제도 영역별로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특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력개발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윤경 외(2018)는 성인 평생학습자를 자기주도적 성장의 주체자로 정의하며, 성인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예방적이고 장기적인 진로설계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성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로탄력성과 생애 진로목표를 기준으로 성인 학습자를 유형화하는 시도를 했으며, 성인 진로교육의 보급·확산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기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성인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시한 서유정 외(2020)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성인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로교육법」과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구체화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성인 진로교육이 취·창업 지원의 일부로서 추진되어 온 한계를 지적하고,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 확보, 진로교육 수혜자의 확대를 구체화하였으며,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체계 개정, 성인 진로교육 관련 용어 정리 등을 제안하였다.

정진철 외(2020)는 기존 연구를 종합하며 정책 개선의 주요 요구사항을 (1) 정책 및 제도 개선, (2) 대상 세분화, (3) 서비스 및 인프라 확대, (4) 기관 역량 및 연계·협력 강화, (5) 인력 양성 및 관리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들은 성인 진로개발을 "성인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삶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전 생애에 걸쳐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 계획, 준비 및 관리하는 과정(정진철 외, 2020, p.145)"으로 정의하며, 재직자 대상의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바우처, 학습휴가제 참여 확대, 성인 진로개발 전문가 양성 및 인증 체계, 생애 진로개발 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정진철 외(2021)는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모델로 '성인이 평생에 걸쳐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제공하여 진로개발 역

량을 함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속성, 개별성, 접근성, 체계성을 갖춘 모델'을 제시하며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8〉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정진철 외, 2021)

정책 영역	방안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 성인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마련 • 평생 진로개발 역량 검사도구 개발 및 보급 • 성인 진로교육 실천 가이드 개발 • 진로 취약계층 대상 요구 파악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 평생진로교육사(가칭) 자격 신설 및 직업상담사·평생교육사 자격 연계 • 성인 진로교육 담당 인력 양성·향상 체계 마련 • 중앙·지역 단위 성인 진로교육 담당 인력 연수 확대
진로교육 정보망 구축	• 진로개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성인 진로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진로교육 지원 체계 구축	• 진로교육 담당 기관 역할 확대 • 진로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 활성화
진로교육을 위한 제도와 문화적 기반 마련	•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 개정 및 계획 마련 • 성인 진로교육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자료: 정진철 외(2021: 112)의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함.

3. 2023년 법제화 이후 실천 기반 확장

2023년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이 확보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인 진로교육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역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현장 기반의 정책 연구가 강화되었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성인 진로교육의 핵심 목표를 '성인 진로개발 역량'으로 설정하고, 일(work)과 학습(learning), 풍요로운 삶(life)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경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희수 외, 2024). 이를

위해 체계적 지원체제 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킹 지원, 성인 진로교육 생태계 활성화 등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2-9〉 서울시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추진 전략	핵심 과제(안)	주요 내용
Ⅰ. 체계적 지원 체제 구축	Ⅰ-1. 서울형 성인 진로교육 운영 추진 체계 구축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성인 진로교육 사업을 조정하며, 서울시 지자체, 50플러스재단, 지역별 평생학습관, 기타 유관기관과 역할 분담
	Ⅰ-2. 성인 진로교육 전담 상담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	• 성인 진로교육 상담 및 컨설팅 전문가 양성과정 (공통/심화) 개발 및 운영
Ⅱ. 지역사회 네트워킹 지원	Ⅱ-1. 진단교육활동 복합 상담서비스 연계	• 생애단계별 진로역량개발 진단교육활동을 위한 지표 개발 및 활용 • 지역 성인 진로 및 평생학습 정보 체계 구축 • 온·오프라인 성인 진로교육 상담 및 컨설팅 • 개별 교육·학습 이력 관리 및 연계
	Ⅱ-2.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 디지털 평생학습 인프라 지원 및 교수·학습 역량 확대 • 디지털 성인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Ⅲ. 성인 진로교육 생태계 활성화	Ⅲ-1. 일-삶의 균형 프로그램 확대	• 일-삶의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일-삶의 균형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지원
	Ⅲ-2. 분야별 진로 멘토링	• 멘토 매칭,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프로그램 성과 관리 및 평가

자료: 이희수 외(2024)의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성인 진로교육을 “다각적 사회변화 환경을 마주하는 성인이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삶의 의미 추구를 위해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이윤조 외, 2024: 13)”으로 정의하고, 연령, 성별, 지역,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인 접근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직업적 실현뿐만 아니라 비직업적 실현까지 포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경기

도 성인 진로교육 기반 강화, 맞춤형 성인 진로역량개발 지원, 통합적 전달 체계 구축 등의 전략을 제안하였다.

〈표 2-10〉 경기도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추진 전략	핵심 과제(안)	주요 내용
Ⅰ. 경기도 성인 진로교육 기반 강화	Ⅰ-1. 성인 진로교육 모델 개발	• 경기도형 성인 진로교육 모델 개발 및 사례 발굴
	Ⅰ-2. 성인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격 인증 및 평가제도 구축 • 전문인력 양성 법적·재정적 지원
	Ⅰ-3. 성인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 맞춤형 콘텐츠 개발(생애주기별, 직업별, 소외계층 대상, 학습자 주도형 등) •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의 접근성 확대
Ⅱ. 맞춤형 성인 진로 역량 개발 지원	Ⅱ-1. 맞춤형 성인 진로교육 및 상담 운영	• 연령별·경력별 맞춤형 진로상담 시스템 구축 •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후 관리 및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Ⅱ-2. 취약계층 교육 기회 확대	• 교육 접근성 개선(지역 거점, 온라인 플랫폼, 이동식 교육 운영 등)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차상위, 농촌 지역, 고령층, 다문화 등) • 재정 지원 제도 구축
	Ⅱ-3. 경기도민 성인 진로 요구조사 및 분석	• 조사 설계 및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분석 및 결과 활용
Ⅲ. 통합적 전달 체계 구축	Ⅲ-1. 성인 진로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 경기 진로교육 통합 플랫폼(진로 정보, 상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등), 경기도 내 관련 프로그램 정보 통합 제공 • 데이터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추천, 개인 대시보드 기능 구축
	Ⅲ-2. 성인 진로교육 추진체계 구축	• 성인 진로교육 전담기관 설립 검토 • 유관기관 내 전담조직 및 인력 구축
	Ⅲ-3. 정책 평가 및 개선 시스템 마련	• 정책 성과관리 지표 개발 • 정책 성과 검토 자문위원단 운영

자료: 이윤조 외(2024)의 내용을 요약 및 재구성함.

한편 평생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연계하기 위한 연구(김철희 외, 2023; 김형만 외, 2024; 채창균 외, 2023)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교육-고용-복지 통합형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처 간 협업, 통합적 플랫폼 구축, 학습 이력 통합 관리 등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평생교육에서도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 직업적 역량 개발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고용-복지의 통합형 평생교육 거버넌스를 제시하며(김태준 외, 2022),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 조정 및 협업 체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표 2-11〉 평생·직업교육 관련 연구

구분	주요 내용
평생교육체계 효율화 방안 (김철희 외, 2023)	•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체제 구축 -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 구축 - 경력개발 및 경력관리 지원 강화 - 교육-고용-사회보장 관련 제도·정책 총괄 거버넌스 •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통합 관리체제 구축 - 평생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평생학습계좌제로 연동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이수 이력, 직무능력은행제 정보를 평생학습계좌제에 연동 • 중장년 인재 활용을 위한 기업 역할 강화 - 기업주도 자율형 고령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 중고령층 고용 및 교육훈련 협의체 내 기업·산업계 참여 의무화 - 사회적 협력 방식의 신사업 모형 발굴 • 중장기 노동수요 전망에 기초한 중장년 교육훈련 지원 • 중장년 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 간 연계 강화 • 국가적 차원의 성인진로전환지원 거버넌스 구축 운영 - 범정부 차원의 국가진로전환위원회(가칭) 구성(위원장: 국무총리) - 국가진로전환지원센터, 지역진로전환지원센터 설치 - 지역 내 대학, 평생교육시설, 고용서비스 기관 간 협력·연계 - 중고령자 진로전환 지원 전문 컨설턴트 양성, 연수체계 구축 • 기술변화에 대응한 인재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 평생교육 효과성 제고 및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평가 내실화

구분	주요 내용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훈련·평생교육체제 중장기 개편 (채창균 외, 2023)	• 사업자 주도에서 개인 주도 직업훈련·평생교육으로 전환 - 직업훈련·평생교육 재원 관리제도 개편 - 유급훈련휴가제도의 도입 • 직업훈련·평생교육의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개편 - 부처 간 공동 성과관리체계 구축으로 관리의 통합 - 직업훈련포털과 국가평생학습포털 통합·운영, 바우처 통합 • 직업훈련·평생교육의 질적 개선 - 직업훈련기관의 품질관리, 대학의 역할 확대 - 역량 중심 자격관리체계 구축과 자격 거버넌스 개편
직업·평생교육 발전 방안 (김형만 외, 2024)	• 직업·평생교육의 고도화 - 대학의 직업·평생교육의 위상 강화, 교육과정 다양화 - 전문교육 이행 경로 및 중등직업교육의 정체성 재정립 - 생애 차원의 직업진로체계 구축(개인의 학습, 직업, 경력 통합 시스템) • 직업·평생교육의 학습 기회 창출 - 노인, 외국인, 소외계층 등의 학습 기회 창출 - 사각지대 근로자의 직업·평생교육 확대(전 국민 학습휴가제 적용 등) • 지역의 직업·평생교육 추진 역량 확보 - 지역 산업 중심 직업·평생교육 구현 체계 재확립 - 지역 인재 정책과 직업·평생교육 정책 연계, 직업·평생교육 중심 RISE 운영 • 직업·평생교육 인프라 재확립 - 정보 인프라 재확립(학습·훈련 정보·이력 관리 통합) - 정부와 지방 간의 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 법·제도적 인프라 정비, 재원의 통합적 활용, 자격제도 정비

자료: 김철희 외(2023), 김형만 외(2024), 채창균 외(2023) 각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발췌 및 요약하여 재구성함.

국내 성인 진로교육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2000년대에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급변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성인 진로개발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0년대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체계적인 성인 진로개발을 위한 지원 모델과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후 2023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현장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고용-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 방안으로 확장하고 있다.

〈표 2-12〉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발전 단계

시기	명칭	주요 특징
2000년대 (2003~2007)	성인 진로개발 담론의 등장	• 진로개발의 전 생애적 관점 도입 • 평생직업 시대에 맞춰 성인 진로개발에 대한 국가 책임 논의 시작
2010년대 (2017~2022)	제도화 논의 본격화	•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제도 정비 논의, 「진로교육법」, 「평생교육법」 개정 논의 확산 •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와 체계적인 지원 모델 제시
2020년대 (2023~)	법제화 이후 정책 실천 기반 확장	• 「평생교육법」 개정(2023)으로 법적 근거 확보에 따라 지역 단위 정책 연구와 실행 시작

자료: 연구진 작성

제3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및 정책

1.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추진 근거는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기본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령에 직·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성인 진로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기본법」, 「진로교육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은 대한민국 교육 전반에 대한 기본 이념과 원칙을 규정하는 최상위 교육 법률로 1997년 12월 13일에 제정되었다. 모든 교육 관련 법령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2023년 '제22조의3(진로교육)'을 신설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성인을 포함한 생애 진로지원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2-13〉「교육기본법」 내 '진로교육' 관련 조항

제22조의3(진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 ·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나.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은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구체화한 법률로 1999년 8월 31일에 개정되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23년에는 생애 전반의 진로개발 필요성을 반영하여 제2조(정의)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강화 교육'을 포함하였으며, 지역진로교육센터가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 학습자의 진로 전환 및 경력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표 2-14〉「평생교육법」 내 '성인 진로교육'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진로심리검사·진로상담·진로정보·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내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입법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른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 전반에서 진로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현행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개정안이 발의되었다[1].

이후 진행 과정에서 직업능력 향상교육과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 구분되었으며, 진로교육의 정의는 「진로교육법」을 준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성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로개발역량 향상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여,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법률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사업은 주로 직업교육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어 차별화되는 영역이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이나 대학이 성인을 대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서동용 의원 등 12인, 제2116260호(2022. 7. 1.)]

상으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면 두 부처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국민들의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답변하며[2], 성인 진로교육 실시에 있어 평생교육기관과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 진로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조항은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와 중복됨에 따라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진로교육법

「진로교육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단계에서의 체계적 진로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 6월 22일 제정되었다. 「진로교육법」 제정 당시, 교육 관련 기본법 내 진로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별도의 입법 추진을 통해 진로교육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제14조를 통해 대학 단계 진로교육 지원 정책 기반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전 국민 또는 성인을 직접 대상으로 포함하지는 못하고 있다.

〈표 2-15〉「진로교육법」 내 '성인 진로교육' 관련 조항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384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2021. 2.)

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 방안(1996. 2.)」에 따라 신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3월 27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를 촉진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법 제4조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훈련 대상자의 진로지도 포함도 규정하고 있다. 즉, 진로교육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독립적 내용으로 명확히 규정되지는 않았다.

〈표 2-16〉「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내 '진로교육' 관련 조항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지도**

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산학협력법)

1963년에 제정된 「산업교육진흥법」은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공유·확산을 위한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체, 학교 및 정부출연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5).

「산학협력법」은 제3조(학생의 진로지도)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학생의 진로지도 시책 수립을 명시하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진로지도 시책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지도가 갖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표 2-17〉「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내 '진로교육' 관련 조항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진로 지도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운영과 학생의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教員)의 배치·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하여 **진로 지도** 담당 교원과 관계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할 사항 3.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진로**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사항

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용정책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제정되었다. 국가 고용정책의 최상위 기본법으로서 국가 고용 관련 법령·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제1조(목적)에서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근로자 등의 책임과 의무),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근로자 등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진로개발의 주체와 지원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20조(직업능력 개발 지원)는 모든 국민이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2-18〉「고용정책 기본법」 내 '진로교육' 관련 조항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상담**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전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쳐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 8월 17일에 개정되었다.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재직자뿐만 아니라 구직자, 경력단절자, 청년, 중장년,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괄하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되면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정의에 '직업·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경력개발 등과의 연계성을 명시하였고,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

영)'에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통한 직업·진로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내 진로상담과 경력개발 지원까지 포괄하며, 전 국민의 생애경력개발 지원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표 2-19〉「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내 '성인 진로교육'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⑧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경력개발** 등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성인 진로교육은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국민의 평생 진로교육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평생교육법」은 성인 학습자의 진로 전환과 경력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은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직업·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을 명시하여 직업·훈련과 진로개발 지원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역시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지도'를 포함하여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성인의 진로개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각기 다른 목적과 용어를 사용하고 소관 부처도 나뉘어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수요자 입장에서는 통합적인 진로개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표 2-20〉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종합

구분	평생교육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평생직업능력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법)
목적	•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	•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산업현장 필요 인력 양성 • 국민의 고용 창출, 고용 촉진, 고용 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 능력 중심 사회의 구현 및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	•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 향상 •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관련 조항	• 제2조(정의) '평생교육' 영역으로 포함 •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 실시)	• 제2조(정의) •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대상	• 전 국민(성인 중심)	• 만 15세 이상 전 국민 (재직자, 구직자, 경력단절자 등)	• 만 15세 이상 전 국민 (학교 재학생 등)
용어 및 정의	•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성인 진로교육) 용어 사용 •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를 위한 활동 명시	• '직업·진로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용어 사용 • '직업능력개발사업' 내 포함 사항	• '진로 지도' 용어 사용 • '직업교육훈련계획' 내 포함 사항
방법	•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취업지원	•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진로상담, 경력개발 지원	• 명시적 언급 없음
주요 특징	• **평생학습 관점에서 진로개발역량 향상 강조**	•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훈련과 상담/경력개발의 연계 강조**	• **직업교육훈련계획 내 포함 사항,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로 강조**
소관 부처	• 교육부	• 고용노동부	• 교육부, 고용노동부

자료: 연구진 작성

2. 진로교육 관련 주요 중장기 정책 분석

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국가 차원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정책 과제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은 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직업세계의 변동성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진로교육의 대상을 전 생애로 확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교육부, 2023b). 특히 성인의 경력 재설계 및 직무 전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학령기 중심의 진로교육을 넘어 성인 대상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이에 따라 4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을 제시하고, 성인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포함하였다.

〈표 2-21〉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내 성인 진로교육 관련 내용

세부 과제		주요 내용
4-1.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지원 체계 구축	국가진로교육센터 기능 강화	• 생애주기별 진로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 성인(경력관리, 재교육): 자신의 진로에 맞게 경력을 관리하고, 심화된 실무지식 습득
4-3. 성인의 진로 확립·전환을 위한 진로개발 역량 강화	성인 대상 진로교육 기반 마련	• 법령 개정 -「진로교육법」,「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진단도구 개발 - 성인 진로개발 역량 검사 도구 개발·보급
		• 지역사회 연계 - 평생학습도시 계획 수립 시 반영 등
	성인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지역 내 대학·기업 등과 연계
		• 컨설팅 지원 - 성인진로상담센터 운영, 전문컨설턴트 양성

자료: 교육부(2023b).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에서 발췌 및 요약

나.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

2022년 12월에 발표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은 미래 불확실성과 기술 혁신 증가에 따라 생애 초기 성장 경로를 넘어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평생학습 정책이 '학력보완, 여가선용 수단'을 넘어 '필수적인 재교육·향상교육'으로 대전환하고, 선택적 교육이 아닌 삶의 질을 향상하는 지원으로 재정립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교육부, 2022b).

〈표 2-22〉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내 성인 진로교육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성인 역량향상을 위한 대학 역할 강화	성인 학습자 전담 대학 확대	• 대학 내 성인학습자상담센터 설치·운영 - 학습컨설팅, **경력·진로설계,** 학교생활 등 지원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	상담 지원	• 30~50대 국민 대상 각종 상담 지원 - 정신 상담, 심리상담, 직업상담 등 - 관계부처 관련 사업과의 연계
	전문적인 학습컨설팅 제공	• 성인학습진로상담센터 운영 - 대학,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에 운영, 평생학습컨설팅 제공 • 전문컨설턴트 양성 - 평생교육사 등을 대상으로 재교육 추진
인공지능 기반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	학습진단·관리·설계 지원	• 인공지능 학습이력 분석 및 개별 맞춤형 제안 - 학습 추천, 경력설계, 취·창업 상담 제공
	민간 연계·협력을 통한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	• 민간 학습지원서비스 연계 - 학습이력에 기반한 취업지원 서비스

자료: 교육부(2022b).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 발췌 및 요약

학습이력을 누적 및 관리, 학습이력 진단 및 설계,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온국민평생배움터', 평생학습플랫폼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고용노동부의 고용24(직업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정보), 타 기관 및 제도와의 연계, 다양한 직업·사회경력을 학력으로 인정

하는 제도를 통해 대학에서 일과 학습의 유연한 호환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등이 발표되었다(교육부, 2022b).

다.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23~2027)

2024년 1월에 발표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로 개인의 고용가능성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내세웠다(관계부처 합동, 2024). 특히 직업능력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개인에게 훈련 선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과 훈련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직업훈련의 직무 능력 향상 목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표 2-23〉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내 성인 진로교육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지원	(중고령자) 지원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이·전직 지원	• 신기술 분야 온라인 콘텐츠 확대·제공 • 이·전직 훈련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공급 • 직업훈련 참여 중장년의 생계비 대부 요건 완화 • 재직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제공 - 공동훈련센터 확대 및 장기유급휴가 훈련 활성화
개인 주도 훈련 성과 제고	충분한 훈련 정보 제공	• 훈련 정보 확대 제공을 통한 훈련 선택 기회 확대 - 훈련과정별 훈련생 관심 정보 제공 - 중앙부처 인력양성 사업 정보를 HRD-Net과 연계 • 직무능력은행제 정보시스템 구축 - 개인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 관리 지원 및 단계적 고도화를 통한 **개인 주도의 생애 경력관리 지원**
	개인 주도 훈련의 취업 연계 강화	• 취업률 성과 훈련과정 인센티브 강화 • 개인별 직무역량 바탕 훈련과정 추천 - 고용센터 중심 맞춤형 직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서 발췌 및 요약

라.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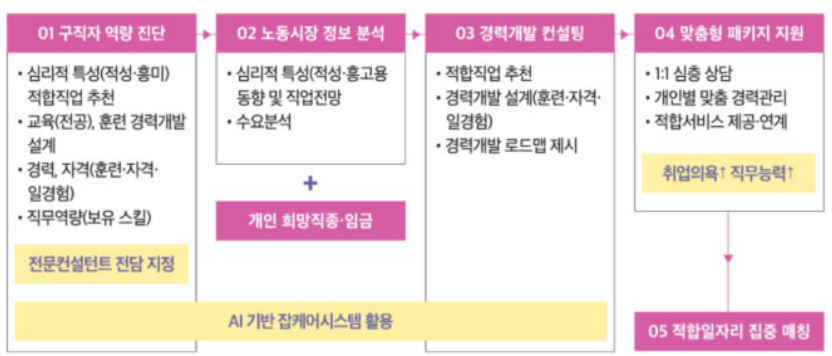
202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디지털, 신산업 등의 산업구조 변화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의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의 미스매치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조로 한다(관계부처 합동, 2023). 성인 진로교육과 관련해서는 고용서비스 관점에서 AI 매칭 서비스(Job Care) 고도화, 직무능력은행제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24〉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내 성인 진로교육 관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AI 매칭 서비스 (Job Care)	• 구직자 스스로 생애 시점별 직무이력 파악 • 직무역량 자가진단 실시, 희망·관련 직종의 시장 정보 분석·제공
직무능력은행제	• NCS를 중심으로 개인의 직무역량 자동 추출·추적 및 이력 증빙 활용 (교육과정, 직업훈련, 자격 등)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 잡케어(Job Care) 기반 개인별 직무역량 및 노동시장 정보 분석 제공 • 1:1 심층 상담을 통한 경력설계 컨설팅 및 직업훈련-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에서 발췌 및 요약

[그림 2-1]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1922 (검색일: 2025. 9. 3.)

2020년대 들어 발표된 주요 중장기 정책들은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성인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국가적 차원의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2023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은 성인의 경력 재설계 및 직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 생애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평생학습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교육으로 재정립하고,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학습 컨설팅 및 경력설계 지원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과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고용 서비스 관점에서 AI 기반 개인 맞춤형 진로·경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주도의 직무능력 향상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이 '학습'과 '일(직무)'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핵심적인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3. 교육부의 성인 진로교육 관련 정책 사업

교육부의 성인 진로교육 관련 정책 사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과 대학의 성인 학습자 지원 사업, 성인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역의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및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1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제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어,

2024년 기준 총 198개의 평생학습도시[3]가 조성되었다(교육부, 2025a).

2025년에는 기존의 기초지자체 단위를 넘어 도시 간 또는 광역 차원에서 평생학습 자원을 연계·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인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가 추진된다(교육부, 2025a).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는 학습-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지자체-대학-기업 연계·협력 기반의 평생교육 모델이다.

[그림 2-2]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구성(안)



자료: 교육부(2025a). 202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p. 3.

나. 평생학습계좌제

평생학습계좌제는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과 동시에 학습 결과를 사회적 활용에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시행 초기 단계에서 교육부 차원의 평생학습이력관리와 고용노동부 차원의 학습비 지원을 상호 연계 및 통합하는 취지가 검토되었으나, 실행 단계에서는 교육부 중심의 평생학습 결과 인증과 학습

3)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가 형성된 도시를 말함.

이력 누적·관리 제도로 추진되었다(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4).

「평생교육법」 제23조(학습계좌)에 근거하여, 평생학습계좌제는 국민의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로 학력, 경력, 자격, 평생학습 이수, 기타 활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다.

[그림 2-3] 평생학습계좌제 운영 제도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nile.or.kr/usr/wap/detail.do?app=13309&seq=37&lang=ko (검색일: 2025. 7. 22.)

기존 평생학습계좌제는 초·중등 학력 취득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이 관련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나, 2023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학습계좌제의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학점, 학력 또는 자격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고등 학력 인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서순영, 2024).

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AI 등의 기술환경 발전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학령기 중심의 대학 역할과 기능을 평생교육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8년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2017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통합 개편하였다(교육부, 2023a). 2019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LiFE)'을 통해 대학이 성인 학습자를 위한 친화적인 체제 구축을 본격화하였으며, 2주기(2023~2024년)까지 추진되었다.

〈표 2-25〉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표

구분	1주기	2주기
목적	• 대학의 고등평생교육기관 기능 및 위상 강화	• 대학을 지역의 평생교육 상시 플랫폼으로 육성
사업 기간	• 2019~2022년(2년+2년)	• 2023~2025년(2년)
지원 규모	• 교당 7.8억 원 지원	• 교당 평균 10억 원 지원
지원 대상	• 30개교 (일반대 23개, 전문대 7개교)	• 50개교 (대학 50개교, 광역지자체 5개)
세부 전략	• 성인친화적 학사운영 확대 • 대학의 중장기적 운영 • 지역별 후학습 거점센터 구축	• 성인·학령기 구분 없는 평생교육 특화 대학 육성 • 지역-대학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혁신의 추진동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 지원

자료: 교육부(2023a).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기본계획(안). p. 27 일부 발췌

LiFE 1주기 사업은 성인 학습자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성인학습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명시하며, 주요 기능으로 성인 학습자 상담 및 지원,

학습이력 관리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9: 12). 2주기 사업에서도 '성인 학습자 전담 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 교육설계, 진로매칭, 학교적응, 경력·이력 관리, 학사관리, 학습경험 인정 등을 지원하는 것(교육부, 2023a: 9)을 주요한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 학령인구 감소, 지역 산업체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3년간 추진되었다(교육부, 2022a). 본 사업은 전문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특화 분야 및 우선순위 현안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 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지역에서의 입학-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전문대학이 소재 지역의 생애 전 주기 고등직업교육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1)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2) 지역 특화 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재양성, (3)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를 필수 사업으로 포함하였으며,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 고도화'는 비학위 과정으로 지역 내 산업체 재직자 재교육, 신중년 재취업 교육,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수요 반영 등을 포함하였고, 관련 성과지표로 '직업교육심화과정 이수 실적'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2a).

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25년부터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로 통합되었다. RISE는 '지역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성인 학습자의 경력개발과 지역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대학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이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되었으며,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이 지역 산업 및 성인 학습자의 실제 수요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되어 지역 주도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과 역할의 확장 및 고도화를 요구받고 있다.

지역은 자율적으로 RISE의 성과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였는데, ①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②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③ 직업·평생교육 혁신, ④ 지역 현안 해결 등이 제시되었으며, 2025년 4월 발표된 개정 문서(교육부, 2025b)에 따르면, '공통성과지표'로 '성인 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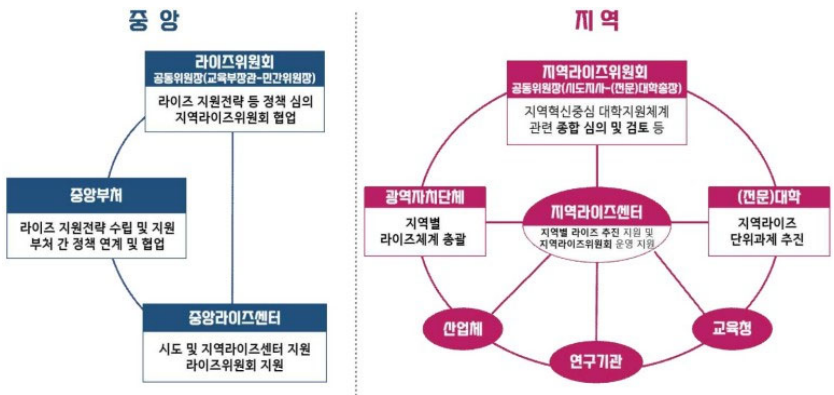
〈표 2-26〉 '성인 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정의 및 측정 산식표

구분	내용
지표 정의	• 지역 고등교육기관 내 성인 학습자 증가율과 인적자원 개발 성과를 측정한다.
조사 대상	• RISE 참여지역 전체
측정 산식	• 성인 학습자 고등교육 실적 증가율 = ㉮ × 0.5 + ㉯ × 0.5 ㉮ 성인 학습자 고등교육 참여 증가율 ㉯ 성인 학습자 고등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실적 증가율 = ㉯-1 성인 학습자 취·창업률 × 0.5 + ㉯-2 성인 학습자 유지취업률 증가율 × 0.5 ※ 성인 학습자는 입학 연령이 전문대는 만 25세 이상, 그 외 고등교육기관은 만 30세 이상인 자
참고사항	• 해당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본통계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를 활용,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득점 산출 및 사후 검증 가능

자료: 교육부(2025b).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개정) pp. 36~37에서 일부 발췌

RISE의 거버넌스는 중앙에서는 교육부 등의 중앙부처와 지방시대위원회,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RISE 위원회를 운영하며, 지역에서는 지역RISE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 및 운영한다. 지역RISE위원회는 지역의 RISE 기본계획, 사업 수행 대상 선정 평가결과, 성과관리 등 RISE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교육부, 2025b).

[그림 2-4] 중앙-지역 RISE 거버넌스 구조도



자료: 교육부(2025b).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개정) p. 1.

바. 인공지능·AID 30+ 프로젝트

2024년 발표된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는 30세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교육을 지원하고, 학점은행제 등 전통적인 평생학습제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하며 평생학습 통합(원스톱) 플랫폼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교육부, 2024).

디지털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있어 부처, 기업, 지자체 및 글로벌 기관과의 공유·연계, RISE 체계와의 연계·협력 등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디지털 평생학습에서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역할을 '평생교육 진흥'까지 확대하고, 선발 일정 자율화,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유도 등을 통해 성인들이 대학에서 재교육·향상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재교육, 향상 교육 기능을 강화하며,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교육부, 2024).

평생학습제도 측면에서 전통적 방식의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개선,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온국민평생배움터) 내 학습경로 추천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고도화하며,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 개설 활성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성인으로 확대, 한국형 디지털 역량 진단인증체계 도입, 디지털 배지 발행 및 활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형 디지털 역량 진단인증체계는 디지털 역량 진단부터 교육, 인증을 통해 취업·경력전환까지 활용하며, 경력설계, 취업지원 활용을 위하여 고용서비스 기관(예: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중장년 내일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교육부, 2024).

4. 고용노동부의 성인 진로개발 지원 관련 정책 사업

고용노동부의 성인 진로교육 관련 정책 사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중장년내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는 40세 이상 재직자, 퇴직(예정)자 및 사업주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지원,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전 및 재취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센터로, 2025년 기준 전국 3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용24 홈페이지, 2025).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기초 및 심층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5).

〈표 2-27〉 중장년내일센터 지원 내용표

구분		주요 내용
중장년 지원	생애경력 설계	• 참여자 연령, 취업 여부, 종사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직업역량, 가치관 분석 등을 통한 미래 경력대안 탐색 등 * 「기초, 심층상담으로 경력 특성 파악 → 개인 목표별 서비스 유형 분류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제공 → 일자리, 직무교육, 훈련 연계 → 사후관리」 등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전직스쿨	• 퇴직(예정)자의 실직 불안감 해소 및 전직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여 새로운 진로 탐색 및 원활한 이·전직 지원
	재도약 프로그램	• 재취업에 필요한 구직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직역량 향상 프로그램 제공
	산업별 특화 서비스	• 지역별 주요 산업을 반영하여 산업군별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직업정보 제공, 직무교육, 동행면접 등 해당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중장년 청춘문화 공간 운영	• 중장년센터 내 '청춘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인문·여가·문화 등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독서·글쓰기 등 자기계발, 여가문화, 정체성 탐색·자존감 회복·심리 치유·관계 개선·인생 설계·직종별 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강연, 체험, 탐방, 세미나, 문체부 협업)
사업주 지원	사업주 지원 패키지	• 중장년층 고용 확대 등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① 고령자 계속고용·신규채용 컨설팅(지원금 연계), ②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 훈련, ③ '채용지원 전담반'을 통한 집중알선 등 사업주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223 (검색일: 2025. 7. 30.)

나. 온라인 검사도구 지원

스스로 생애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도구'를 제공하여 자신의 '경력개발 지향 유형'을 확인하고,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 능력과 관련한 현 상황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턴트와의 상담 등을 통해 행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 확인도 가능하다(고용24 홈페이지, 2025).

[그림 2-5]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경력개발 지향 유형

구분	특성	예시
일터기반 성장추구형	현재의 직업(직장) 유지를 지향하는 경력 유형 (동일 직업 - 동일 직장 유지형)	동일한 직장 내에서의 경력개발을 통한 승진
직무기반 도전형	현재의 직무와 연계한 이직을 지향하는 경력 유형 (경력 확장 - 이직형)	A업체 호텔리어 재직 경력을 통해 B업체 호텔총지배인으로 이직
직무중심 창업형	현재의 직무와 연계한 창업을 지향하는 경력 유형 (경력 확장 - 창업형)	산부인과 간호사 재직 경력을 통해 산후조리원 개업
경력전환 도전형	현재의 직무와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을 지향하는 경력 유형 (경력 전환 - 이직형)	사무직 근로자에서 판매영업직 사원으로 이직
경력전환 창업형	현재의 직무와 다른 직종으로의 창업을 지향하는 경력 유형 (경력 전환 - 창업형)	생산직 근로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창업

자료: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wk/u/c/1000/seniorLifePlanSelfTestIndicator.do (검색일: 2025. 7. 30.)

이 밖에도 전직준비도검사(NJRT)를 통해 전직을 준비하는 중장년 대상 심리상태, 신념, 태도, 기술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컨설팅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용24 홈페이지, 2025).

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만 40세 이상의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연령(40대, 50대, 60대)과 업·직종별(제조업 생산직, 서비스업 서비스직)로 구분하여 단계별(기초, 심화, 선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용24 홈페이지, 2025).

[그림 2-6] 고용노동부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개요 및 내용



프로그램		기초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
재직자	연령대	3h	3h	3h	3h	2~3h
	40대 경력전성	경력관리	변화관리	평판 및 네트워킹 관리	성과관리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50대 경력확장	나의 생애 조망하기	직업역량 도출하기	경력대안 개발하기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60대 경력공유	능동적인 인생을 위한 숨고르기	삶의 가치 발견하기	삶의 균형 잡기	100세 인생 준비를 위한 뛰어들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구직자		1.5~5h	1.5~6h	1.5~3h	1.5~6h	2~3h
		인생 들여다보기	인생 되돌아보기	제2 인생 계획하기	제2 인생 실행하기	건강, 재무, 여가, 관계 등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 itrd_sn=204 (검색일: 2025. 7. 30.)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교육받거나 온라인(www.elifeplan.or.kr)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집단으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등에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용24 홈페이지, 2025).

라. 기업담당자 전직지원 역량 강화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담당자의 실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지원' 기업담당자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운영 과정은 4단계(기초-입문-고급-특화)로 구성되어 있다(중장년 내일센터 홈페이지, 2025).

마. 중장년 경력지원제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업지원사업으로 2025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5a). 참여자는 1~3개월간 직무교육과 현장실무를 수행하며 월 참여수당(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현장 경력이 필요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운영수당(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실무수행, 직무교육, 멘토링으로 구성되며, 실무수행은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숙련이 필요한 분야에 해당한다. 직무교육은 소양 및 마인드셋, 디지털, 직무심화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멘토링은 현장실무자(멘토)의 맞춤형 직무교육, 조언, 노하우 전수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3장

성인 진로교육 운영 현황 분석

제1절 성인 진로교육 운영 사례
제2절 성인 진로교육 참여 요구
제3절 성인 진로교육 운영에서의 쟁점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성인 진로교육 운영 현황 분석

제1절 성인 진로교육 운영 사례

1. 성인 진로교육 관련 인프라 분석

가. 평생교육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계열화되어 있으며, 각각 전담기구, 행정기구 및 심의·협의 역할과 기능을 추진하도록 구축되어 있다([그림 3-1] 참고). 광역자치단체 수준에는 각 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전달체계로 존재하며, 기초자치단체 수준에는 시군구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중앙정부 수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평생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교육부장관)는「평생교육법」제10조에 따라 중장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지역단위에서는「평생교육법」제12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

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시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시도협의회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평생교육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제공 및 운영, 관련 사업 간 조정·협의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1] 우리나라 평생교육 전달체계

《 평생교육법상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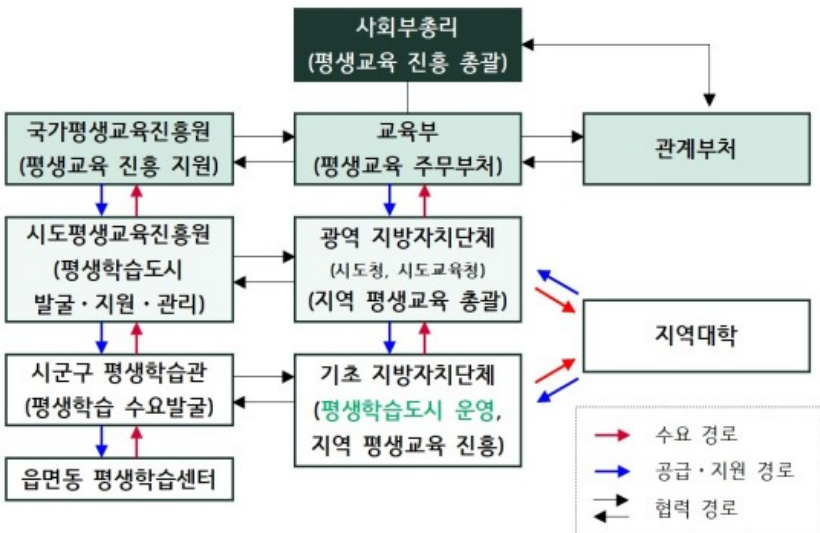
	추진기구	수립계획	지원·집행기관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 교육부장관)	5개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 지자체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의장 : 시·도지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기초 지자체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의장 : 기초지자체장)	자체 평생교육계획 (근거 : 조례)	시·군·구 평생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안). p. 21.**

한편 최근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관계부처 합동, 2022)에서는 지자체 및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재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간 수직적·수평적 정책 전달체계 강화에 대한 사항이 강조되었다([그림 3-2] 참고). 구체적으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등 공공 평생교육기관에 행정·교육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기초지자체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의 프로그램 지원 등 수요-공급 형태의 수직적 연계

강화,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 간 평생학습 관련 협의회 개최 활성화 등 지자체 내 수평적 교류·협력 지속 확대 등이 포함된다.

[그림 3-2]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정책 전달체계 강화(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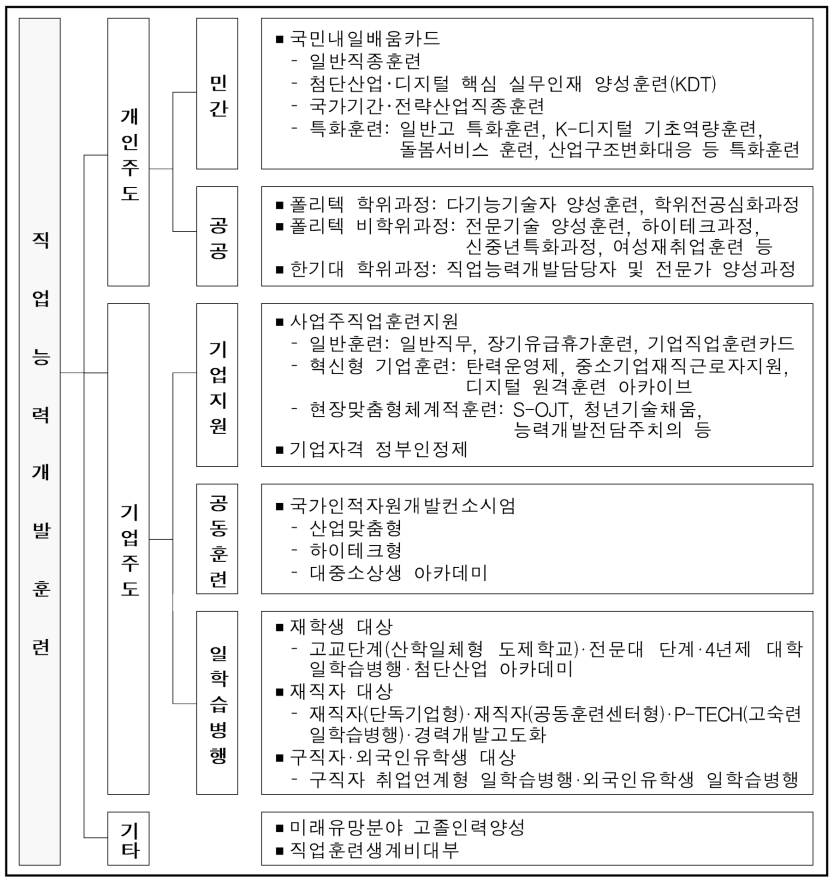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 p. 27.

나. 직업교육훈련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추진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훈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다중적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한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광역 및 기초 단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을 맡아 직업교육훈련기관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방 간의 단절로 인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그림 3-3]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



자료: 고용노동부(2025b: 3).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p. 3.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추진체계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4]이 대표적이다. 2021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훈련은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 개인 주도와 기업 주도로 구분된다. 개인 주도 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대표적이며, 기업 주도 훈련은 '사업주직업훈련지원' 등의 기업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는 공동 훈련, 일학습병행 등이 해당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은 공공훈련과 민간훈련으로 구분되며, 공공훈련기관보다 민간훈련기관 수가 더 많다.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훈련기관 중 '사업주단체 등 시설'과 '기타'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5b). 기타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현황(2020~2024)

연도	총계	공공훈련기관					민간훈련기관			
		소계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부처 등	소계	지정직업훈련시설(훈련법인 포함)	사업주단체 등 시설	기타
2020	6,767	88	40	1	5	42	6,679	697	2,920	3,062
2021	7,195	90	40	1	5	44	7,105	681	3,182	3,242
2022	7,341	91	40	1	5	45	7,250	662	3,387	3,201
2023	8,407	92	40	1	5	46	8,315	630	4,147	3,538
2024	8,378	91	40	1	5	45	8,287	598	4,120	3,569

자료: 고용노동부(2025b: 82). 연구진이 재작성함.
※ 훈련시작 일자를 기준으로 훈련과정을 실시한 훈련기관 수
※ 2024년 12월 기준 관계부처 현황: 법무부(38), 환경부(1), 서울특별시(4), 경기도(1), 부산광역시(1)
※ '사업주단체 등 시설'에는 자체, 위탁, 자체+위탁 포함
※ 기타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포함

4)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고용노동부, 2025b)

2024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조사(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3.1%(형식교육 0.5%, 비형식교육 32.7%)이며, 이 중 직업 관련 목적[5]으로 비형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14.5%, 연평균 참여 시간은 58시간으로 나타났다. 참여 시간은 성별, 연령, 학력,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자보다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자의 참여 시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비형식교육의 참여 목적은 직업과 관련된 경우가 43.9%, 직업과 무관한 경우가 56.1%로 나타났으며, 직업과 관련된 경우는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고용 안정',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등의 순서로 확인된다(〈표 3-2〉 참조).

〈표 3-2〉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구분	직업 관련 목적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	고용 안정 (일자리 유지)	직업과 무관한 목적	건강관리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	교양 함양이나 지식 습득 등 자기계발	사회 참여	친목 도모 증진
비형식 교육	43.9	6.4	22.5	0.8	14.2	56.1	32.0	10.6	10.9	0.8	1.8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 p. 70의 내용을 재구성함.

이러한 평생학습의 낮은 참여율과 참여 시간은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문적인 학습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아, 당면한 직무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비형식 교육의 참여 목적이 직업과 무관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성인의 평생학습이 직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5) 현재 또는 차후 희망 직업과 관련하여 ① 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 ②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 습득, ③ 성과급, 연봉 등 소득 증대, ④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뜻함.

의 질 향상, 취미, 자기계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성인 진로교육 정책이 직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복합적인 삶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적 진로개발 지원 체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성인 진로교육 운영 사례 분석

앞에서 살펴본 평생교육 전달체계와 직업교육훈련 전달체계라는 제도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단위에서는 다양한 성인 진로교육 운영 사례가 전개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평생교육진흥원은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에 성인 진로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인생디자인학교'는 4050 인생전환기 시민을 위한 기초역량·실행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통합 진로상담과 직업역량 강화 과정을 통해 구직자와 재직자의 진로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50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생재설계 아카데미' 등 제2경력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사업에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특화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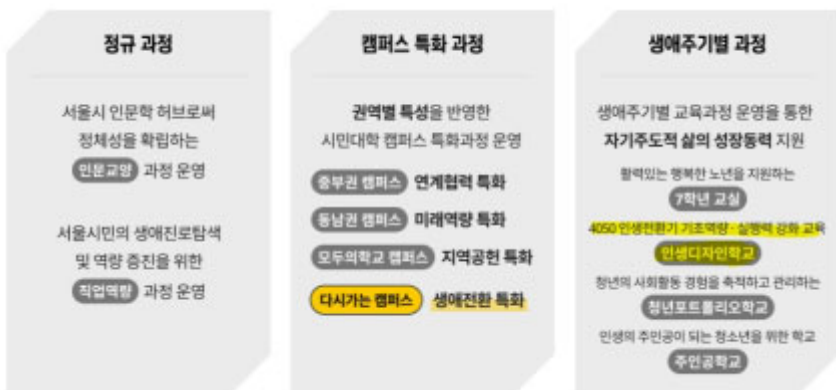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행복을 증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도 평생

교육진흥원을 설치하여 시군구 평생교육 컨설팅, 연수, 사업지원 및 공동사업 추진 등 시도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중 특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 4050 인생디자인학교' 운영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크게 정규 과정, 캠퍼스 특화 과정, 생애주기별 과정으로 구분된다([그림 3-4] 참고). 정규 과정은 인문교양 및 직업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캠퍼스 특화 과정에는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계형·미래역량·지역공헌 프로그램과 함께 성인 진로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다시 가는 캠퍼스'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 과정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7학년 교실', 청년층을 위한 '청년포트폴리오학교', 청소년 대상의 '주인공학교'와 더불어,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디자인학교'가 개설되어 있다.

[그림 3-4] 서울시민대학 교육과정



자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slei.seoul.kr/program/openUniv/curriculum.do (검색일: 2025. 09. 05.)

특히 '서울 4050 인생디자인학교' 과정은 4050세대의 생애 전환기에 필요한 기초역량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생애 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히 학습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직업·사회참여 활동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3-5]에 제시된 '서울 4050 인생디자인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라이프스타일 살롱, 비전하우스 워크숍, 프로젝트 실험실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성인 학습자의 변화 적응력 강화, 자기이해 증진, 실행력 제고라는 목표를 담고 있다.

[그림 3-5] '서울 4050 인생디자인학교' 교육과정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민대학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https://sll.seoul.go.kr/main/doSeoulSiminIntroView.do?main_se=ssu&gubun=design&mnid=202501413777 (검색일: 2025. 09. 05.)

2)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베이비부머 앙코르 행복캠퍼스' 운영[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적인 생애 전환과 제2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베이비부머 앙코르 행복캠퍼스'를 운영하고

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gg4060.or.kr/ (검색일: 2025. 09. 05.))를 참고하여 작성함.

있다. 이 사업은 상담·교육·커뮤니티·일자리·사회공헌을 포괄하는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기이해와 역량 강화를 통해 재취업, 창업, 사회참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규교육 과정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변화 이해와 삶의 재설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규강좌(대면·이론·실습 병행), 계절강좌(단기 집중), 교양강좌(온라인 학습)로 구성된다. 또한 공통필수 과정과 더불어 '연결의 기술', '몸과 마음의 균형', '내일을 위한 준비', '관계의 온기', '성장의 즐거움' 등 다섯 가지 선택과정이 입문–심화 단계로 제공된다. 아울러 수원, 고양, 안산 등 권역별 특화과정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생재설계 상담은 자기이해와 생애 진로상담을 중심으로 집단 상담과 1:1 맞춤형 상담을 병행하며, 온라인 심리검사 및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경력과 강점을 재구조화하고, 은퇴 이후 지속가능한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커뮤니티 및 사회공헌 활동은 중장년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며, 월 2회 이상 활동과 연 1회 이상 사회참여를 조건으로 한다. 학습, 문화·예술, 취·창업, 진로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확장과 지역사회 기여가 이루어진다.

일자리 연계 지원은 재취업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창업·창직 교육과 컨설팅, 일자리 박람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진로 설계가 실제 취업·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명사특강은 최신 사회·직업 트렌드를 반영한 강의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기 성찰과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과정은 상담-교육-커뮤니티-지역 연계 사회공헌활동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이윤조 외, 2025).

〈표 3-3〉 경기 베이비부머 앙코르 행복캠퍼스 주요 사업

구분	대상	주요 내용	기대효과
정규교육 과정	도내 베이비부머 (40~64세)	• 정규강좌(대면, 이론+실습) • 계절강좌(단기 집중) • 교양강좌(온라인 학습) • 공통필수 및 5대 선택과정(연결의 기술, 몸과 마음의 균형, 내일을 위한 준비, 관계의 온기, 성장의 즐거움) • 권역별 특화과정(수원, 고양, 안산)	생애 전환기 기초역량 강화 및 지역맞춤형 학습 제공
인생재설계 상담	도내 베이비부머 (40~64세)	• 자기이해 및 생애 진로상담 • 집단 상담 및 1:1 맞춤형 상담 • 온라인 심리검사 제공 • 상담 전문기관 연계	생애 2막 진로설계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진로지도
커뮤니티 및 사회공헌 활동	중장년 포함 5인 이상 커뮤니티	• 학습, 문화, 예술, 취·창업, 진로탐색 분야 활동 • 월 2회 이상 활동, 연 1회 이상 사회참여 • 학기당 최대 50만 원 활동비 지원	사회적 관계망 확장, 지역사회 공헌, 자발적 학습 공동체 형성
일자리 연계 지원	취·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베이비부머	• 재취업 지원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 • 창업·창직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일자리박람회 참여 연계	재취업 및 창업 성과 창출, 고용시장 재진입 지원
명사특강	도내 베이비부머 및 일반 성인 학습자	• 최신 사회·직업 트렌드 반영 강의 • 인생 2막 설계를 위한 자기성찰 및 동기부여 기회 제공	새로운 지식 습득 및 진로·삶의 재구성 동기 강화

자료: 경기 베이비부머 앙코르 홈페이지. https://gg4060.or.kr/business/?act=sub1 (검색일: 2025. 09. 05.)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3)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및 성인진로상담실' 운영[7)]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성인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 기회 제공과 더불어 실질적인 진로 전환과 경력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6월부터 '평생학습·성인진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성인의 진로를 직업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학습·일·여가·관계·사회적 역할 등 삶 전반을 포괄하는 전인적 생애진로설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담실은 금곡동 청사 내 본원 상담실을 비롯하여 동래구평생학습관, 북구 만덕도서관, 연제구청, 거제평생학습관, 부산광역시청 등 6개 거점 공간에서 운영되며, 전문 상담 컨설턴트 5명이 상주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은퇴 예정자 등이며, 상담은 단순한 진로 탐색을 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상담 이후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직업역량 강화,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역 평생학습체제와 연계하여 지원한다.

또한 부산평생교육정보망 내 '평생학습·성인진로상담' 메뉴를 통해 상담 시간과 장소별 일정을 확인하고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병행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 상담실은 부산지역 시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성인 진로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성인진로상담실' 운영을 통해 성인의 학습과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평생교육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상담 기반 성인 진로교육

7)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bgli.re.kr/kor/CMS/Board/Board.do?mCode=MN083%20&mode=view&board_seq=24425 (검색일: 2025. 09. 05.))를 참고하여 작성함.

모델로서 전국적 확산을 견인함으로써 향후 국가 차원의 상담 중심 평생학습-진로개발-고용 연계 정책 설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상의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사례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 3-4〉와 같다. 서울, 경기, 부산 세 지역은 성인 진로교육을 학습-상담-실행-사회참여 등으로 연계하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운영 주체와 대상, 사업 내용(교육과정)에서는 차별점이 있다.

〈표 3-4〉 지역별 성인 진로교육 운영 사례 특징 및 학습 이후 연계 비교

구분	서울 4050 인생디자인학교	경기 베이비부머 앙코르 행복캠퍼스	부산 평생학습·성인진로상담실
운영 주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대상	4050세대 중장년	베이비부머 세대(40~64세)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은퇴 예정자 등
주요 사업 (과정)	• 라이프스타일 살롱 • 비전하우스 워크숍 • 프로젝트 실험실	• 정규교육 과정 • 인생재설계 상담 • 커뮤니티 및 사회공헌 활동 • 일자리 연계 지원 • 명사특강	• 성인 진로상담(6개 거점 상담실 운영) • 평생학습 경로 연계 • 지역 평생교육정보망 활용
운영 특징	• 생애 전환기 맞춤형 진로설계 과정 • 자기이해-실행-사회참여 단계적 모듈 운영	• 전용 공간 기반의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 • 상담-교육-커뮤니티-사회공헌 통합 지원	• 전문 상담 컨설턴트 상주 • 상담 기반 생애 진로설계 지원 • 직업·학습·여가·관계까지 포괄하는 상담 지원
학습 이후 연계	• 프로젝트 결과를 지역사회 활동으로 확장 • 재취업·창업, 사회공헌 참여 연계 • 학습공동체 기반 커뮤니티 지속	• 재취업 지원기관 연계 • 창업·창직 교육 및 컨설팅 • 일자리박람회 참여 연계	• 상담 결과를 학습-사회참여 경로와 연결 • 지역 평생교육정보망 기반 연계 강화
시사점	• 학습-상담-실행-사회참여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중장년층 특화 진로교육 모델 제시 • 상담·교육·일자리·사회참여 통합 지원	• 상담 기반 생애진로설계로 확장 • 상담 기반 성인 진로교육 모델

자료: 지역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나. 지자체 중장년 및 고용서비스 지원기관

1)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런 4050'[8)]

서울시50플러스재단(2025)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진로설계와 제2경력 탐색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의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를 위해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성인의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경력설계 지원 서비스,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4050 직업훈련, 40대 직업캠프 등을 운영함으로써 중장년층이 더 오래,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경력설계부터 다양한 직업훈련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중장년층의 진로교육이 상담·교육–재취업·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실행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중년 재직자 생애경력설계'[9)]

경기도일자리재단(2025)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양성과 고용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최고의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을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기반 혁신 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설정하였으며, 맞춤형 취·창업 지원, 일자리 서비스 혁신, 노동 패러다임 개선, 지속가능한 스마트 혁신을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향은 구직자와 기업을 효

8)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https://50plus.or.kr/org/index.do (검색일: 2025. 09. 01))를 참고하여 작성함.
9)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www.gjf.or.kr/main/content/view.do?sn=90 (검색일: 2025. 09. 01.)를 참고하여 작성함.

과적으로 연결하고, 성인의 생애단계별 요구에 대응하는 진로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잡아봐(Jobaba)' 플랫폼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직업역량 진단, 훈련과정 추천, 채용 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재직자가 진로개발을 위한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신중년 재직자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재직 중인 중장년이 인생3모작, 평생 현역 준비를 위해 생애 전환기에 직면한 성인이 지속가능한 진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략과제와 핵심가치,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잡아봐(Jobaba) 플랫폼과 신중년 재직자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는 성인 진로교육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맞춤형 취·창업 지원은 성인의 생애단계별 요구를 반영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직결되며, 성인 학습자가 자기이해와 역량 개발 과정을 거쳐 실제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일자리 서비스 혁신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AI 기반 역량 진단 등 새로운 도구를 성인 진로교육 현장에 접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노동 패러다임 개선과 지속가능한 스마트 혁신도 성인 진로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지향적인 가치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지역-대학 연계 사례: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의 일환으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선정된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을 3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다(교육부, 2022b). 이 사업은 우수 평생학습도시 또는

특별지원이 필요한 지역(예: 인구감소 지역, 지역산업 전환 대응 재교육 필요 지역, 고령층 다수 지역 등)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추진 구조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교육청 포함)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여기에 대학, 기업, 관련 기관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정부는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부처별 자원을 활용해 지자체 중심의 컨소시엄을 지원하며,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지원 상황을 정기 안건으로 상정하여 점검한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취업률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구한다(교육부, 2022b). 따라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대학-기업-지자체가 결합한 컨소시엄 운영 방식은 지역 단위 성인 진로교육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전북 등 4개 권역이 집중진흥지구로 선정되었으며, 각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별 추진 주제와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3-5〉 2025년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별 주제 및 주요 프로그램

권역	컨소시엄 참여주체	주제	주요 프로그램
서울	• 평생학습도시: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종로구 • 대학: 경희사이버대, 동양미래대, 배화여자대, 서울시립대, 총신대	미래를 SMART하게 디자인하는 '디지털·AI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서울	• [Synergy] 집중진흥지구 허브 역할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Mastery] '서울형 AID30+' 관계자 연구 및 자치구 컨설팅 • [Adaptation] 중장년·고령층 및 맞춤형 디지털 교육 • [Resilience] 성과 환류 및 지속 발전 전략 도입 • [Technology] 수준별 실무 중심·대상별 맞춤형 교육

권역	컨소시엄 참여주체	주제	주요 프로그램
부산	• 평생학습도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대학: 대동대, 동의과학대, 동아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대, 부산디지털대, 부산보건대, 부산예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한국해양대	내일을 꿈꾸는 LA-LA LAnd	• [학습하 LA] 내 일(work)을 위한 평생학습형 대학·기업 연계 인턴십 지원 교육 기획·운영 • [연계하 LA] 학습복지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통합정보망 구축 • [활동하 LA] 광역 차원 재능기부 풀 구축 및 활동 지원
광주	• 평생학습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학: 광주보건대, 조선이공대	내 일과 존엄한 삶이 있는 '내 일이 빛·시·나'	• 기업연계 원스톱 일자리 프로젝트 • 지역대학연계 평생현역 프로젝트 • 거점기반 건강활력 프로젝트 • Life-Story 크리에이터 프로젝트 • 생활 밀착 디지털 프로젝트
전북	• 평생학습도시: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 대학: 원광대 • 기업: ㈜KTcs, ㈜에듀라임	로컬학습시대를 여는 전북형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 달리는 모두 배움터 • 로컬공방형 마을배움터 • 30+e로운 디지털생활 • 로컬-MOOC 학습콘텐츠 구축 • 로컬플러스 프로젝트

자료: 교육부. (2025).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5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 발표.

제2절 성인 진로교육 참여 요구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참여 요구는 다양한 선행연구(서유정 외, 2020; 이재열 외, 2022; 이희수 외, 2024; 정윤경 외, 2018)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성인 학습자의 진로교육 참여 요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학습자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 요구, 즉 '성인 학습자는 어떤 교육을 원하는가'에 해당하며, 다른 하나는 운영 및 전달체계 요구, 즉 '성인 학습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싶은가'에 해당한다.

1. 성인 학습자는 어떤 교육을 원하는가?

성인 학습자의 진로교육 참여 요구는 연령, 생애단계, 직업경력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은 주로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취업 준비 및 직업역량 강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정윤경 외(2018)는 청년층이 학습을 통해 '취업 준비 능력 향상'과 '전문직 진출을 위한 직무 기술 습득'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분석하였다. 서유정 외(2020)의 조사에서도 청년층은 직업 탐색 및 구직 활동 지원, 이력서·면접 코칭, 직무 멘토링과 같은 실질적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은 경력단절과 생애 전환기의 도전에 직면해 있어, 기존 경력을 재구성하고 제2경력을 탐색할 수 있는 학습 요구가 두드러진다. 서유정 외(2020)는 FGI 결과에서 중장년층이 단순한 재취업 교육보다는 "삶의 재설계"와 "사회공헌 활동"을 결합한 진로교육을 원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희수 외(2024) 역시 서울시 성인 수요조사에서 중장년층이 '직업 재교육'과 '사회적 참여 활동'이 결합된 과정에 높은 요구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김진희 외(2023)에서는 4050세대 성인 학습자가 커리어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 고용 형태 확보, 새로운 직무·업종 도전, 경제적 부담 해소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커리어 전환 준비도 조사 결과에서 4050세대는 새로운 직무 적응과 역량 개발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아울러 고학력·고소득 집단에서 창업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중장년층은 "짧은 교육기간(1~3개월)"과 "저렴한 교육비(10~20만 원 미만)"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중장년층이 비교적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학습을 통해 커리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함을 보여준다(김진희 외, 2023).

고령층은 취업과 직업역량보다는 사회적 관계 유지와 자기실현, 건강·여가와 결합된 학습을 필요로 한다. 정윤경 외(2018)는 고령층이 진로교육을 통해 '삶의 의미 찾기'와 '자아실현'을 가장 크게 요구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고령층이 은퇴 이후에도 봉사활동, 지역사회 참여, 취미 기반 소득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인 진로교육은 생애주기에 따라 취업·경력전환·사회참여·자기실현을 포괄하는 맞춤형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성인 학습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싶은가?

성인 학습자들은 상담-교육-고용지원이 하나의 경로로 연결된 통합적 지원 체계로 운영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 경로를 설계하고, 이후 적합한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한 뒤, 그 결과가 실제 취업·창업·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기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이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선순환적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이재열 외, 2022).

아울러 성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 경험과 경력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인증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단순히 수료 여부를 기록하는 수준이 아니라, 학습 이력 관리와 표준화된 진단체계를 통해 개별적 특성과 준비 수준에 맞는 교육 추천과 진로상담을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 수요조사(이희수 외, 2024)에서도 맞춤형 진단도구와 상담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

게 나타났으며, 이는 성인 진로교육이 보다 과학적이고 정교한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성인 학습자들은 단순 강의 전달자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와 컨설턴트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디지털 전환 대응, 고령층 특화 프로그램, 기관 간 네트워크 연계와 같은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담-교육-고용이 연계된 전문적 지원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이희수 외, 2024).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성인 진로교육 참여 요구는 크게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교육 내용)'와 '어떻게 지원받고 싶은가(전달체계와 정책)'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성인 진로교육 참여 요구는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실질적 취업 준비와 직무역량 강화 요구가 두드러지므로, 대학·고용센터와 연계한 취업지원 및 멘토링 중심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장년층은 경력전환과 제2경력 설계를 중시하면서도 안정적 고용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요구하고 있어, 상담-교육-일자리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단기 집중·저비용 교육과정을 통해 현실적 제약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공헌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층은 삶의 의미와 자아실현, 사회적 관계 유지를 강조하므로, 건강·여가와 학습을 결합한 고령 친화형 프로그램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봉사·사회참여 활동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성인 진로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중장년-고령층이라는 생애단계별 요구 차이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운영·전달 체계에서도 맞춤형 접근을 취해야 한다. 특히 상담-교육-고용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지

원 구조, 학습자의 이력 관리 및 진단 체계, 전문성 강화와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성인 진로교육 운영에서의 쟁점

본 절에서는 성인 진로교육 관련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도출하고자 지역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평생교육진흥원 내 성인 진로교육 정책 운영 담당자, 경력개발·평생교육·고용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3-6〉 성인 진로교육 관계자/전문가 면담 내용

구분	특징	면담 내용
지역 평생교육 진흥원	•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성인 진로교육 정책 담당자 3인	• 성인 진로교육 운영 현황 • 성인 진로교육 담당 인력 운영 현황 • 평생학습자 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현황 • 지역 성인 진로교육 운영 요구 등
관련 전문가	• 진로개발 전문가 2인 • 평생교육 전문가 1인 • 고용서비스 전문가 1인	• 재취업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 • 일자리박람회·컨설팅을 통한 취·창업 활동 • 상담-교육-커뮤니티-사회공헌 연계 강화

자료: 연구진 작성

1. 지역 성인 진로교육 운영 관련 쟁점

가. 성인 진로교육 운영 현황: 전달체계와 프로그램 운영의 특징 및 한계

성인 진로교육은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은 단편적·시범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3개 지역 담당자 면담을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A 지역 담당자는 프로그램이 강좌 중심 운영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현재 운영되는 과정은 시민대학을 중심으로 4050 인생디자인학교, 2030 청년 포트폴리오학교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강좌를 듣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학습 이후 상담이나 사회참여 활동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부족합니다." (A 지역)

이 발언에서 확인되듯, 학습–상담–실천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점은 참여자 요구와 정책 방향 간 괴리를 보여준다.

B 지역 관계자 역시 유사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연결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재취업 상담 위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 삶을 포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제도적 제약 때문에 현실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B 지역)

또 다른 실무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범위를 설명하였다.

> "참여자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취업이 아닙니다. 자원봉사, 사회공헌, 취미 기반 활동까지 연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한데, 지금은 재취업 중심 지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B 지역)

이는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 범위가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설계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C 지역 담당자는 상담 기반 체계 구축의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고 하였다.

"평생학습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정보 제공, 요구 조사를 통합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범사업 수준이라 장기적인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제도 기반이 절실합니다." (C 지역)

또 다른 담당자는 상담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를 강조하였다.

"시민들의 반응은 좋아요. 하지만 상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교육–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제도적 설계가 뒤따라야 합니다." (C 지역)

이처럼 세 지역 모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학습–상담–사회참여의 선순환 구조'가 부재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인 진로교육이 단순한 교육 제공에 머물지 않고, 생애 설계와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 모델 구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나. 성인 진로교육 담당 인력 운영 현황

성인 진로교육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 체계가 핵심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면담 결과, 지역별 운영 방식은 상이했으나 전담인력 체계의 부재라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A 지역 담당자는 교육과정 운영 경험 부족과 체계적 인력 양성 부재를 강조하였다.

"성인 진로교육과 관련한 교·강사 양성이나 보수교육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와 직업상담사 간의 역할 차별성도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A 지역)

이는 현장의 실무자들이 교육과 상담을 동시에 담당하면서도 명확한 역할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인 진로상담·컨설팅 전문가”와 같은 새로운 전문 직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었다.

B 지역 담당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현재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큽니다.” (B 지역)

이는 위탁 중심 운영이 단기적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관 내 역량 강화에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C 지역에서는 직업상담사를 중심으로 한 인력 운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평생교육 근무경력을 가진 직업상담사를 상담 컨설턴트로 위촉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이해, 상담 사례 분석, 상담 기법 등 약 13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C 지역)

또한 이 지역 관계자는 상담사의 역량 강화가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제도적 기반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역량 강화 교육이 의미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체계화된 보수교육과 국가 차원의 자격 인증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C 지역)

세 개 지역 모두 성인 진로교육 담당 인력을 어떻게 양성·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현재는 위탁, 단기 교육, 기존 인력 재교육 등 파편화된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 진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 평생학습자 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현황

성인 진로교육에서 학습자의 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진로설계와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면담 결과, 각 지역은 나름대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단순 기록 수준에 머물러 진로지원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공통된 한계가 확인되었다.

A 지역 담당자는 자체 평생학습포털을 기반으로 한 수강 이력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저희는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교육 수강 이력과 시간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 진흥원 내 전체 교육 이력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합니다." (A 지역)

또한 A 지역은 학습 이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 "진로상담에서 학습 이력은 기본 자료인데, 디지털 배지 같은 인증 체계를 통해 학습자의 경험을 증명하고 상담·설계에 연결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지역)

B 지역에서는 GSEEK 플랫폼과 국가 평생학습계좌제가 있으나, 활용도가 낮음을 인정하였다.

> "저희도 지식(GSEEK) 플랫폼이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계좌제도 있지만, 성인 진로교육과 직접 연결되지는 못합니다. 참여율도 낮고 현장에서는 잘 쓰이지 않아요." (B 지역)

이는 시스템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활용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큰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C 지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록을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진로설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 "온라인 상담 이력은 ○○평생교육정보망에서 관리하고 있고, 오프라인 상담은 상담일지로 기록합니다. 월 1회 상담사례회의를 열어 공유도 하는데, 결국 기록 차원에 머물고 진로설계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C 지역)

지역 담당자는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력 관리가 단순히 '남겼다'로 끝나지 않고, 학습자의 생애진로설계로 확장되려면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C 지역)

지역별로 이력 관련 시스템은 운영되고 있으나, 이력이 진로설계와 구체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였다. 이는 평생학습-진로설계를 통합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라.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현황

성인 진로교육은 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면담 결과 각 지역은 연계·협력 수준과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세 개 지역 모두 아직 체계적인 협력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A 지역 담당자는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였다.

"저희는 평생학습관, 대학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인 진로교육과 직접 관련된 연계는 활발하지 않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주요 의제로 공론화하고, 체계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A 지역)

B 지역은 성인 진로교육이 도입 초기 단계라 타 기관과의 본격적인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아직은 성인 진로교육 자체가 시작 단계라 다른 기관과 본격적으로 연계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관련 정책연구를 온라인으로 배포한 적은 있고,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연계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 지역)

C 지역은 지자체 행정 부서와의 협력 경험을 공유하였다.

"저희는 평생학습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평생교육 부서와 연계하여 상담과 교육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협력이 대학이나 산업체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C 지역)

이처럼 A·B·C 지역의 사례는 서로 다른 수준의 협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성인 진로교육을 위한 범지역적 네트워크와 협력 거버넌스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향후 성인 진로교육이 정착·확산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 지역 성인 진로교육 운영 요구

1)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성인 진로교육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A 지역 담당자는 생애 전 주기적 진로설계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성인 진로교육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인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진로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대상도, 영역도, 담당 부처도 다 달라서 연계가 어렵습니다. 평생교육은 자기이해와 탐색, 고용훈련기관은 직업훈련과 정보 제공을 맡는 식으로 분업적·상호연계 구조가 필요합니다." (A 지역)

B 지역에서는 성인 진로개발역량 진단 도구의 부재가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 "성인 진로개발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생겨요.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진단체계를 개발·보급해야 합니다." (B 지역)

C 지역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취·창업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지금은 상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장년이든 청년이든, 실제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용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초소양, 직무역량을 바로 배워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합니다." (C 지역)

2) 국가와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의 역할 정립

국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A 지역은 정책 방향성과 실행 구조의 구분을 강조하였다.

> "국가는 성인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부처 간 통합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성과관리와 진로개발역량 진단도구 개발도 국가 몫입니다. 반면 시도는 상담·컨설팅 전문가를 양성·배치하고, 진로탄력성 과정 같은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군구에 보급해야 합니다. 시군구는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과정을 기획해야죠." (A 지역)

B 지역은 단계적 확산 모델을 제안하였다.

> "정책은 국가·시도가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발굴·운영해 성과를 검증한 뒤 시군구로 확산해야 합니다. 시군구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자기 지역에 맞는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는 게 맞습니다." (B 지역)

C 지역은 예산 지원과 현장 운영의 역할 분리를 강조하였다.

> "국가와 시도는 정책 과제 제시와 예산 지원을 맡고, 시군구는 지역민과 산업체 현황을 직접 파악해 수요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앙과 광역은 정책·재정 지원, 기초는 수요 기반 운영으로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C 지역)

이상의 면담 결과를 종합하면, 현장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기반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은 지역 나름의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면담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상담-교육-고용을 잇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이 각각 맡아서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지역별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 〈표 3-7〉과 같다.

A 지역은 국가 차원에서 진로교육 방향성 설정과 진단도구 보급을 요구하는 한편, 시도 단위에서는 전문가 양성과 학습이력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군구 단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지속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B 지역은 국가 차원에서 과학적·표준화된 진단도구 마련과 시범사업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시도 단위는 다양한 시범사업의 검증과 확산을, 시군구 단위는 이를 토대로 다양한 사례 창출을 중점 과제로 보고 있었다.

C 지역은 국가 차원에서 정책 방향과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시도 단위는 지역 맞춤형 과제 발굴과 예산 지원을, 시군구 단위는 주민·산업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지역별 면담 결과는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역 단위의 실행 자율성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7〉 국가-시도-시군구 단위 성인 진로교육의 역할 정립에 대한 의견 종합

구분	국가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A 지역	• 성인 진로교육 방향성 명확화 • 부처 간 연계 체제 마련 • 지역 사업 기획 및 성과 관리 • 진로개발역량 진단도구 개발·활용 방안 제시	• 상담·컨설팅 전문가 양성 및 배치 • 진로탄력성 강화 과정 등 선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습이력 인증·관리 플랫폼 구축	• 시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성 확보

구분	국가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B 지역	• 성인 진로개발역량 진단 도구의 과학적·표준화 필요 •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시범사업 지원 • 현장 확산 기반 마련	• 다양한 시범사업 발굴·운영 후 성과 검증 • 시군구로 보급 및 확산 지원	• 상위 기관 정책·사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 창출·확산
C 지역	• 성인 진로교육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제시 • 예산 지원(교육비, 운영비 등) •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 강화	• 국가 정책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과제 제시 • 예산 지원(교육비, 운영비 등)	• 지역민·산업체 현황 파악 및 수요조사 • 실제 프로그램 기획·운영

자료: 연구진 작성

2. 성인 진로교육 정책 설계 및 추진 관련 쟁점

가.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방향성

성인 진로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과제는 개념 정립과 범위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은 여전히 직업능력 향상교육과의 경계가 모호하며, 성인의 특성과 생애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성인 진로교육을 단순히 '직업능력 향상'이나 '이직·전직 지원'에 국한할 경우, 학령기 진로교육이 '진학 중심'으로 왜곡되는 문제와 유사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성인 진로교육은 학습-일-삶을 포괄하는 Life-Career 관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

"'진로'에 대한 개념 정립도 필요합니다. 학령기 진로교육이 '진학'에 포커스되어 왜곡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성인 진로교육이 단순히 '이직·전직', '직업능력 향상'과 연계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학습-일-삶을 포괄하는 Life-Career 관점이 성인 진로교육에 필요합니다." (B)

또한 성인 진로교육 논의가 여전히 '직업'이라는 명사적 범주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성인은 이미 일정 수준의 직업 경험을 보유하거나 경력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직무기술 습득보다는 경력 유지·경력전환과 같은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직업 경험이 있거나, 한참 개발하거나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력 유지 내지는 경력전환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C)

"성인의 진로교육 정책과 논의의 출발은 진로교육의 개념이 특정 명사군 '직업'으로서의 논의에서 '인더스트리 변화성을 반영한 행위'로서의 접근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봐요." (D)

직업능력 향상교육과 성인 진로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로개발역량이 상위 개념이고 직업능력 향상은 그 하위 개념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즉, 직업능력 향상은 특정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영역인 반면, 성인 진로개발역량은 자기이해, 경력설계, 상담·진단, 정보 제공, 현장 기반 학습 등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메타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성인 진로개발역량은 성인 전 생애 단계에 걸쳐 그 경력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경력개발 계획이 잘 설계되어 그다음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직업능력 향상 교육이라고

본다면, 좀 더 큰 틀에서 진로개발역량 흐름 안에 일부 직업능력 향상 관련 개입이나 서비스가 포함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C)

"'직업능력 향상 교육'과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의 관계는, 전자가 도메인 역량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훨씬 상위 개념으로 (…) 개념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거나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지자체가 다르게 쓰는 상황인 것 같아요." (D)

특히 성인 진로개발역량의 핵심 요소는 자기이해와 정체성 확립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훈련, 현장 기반 학습 등 구체적 지원 영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정의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성인 진로개발역량에서 핵심은 자기이해, 정체성 확립에 있다고 봐요. 진로 인식은 이미 이루어졌고 (…)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훈련, 현장 기반 학습 등을 포함하여 재정의될 필요가 있어요." (B)

나.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거버넌스

성인 진로교육은 학습-진로-노동시장-복지-지역발전이 교차하는 복합적 의제이므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지역-민간을 아우르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가 요구된다.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에서는 제도 정비와 정책적 조정, 지역 차원에서는 실행과 맞춤화, 민간 차원에서는 산업 수요 반영과 실질적 참여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우선 국가 수준에서는 부처 간 협업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평생교육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이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두 법령 간의 조율과 공동 지점 설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 인정, 민간학습 인증, 4대 보험 포함의 범위 등을 재정비해야 하고, 평생교육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의 목적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되, 공동 지점을 설계해야 합니다." (A)

지역 차원에서는 실행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성인 진로교육은 단순 교육 서비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애진로개발 거버넌스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성인 진로교육은 단순한 교육 서비스 차원을 넘어, 학습-진로-노동시장-복지-지역발전 정책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의제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조정과 기획, 지역 차원에서는 실행과 맞춤화를 핵심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성인 진로교육이 성인 생애진로개발 거버넌스로 확장되어야 지속가능한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

또한 기업과 산업별 협·단체의 참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성인 진로교육은 결국 일과의 연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업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이해당사자로 거버넌스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 단계에서는 일과의 연계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메인 공용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아니지만 기업 또한 이 이해당사자 주체로 같이 포함시켜서 뭔가 하지 않으면 교육은 교육대로, 취업 알선은 취업 알선대로 따로따로 제각기 놀기 때문에 (…) 기업도 엄연히 하나의 이해 주체 당사자로……" (C)

"그들이 자체적으로 국가 예산을 받아서든, 아니면 회원사를 통해서든 직접 운영하는 여러 가지 좋은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있고, 해당 업종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 많은 주체와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날이 좀 더 크게 갖고 있어요." (C)

아울러 대학의 참여 역시 중요한 축으로 제시되었다. 대학은 전통적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을 넘어, 성인 학습자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의 평생교육은 학위 취득 중심의 보상 심리에 치우쳐 있으며, 지역산업 및 성인 학습자의 수요와는 아직 괴리가 크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실질적으로 양질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대안적 역할을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어떤 대학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이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 (C)

> "특히 대학은 전통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과 연계하여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의 인력 수요와 성인 학습자의 학위 취득 요구가 일치하지 않는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B)

따라서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스는 국가-지역-산업-대학 간의 분절을 극복하고, 정책 조정·자원 연계·실행 주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층적 협력 구조로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인프라

성인 진로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평생교육 인프라의 보완과 새로운 자원의 접목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인프라가 성인 진로개발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방식 역시 파편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우선 기존 인프라의 한계를 지적하며 성인 진로개발 관점에서 전면적 재구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기존 평생교육 인프라에는 이 관점이 충분히 내재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인 진로개발 관점에서 전면 필터링할 필요가 있고……." (D)

또한 인프라 확충 방향과 관련하여 신설보다는 기존 자원의 통합과 디지털 기술 접목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 "신설보다는 기존 인프라의 접목, 통합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볼 때, AI 기반 경력설계 툴 도입이 필요하고……." (A)

서비스 제공 주체의 다원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민간과의 협력이 배제된 공공 중심 전달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 "중앙이나 지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민간하고 협력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고……." (C)

대학 인프라 활용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고등교육기관이 학점 인정에 보수적인 특성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성인 학습자가 요구하는 학점 기반 학습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대학에서의 성인 학습자는 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습을 원합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학점 인정에 보수적인 입장이죠." (B)

아울러 실제 운영 측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학습상담·기초

학습 지원 등 제한적인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으며, 진로상담까지 확대하기에는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제기되었다.

> "성인학습자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기초학습 능력(컴퓨터, 글쓰기), 학습법, 학습상담, 1:1 학업 상담 등의 수강신청을 도와주고, 학사제도 안내, 학사지도, 장학금 신청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로상담까지 가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진로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나, 실제 할 수 있는 인력과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B)

전문인력과 관련해서도 단순 자격증 보유를 넘어, 현장 경험과 업종별 전문성이 결합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국가 자격으로는 직업 상담이죠. 직업상담사 자격증인데, 근데 문제는 그거는 최소한의 갖춰야 할 자격인 것이고, (…) 현장에서 다년간의 상담 경력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해당 업종과 관련된 정보들을 모르면 내담자도 다 알거든요." (C)

> "평생교육법으로 지정된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한 관련 과목 중 실천 영역의 선택과목에 '성인학습 및 상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

끝으로, 지원 방식은 단순 강좌 제공이 아니라 학습자 선택권, 유연성, 경험 기반 설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학습의 선택권, 학습의 유연성, 학습자 중심의 설계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로개발역량은 단순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경험과 실습 기반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A)

또한 학습이력 관리 체계는 성인 진로교육 지원의 핵심 인프라로 제시되었다.

> "기존의 평생교육이 보유하고 있는 학습이력 관리,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 등은 데이터 기반의 성인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평생학습계좌제 등 학습 데이터 등과 연계해 학습자들의 진로교육 경험과 성과를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B)

따라서 성인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은 기존 인프라의 재구조화, 민간 협력 확대, AI 기반 툴 도입, 전문인력 양성, 학습이력 데이터 관리 등 다차원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로 정리될 수 있다.

라.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에서의 우선 방향 및 과제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절적 운영을 해소하고, 통합적·체계적 지원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성인 대상 진로교육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고용서비스기관, 대학과 민간훈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이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 "기본적으로는 이게 분절적으로 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대상의 진로교육, 경력개발은 분절적, 파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시간과 자원 모든 것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 또 한편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그만큼 첫 단계에서 이들의 경력설계, 경력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 분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체계적으로 이후 과정들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C)

특히 국가 단위에서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정책적 어젠다 설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 "우선 국가 단위에서 명확한 개념과 정책적 어젠다를 그려내고 실제 성인 진로교육을 지원한 다양한 기관들이 시도와 지자체 중심으로 협력 조정, 분배, 의사결정 구조 등 정책 설계에서의 적극성이 필요하죠." (D)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정책적 단절 역시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양 부처의 제도 목적과 기능은 구분하되, 협력할 수 있는 공동 지점과 연계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개발 정책에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 단절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일 것 같습니다." (A)

정책의 최종 목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고용 연결을 넘어, 개인의 주도성과 삶의 질 향상을 핵심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이 강조되었다.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이 수요자에게 좀 더 실효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기이해, 진로탐색, 목표설정, 추가적인 학습, 취·창업, 계속학습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보와 프로그램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생교육은 더 광범위한 대상(고학력자, 은퇴설계자 등)을 타기팅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학습을 통한 삶의 질 확보,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삶의 역할과 정체성 통합, 지역사회 기여 등의 목표와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B)

또한 진로교육의 패러다임을 고용 중심에서 창직·자기설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현대사회는 '자기 일(self-work)'의 시대이며, 국가는 개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창직(創職)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진로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 설정 및 전환, 삶의 질 향상입니다." (A)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우선 방향은 ① 분절성 해소를 통한 통합적 구조 마련, ② 국가 차원의 개념·어젠다 정립, ③ 부처 간 협력 강화, ④ 개인의 주도성과 삶의 질 중심 패러다임 전환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추진할 때, 성인 진로교육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생애 전환을 지원하는 국가적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성인 진로교육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성인 진로교육 참여 요구를 파악하였으며, 전문가 면담 및 FGI를 통하여 성인 진로교육 관련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 현재 성인 진로교육은 직업능력 향상 교육이나 재취업 훈련과 혼재되어 이해되고 있으나, 이는 성인 진로개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성인 진로교육은 단순히 직업 전환이나 능력 향상에 국한되지 않고, 일과 학습을 포괄하는 삶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령·생애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과 직업역량 강화를, 중장년층은 경력전환과 사회공헌을, 고령층

은 자기실현과 사회적 관계 유지를 중심으로 학습 수요를 보이고 있다. 특히 4050세대의 커리어 전환 요구와 은퇴 준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

셋째, 상담-교육-고용-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별로 개별 프로그램은 존재하나, 상담을 통해 경로를 설계하고 교육 참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한 뒤, 실제 취·창업이나 사회참여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는 여전히 미비하다. 성인 진로교육은 프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종합 서비스 체계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이력 관리 및 진단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성인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경력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인증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력 관리 시스템은 단순 기록 수준에 머물러 있어, 디지털 배지나 평생학습계좌제 등과 연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체계가 미비하다. 평생교육사와 직업상담사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성인 진로교육을 전담할 전문인력 체계는 확립되지 않았다. 성인 진로상담·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섯째, 국가-시도-시군구 간 역할 정립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성인 진로교육은 분절적·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이 부족한 편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진단도구 개발을, 시도 차원에서는 상담 인력 양성과 선도 프로그램 개발을, 시군구 차원에서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분업적·연계적 구조가 요구된다.

일곱째, 민관 협력 및 대학·기업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 성인 진로교

육은 고용·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이 필수적이므로, 기업과 산업별 협·단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다. 이는 성인 학습자의 학위·자격 취득 수요와 노동시장의 전문성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반이 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인 진로교육은 이제 더 이상 시범적·단편적 사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개념 정립-맞춤형 프로그램-통합 지원 체계-전문인력-거버넌스-민관 협력의 다층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인의 생애진로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시장 적응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4장

주요국의 성인 진로교육 정책 동향 분석

제1절 국외 성인 진로개발 지원 정책 동향
제2절 국가별 성인 진로교육 정책 사례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성인 진로교육 정책 동향 분석

제1절 국외 성인 진로개발 지원 정책 동향

과거 진로개발 지원의 주된 원리와 방식은 주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적·미시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국가적·거시적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고용·복지·교육정책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Cedefop, 2008). 즉, 학령기-학령기 이후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성인의 생애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체제 구축이 공공정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가는 진로설계가 어려운 개인에게 적극적인 진로지도(lifelong guidance)를 지원함으로써 교육훈련 및 노동시장 접근성 제고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의 성인 진로개발 지원 체제는 평생학습을 통한 적극적인 고용정책(active labour policy)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사회적 형평성 및 통합을 촉진하는 데 있어 국가의 공공정책과 진로교육의 연계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LO와 ETF(2021)에 따르면, 진로지도 및 상담 등 성인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진로개발 지원은 나이, 성별, 인종에 무관하게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교육훈련, 직업선택 및 전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인의 경력개발 및 관리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학령기 이후 성인의 지속적인 경력관리 지원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및 제도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성인 진로교육은 노동시장에서의 직업 선택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력, 흥미, 적성, 학업적 역량, 지식 및 기술의 발현과 축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며(Bierema, 2024),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 진로교육 정책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모든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ILO & ETF, 2021).

아동기에서 성인기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총체적 관점에서 성인의 생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의 성인 진로교육 주요 정책 영역은 [그림 4-1]에 제시되었다(이지연 외, 2022).

[그림 4-1] 해외의 성인 진로교육 주요 정책 영역



자료: 이지연 외(2022). 국민 역량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평생진로지도안전망 구축 연구: 「교육(훈련)·고용-진로지도(상담)-고용서비스」 연계 중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 83.

진로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및 고용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입과 실천을 의미한다(Hutchinson & Hooley, 2025; OECD, 2004). 특히 경력 상담(career guidance)은 성인이 향후 경력 이행 및 경력 경로의 다음 단계를 설계·결정하는 데 기여하며, 여기에는 직업훈련과 전문성 개발, 취업, 직무 전환, 일과 삶의 균형 관리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다(Bimrose & Barnes, 2008; Hooley, 2014; Whiston, 2021).

진로개발 지원은 성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고, 효과적인 경력 이행을 위해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 경험 및 연결망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면, 성인은 더 나은 임금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의 혜택을 얻게 되고, 고용주는 고용 효율성 향상, 생산성 증가, 인력 이직률 감소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및 기술 부족 완화 등 가시적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Percy & Dodd, 2021).

이러한 맥락에서 Hutchinson과 Hooley(2025)는 다양한 국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 정책 수립 시 주요 과제 및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표 4-1〉 참고).

〈표 4-1〉 성인 진로교육 정책 수립 주요 과제 및 고려사항

주요 과제	고려사항
다차원적 정책 어젠다 설정	• 개인적 차원과 공공적 차원의 선(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지며, 따라서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 • 세부 정책 영역: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형평성, 건강 및 웰빙, 환경적, 공공선 증진 등
부처 간 협력	• 성인 진로교육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는 여러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성인 대상 진로개발 지원 체제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주요 과제	고려사항
	• 세부 전략: 성과 명확화, 접근성 보장, 협력·조정, 품질 보증,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	• 성인 진로교육은 기술 부족이나 경제 구조조정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생학습 및 생애경력상담을 통합하여 개인에게 일관된 발달 경로 제공 •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재직자 대상 보조금 지원을 통한 참여 활성화 및 공공고용서비스와의 연계
중장기적 재원 확보	• 많은 국가에서 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되는 성인 진로교육 정책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원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며, 중장기적 재정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구축

출처: Hutchinson & Hooley(2025)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제2절 국가별 성인 진로교육 정책 사례

이 절에서는 최근 국외의 성인 진로개발 지원 정책과 관련 정책 수립 시 주요 과제 및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7개국을 중심으로 해외 성인 진로교육 정책 사례를 탐색한다.

이 중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통합적 진로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블루프린트(blueprint)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성인 진로관리역량의 목적과 범위 등을 규정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거시적 맥락에서 성인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영역을 도출하는 본 연구의 내용과 부합한다. 한편 유사한 관점에서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은 공통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성인의 경력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한 대표적인 유럽 국가들로, 본 연구는 이들 사례 분석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을 위한 국가 수준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해외 성인 진로교육 정책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OECD(2021)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성인 진로지도 정책 지침, 즉 (1) 거버넌스와 재원, (2) 품질과 성과, (3) 전달방식, (4) 지원범위와 포괄성 등에 기반하여 각 국가의 성인 진로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다.

1. 미국

가. 거버넌스와 재원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협력하에 국가진로개발지침(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진미석·윤형한, 2004). 미국 노동부 고용훈련청(DOL-ETA)의 감독하에 미국직업센터(American Job Centres)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주 및 지역 단위의 고용개발위원회(Workforce Development Board)가 운영을 담당한다. 미국직업센터는 주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공공 및 민간의 고용서비스, 성인기초교육, 직업재활, 노인고용, 대학, 보훈 고용서비스 등 각종 법정 필수 프로그램이 파트너로 참여한다(OECD, 2021). 개별 주(state) 수준에서는 국가진로개발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진로개발 역량 프레임워크 또는 진로지도 모형 개발,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지침 제작 및 진로개발지침 확산을 위한 각종 워크숍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재열 외, 2022; OECD, 2021).

나. 품질과 성과

각 주의 미국직업센터는 해당 주 전역에 걸쳐 성인 진로교육 서비스의 최

소 수준의 품질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OECD, 2021). '고용혁신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Opportunity Act)'은 주 수준의 고용개발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 및 개별 지역 수준의 고용개발위원회와 협의하여 고객 만족도, 접근성, 지속가능성 등 미국직업센터의 통합서비스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OECD, 2021).

미국직업센터 등 성인 진로교육 관련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공통 성과지표에는 성인 진로교육 참여자의 고용률, 중위임금, 자격취득률, 측정 가능한 지식 및 기술 향상 수준, 고용주 서비스 품질 지표 등 총 6가지 항목이 포함된다(OECD, 2021).

다. 전달방식

미국직업센터는 미국 노동부 고용훈련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의 감독하에 모든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개발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일원화하여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미국직업센터는 '고용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년 '고용혁신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ies Act)'에 의해 재인가되었다(OECD, 2021).

미국직업센터는 경력 상담, 직업훈련 연계, 구직 정보 등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원격 지원을 통해 관련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진로상담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실업자 또는 구직자가 주요 서비스 대상이지만, 현재 재직 중인 성인 역시 이용 가능하다.

이처럼 미국직업센터는 다양한 공공 재원을 통해 지원되는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접근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OECD, 2021).

또한 CareerOneStop과 O*NET(직업정보체계)은 미국 노동부가 후원하는 공공 온라인 서비스 지원 도구로서, 성인 진로교육 및 관련 서비스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 정보 인프라이다. 이들 도구는 성인에게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교육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초 데이터 및 자료를 공개한다(OECD, 2021).

라. 지원 범위와 포괄성

미국 국가진로개발협회(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에서 제시한 국가진로개발지침에는 전 국민의 진로교육을 위한 주요 영역으로 (1) 진로개발(career development), (2) 학업 및 평생학습(academic and lifelong learning), (3) 사회적 정서 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 등 3개 영역 및 11개 세부 목표가 포함된다(NCDA, 2020).

또한 진로교육의 대상은 크게 6개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일반 성인과 은퇴자가 성인 진로교육의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서 일반 성인은 학교를 갓 졸업한 자, 실직자 및 구직자, 직업전환자 등이 포함되며, 은퇴자는 재정적 이유나 여유시간 활용 등을 위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이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NCDA, 2024).

2. 영국

가. 거버넌스와 재원

영국은 모든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학습 권리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국가 단위의 진로개발 연구소인 'Careers and Enterprise Company(CEC)'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진로교육 혁신 및 평생 진로개발 실현을 위한 '진로전략(Career Strategy)'을 발표하여 진로교육과 관련된 각종 이해관계자의 협약 및 의무사항을 명문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취기준에 따른 근거 기반(evidence-based) 접근을 통해 진로교육 전달체계에 대한 평가·모니터링을 수행한다(이지연 외, 2019).

또한 영국의 국가경력위원회(National Careers Council)는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경력 서비스 지원 필요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며, 위원회는 기업, 교육, 자원봉사·지역사회, 경력개발 분야에서 선출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다.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재원은 교육기술자금청(Education Skills Funding Agency)에서 조달 및 관리한다(이지연 외, 2019).

나. 품질과 성과

영국에서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성인 진로교육 담당 기관이 국가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진로지도서비스(National Careers Service)와 연계된 관련 기관은 국가 품질보증 체계인 매트릭스 기준(matrix standard)에 규정된 프로그램 운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진로지도서비스 계약 및 자금 집행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보

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품질·성과지표(만족도, 유용성, 추천의향, 향상도 등)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효과 등 성인 진로교육의 성과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OECD, 2021).

또한 영국은 전담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해 진로개발전문가 등록부(Register of Career Development Professionals)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등록부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지원자가 영국 국가자격 프레임워크(Qualifications and Credit Framework)의 6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진로개발 관련 학문적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윤리강령 준수 및 매년 최소 25시간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활동을 수행하고 기록해야 한다(OECD, 2021).

이처럼 영국에서는 진로교육 제공자에 대한 전문기준과 등록을 통해 이들의 전문성을 관리함으로써 성인 진로교육 담당 인력에 대한 공통 품질을 보증한다. 기관 성과 측정을 위한 공통 지표로는 고객만족, 고용·학습 참여, 경력관리역량 향상, 추천의향 등이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다. 전달방식

영국은 양질의 진로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수준의 진로개발 연구소로서 CEC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별 학교 및 성인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UK Government, 2019). CEC는 학교-기업-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학령기 학생부터 대학생, 나아가 성인까지 전 생애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Euroguidance, 2018).

진로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전달방식으로는 국가 진로지도서비스(National Careers Service: NCS)에서 제공하는 진로정보 공공 온라인 웹사이트 및 '모두를 위한 노동시장정보(LMI for All)' 플랫폼 등이 있다(Euroguidance, 2018). NCS는 영국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에서 관리하는 국가 단위의 진로개발 전담기관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기구로서 잡센터 플러스(JobCentrePlus)와 연계하여 노동시장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축적하고, 온라인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평생학습 계정 생성, 직업 포트폴리오 작성,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지연, 권효원, 2021).

특히 NCS에서 제공하는 '기술능력 확인(Skills Health Check)' 기능은 개별 이용자가 희망하는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학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습득 또는 함양해야 할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European Commission, 2019). '모두를 위한 노동시장정보' 플랫폼은 개인 및 진로교육 관련 이해관계자(학교, 기업, 지역 진로센터, 대학교 등)에게 필요한 노동시장정보(labour market information)를 이용자 대상별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게 세분화하여 제공한다(Cedefop, 2018).

라. 지원범위와 포괄성

영국의 성인 진로교육 범위는 국가진로지도서비스를 통한 모든 성인의 보편적 접근 및 취약계층 발굴·지원이라는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다(OECD, 2021). 이 중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공공 서비스는 전 연령 성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경력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접근성 강화를 주요 목적

으로 한다. 반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보장 서비스는 실업자, 저학력자, NEET, 한부모, 고령자 등 다양한 집단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OECD, 2021).

특히 '중년 MOT(mid-life MOT)'는 고령층이 고용·노동, 웰빙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온라인 서비스이다(European Commission, 2019). 이 제도는 50세 이상 개인과 고용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 문제나 돌봄 책임으로 인해 휴직 후 재취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집단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년 MOT는 중장년층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다양한 경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역량 진단, 건강 및 연금 관련 조언 등이 포함된다.

3. 캐나다

가. 거버넌스와 재원

캐나다의 성인 진로교육은 고용서비스 및 성인학습 정책 체계와 연계되어 있으며, 정책 집행은 연방정부 및 주/준주 정부 단위로 분산되어 있다. 고용서비스, 교육훈련 및 성인학습의 제공은 대체로 주/준주 소관이며, 이는 연방정부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partment)'의 재원을 통해 운영된다(OECD, 2022a).

중앙-지방 양자 간 노동시장 협약(bilateral labour market agreements)에 따라 주/준주 단위에서는 지역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집행하며,

민간 제공자의 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책의 확산을 도모한다. 이후 각 주와 준주는 각 지역의 노동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한다. 또한 노동시장장관포럼(Forum of Labour Market Ministers)은 연방정부 및 주/준주 정부를 연계하는 핵심 조정장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노동시장정보위원회(Labour Market Information Council) 및 퓨처 스킬 센터(Future Skills Centre)와의 협력도 병행된다(OECD, 2022a).

나. 품질과 성과

캐나다의 진로개발 실무자를 위한 기준 및 지침은 생애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제시한다. 캐나다의 Standards & Guidelines(S&G)는 국제적으로 가장 처음 개발된 진로교육 분야 역량 프레임워크로,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의 지원과 진로개발 이해관계자 간 협업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S&G는 (1) 진로교육을 하나의 전문 분야로 정의하고, (2) 교육과정 설계의 토대를 제공하며, (3) 대중에게 품질보증을 제공하고, (4)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들의 각종 역량을 인증하며, (5) 진로교육 분야의 공통된 개념과 담론을 형성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OECD, 2022a). S&G에서 정의하는 진로교육 역량은 (1)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 (2) 전문화 역량(specialization competencies), (3) 윤리 원칙(ethical principles)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현재 캐나다의 다섯 개 주에서 S&G와 연계된 전문 자격 인증 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Cedefop, 2016).

또한 캐나다에서는 PRIME 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진로개발 실무자들이 진로교육 참여자 개개인의 고용 이행 및 직업훈련 결과뿐만 아니

라, 직무 적합도의 질, 고용가능성의 점진적 향상 수준, 웰빙, 자신감 및 통찰력, 기회 인식, 미래 설계 및 방향성 등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측면을 아우르는 정보를 수집·관리한다(Cedefop, 2016).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혜자의 취업 여부나 훈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진로개발역량의 수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적·평가함으로써 진로지도 및 상담 서비스의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OECD, 2022a).

다. 전달방식

캐나다의 퓨처 스킬 센터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 성인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설계·검증·평가하는 기관이다. 이 센터는 경력 상담 등 성인 진로교육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교육과정 및 역량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이를 연방 및 주/준주 단위의 각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등 일선 서비스 파트너들과 공유한다(Cedefop, 2016). 이러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근거한 정보 확산의 목적은 국가 수준의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데 있으며, 성공적인 접근 방식 및 교육과정 사례를 다른 주에서 적용하거나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OECD, 2022a).

퀘벡주 등 캐나다 일부 주의 경우, 진로지도상담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 등 관련 분야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이수해야 하며, 이들에게 요구되는 주된 역량은 노동시장 정보의 생산·습득과 노동시장 정보의 통합을 통해 이를 대상별 진로상담에 활용하는 교육전략 개발 등이 포함된다. 적절한 요건을 충족한 진로지도상담사에게는 대학교, 고용 및 재활 서비스 관련 기

관, 기업의 인사·역량개발 부서, 정신건강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OECD, 2022a). 또한 앨버타주에서는 진로교육 관련 자격증 및 학위를 보유한 지원자를 찾는 고용주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앨버타 진로개발협회(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of Alberta)는 교육, 경력, 윤리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자에게 공인 진로개발전문가(Certified Career Development Professional) 자격을 부여한다(Cedefop, 2016).

라. 지원 범위와 포괄성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에 의해 개발된 블루프린트(blueprint) 프레임워크는 성인의 진로관리 역량(career management skills)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교육, 훈련, 고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진로관리 역량을 구체화한다. 또한 각 생애단계(예: 유아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고등교육, 성인기 이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한 진로교육 기대효과를 세분화하여 제시한다(OECD, 2022a). 블루프린트는 (1) 개인 관리(personal management), (2) 학습(learning), (3) 경력(career) 등 3개 영역과 10개 세부역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S&G 실행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희수 외, 2024; OECD, 2022a).

4. 호주

가. 거버넌스와 재원

호주는 연방(Commonwealth) 정부와 6개 주 및 2개 준주가 성인 진로교육의 책임과 권한을 분할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연방정부는 일부 성인·중장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주·준주 단위에서는 각종 고용·교육기관(주 고용서비스, 대학·TAFE 등)을 통해 현장 전달(delivery)을 담당한다(OECD, 2022c).

2019년에 설치된 국가경력연구소(National Careers Institute)는 산업계 및 고용주와 협력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자 등 성인의 역량 강화(upskilling) 및 재교육(reskilling)을 포함한 인력개발 기회와 진로교육의 연계를 담당한다. 이 연구소는 모든 연령을 위한 진로정보 포털(yourcareer.gov.au)을 운영하며, 국가경력연구소 주도의 파트너십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개발, 지원한다. 이 보조금은 고용주, 고등교육기관, 산업계, 정부, 연구자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진로교육의 성과와 교육·훈련 경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을 둔다(OECD, 2022c).

나. 품질과 성과

호주의 신규 고용서비스 시범사업(New Employment Services Trial)은 성인의 고용서비스 개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구직자 맞춤형, 유연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민간 서비

스의 역할 및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성인 개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진로 개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한다(Cedefop, 2023). 이는 기존의 정부 주도 고용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호주의 진로개발 및 지원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상담 및 디지털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OECD, 2021).

이 중 연방정부의 민간위탁 진로교육 모델이자 구직자 고용서비스인 Workforce Australia 서비스 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호주 고용부(Department of Employment)의 품질 원칙(Quality Principles)을 준수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 표준화기구의 일반 품질 기준인 ISO 9001:2015 인증을 받아야 한다(Cedefop, 2023; Langenbucher & Vodopivec, 2022).

다. 전달방식

호주 연방정부는 JobOutlook과 같은 여러 진로 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기반 진로교육 및 지도 전달 도구로, 웹사이트 사용자가 자신의 자격 및 기술, 관심사, 경험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적합한 직업 및 직무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성인 개개인의 진로역량을 분석하여 제공한다(Cedefop, 2023).

또한 국가경력연구소의 디지털 플랫폼(yourcareer.gov.au)은 학습, 훈련, 고용 경로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진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공식 채널이다. 이 플랫폼은 호주 내 광범위한 교육 및 고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관심사, 경험, 학력에 맞추어 잠재적 진로 경로를 매칭하여 제공한다. 또한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향후에는 사용자 스스로 자신의 경력과 진로를 탐색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도구 및 정보가 결합, 도입될 예정이다(OECD, 2022c).

라. 지원범위와 포괄성

호주는 통합적인 국가 진로개발 체계의 확립을 위해 블루프린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성인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 학습을 안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블루프린트의 핵심적인 사항은 성인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탐색하고 파악하는 것으로, 이는 성인의 진로관리역량으로 정의된다(NESA, 2023). 성인의 진로관리역량은 (1) 개인 관리(personal management), (2) 학습 및 직업 탐색(learning and work exploration), (3) 경력 구축(career building) 등 세 가지 영역을 포괄하며, 이는 다시 12개의 세부 경력관리 역량으로 구분된다(이희수 외, 2024).

호주의 성인 진로교육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 역량 점검 프로그램(Skills Checkpoint for Older Workers Program)은 만 45세에서 70세 사이의 고령층이 자신의 경력개발 및 진로설계에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취업 중이지만 소득 지원 제도에 편입될 위험이 있는 사람이나 최근 실업 상태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NESA, 2023).

프로그램 내용에는 경력 평가, 상담가와의 1:1 진로상담, 현재 직무 유지 및 새로운 직업 탐색, 경력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훈련 기회가 포함된다. 또한 호주 전역에 걸친 주요 고용 및 훈련 제공기관인 'VERTO'와 'BUSY At Work'에 의해 운영되며,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맞춤화되어 제공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는 현재 산업환경에서 경력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진로로의 경력전환을 위한 기술 습득 기회를 탐색할 수 있으며, 이는 호주 '교육기술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의 주도하에 추진된다(OECD, 2022c).

5. 독일

가. 거버넌스와 재원

독일의 진로지도 시스템은 모든 시민이 교육, 고용, 실업, 재교육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전 생애에 걸쳐 진로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희수 외, 2024). 국국가 수준의 성인 진로지원은 크게 일반 성인을 위한 직업상담(LBB)와 재직자를 위한 직업상담(LBBiE)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OECD, 2022b).

독일 정부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s)와 생애주기 진로상담 서비스의 연계 및 전국적 확산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성인 진로교육 제공기관과 담당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독일은 2018년 '자격기회개선법(Law on Improvement of Qualifications Opportunities)'을 제정하여 연방고용청(Federal Employment Agency)의 법적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에게도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Cedefop, 2020a). 점차 증가하는 성인의 진로개발 및 상담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공공고용서비스는 (1) 상담 인력의 추가 채용 및 교육, (2) 진로상담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3) 온라인 진로상담 도구 활용 등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다(OECD, 2022b).

나. 품질과 성과

독일의 국가진로지도포럼(National Guidance Forum)은 진로개발 및 상담 분야의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품질 개념(BeKo)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교육·직업·고용 분야의 상담을 위한 품질 기준(BeQu)으로, 이는 상담사와 상담 기관이 서비스의 품질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는 품질 개발 프레임워크(quality development framework)이며, 셋째는 진로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규정한 역량 프로파일(competence profile)이 포함된다(OECD, 2022b).

진로상담 제공자는 품질 개념에서 요구하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자 할 경우, 국가진로상담포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BeQu 품질 라벨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로서 진로교육 제공자는 국가진로상담포럼의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역량 개발 워크숍에 참여해야 한다(OECD, 2022b).

다. 전달방식

독일의 각종 교육기관(학교, 대학, 성인학습 제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진로지도 및 상담은 주(Länder), 지방자치단체, 개별 교육훈련기관의 권한에 기반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성인 진로교육의 세부적인 내용과 범위는 지역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OECD, 2022b). 독일 전역의 16개 주는 각각 상담을 규정하는 지역 대학법(Regional University Laws)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를 통해 각 주의 대학 진로상담 운영이 개별적으로 규제된다(Cedefop, 2020a).

예를 들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th Rhine-Westphalia) 지역에서는 경력개발 상담 프로그램(Guidance for Career Development Programme)을 비롯해 지역 전역에서 운영되는 150여 개의 진로상담 제공기관 현황과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의 성인교육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운영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정부기구와 상공회의소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Cedefop, 2020a). 또한 일부 연방 주에서는 자체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온라인 학습 기회, 행·재정적 지원, 강좌 검색 및 대면상담 기관 정보 등을 제공한다(OECD, 2022b).

민간 부문과의 연계 측면에서, 독일은 2013년 이후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해 기업 역량개발 상담 프로그램(Guidance for Upskilling)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기업 근로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히 훈련된 공공고용서비스 상담가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사내 직업훈련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에게 (1) 인구통계 기반 인력 분석 도구, (2) 훈련 수요 평가, (3) 훈련 제공기관 및 최적의 학습방법 선정, (4) 훈련 성과 추적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 기업의 산업환경 및 훈련 수요를 결합한 역량개발협회(Qualifizierungsverbände)의 주도로 운영되기도 한다(OECD, 2022b).

라. 지원 범위와 포괄성

독일 연방고용청의 생애주기 진로상담 서비스(LBB 및 LBBiE)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독일 내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평생학습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OECD, 2021). 독일은 저학력층을 위한 경력설계 및 학습기회 제공 등 성인 진로교육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며, 이를 위해 민간 부문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사내 진로상담·직업훈련 기획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저학력 근로자의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촉진한다(Cedefop, 2020a).

또한 독일 연방고용청은 구직자나 실업자가 성인 진로교육 참여 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증·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성화 및 알선 바우처(Aktivierungs-und Vermittlungsgutschein)'를 발급한다. 이 과정에서 고용 알선 담당자는 바우처의 목적과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재정 지원 약정을 부여한다. 이후 구직자는 진로상담이나 훈련 과정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바우처를 사용하여 제공 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OECD, 2021).

6. 덴마크

가. 거버넌스와 재원

덴마크의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스는 교육 및 고용 부문에 속한 다중 주체가 분담·연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성인의 경력전환 지원을 담당하며, 공공고용서비스(job centres), 대학, 직업학교, 노조 등 다양한 제공자가 성인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국가 포털인 eVejledning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원격 상담 허브로서, 제공자 간 긴밀한 네트워킹 및 협력을 의무화하여 체계적 연계를 보장한다(Cedefop, 2021).

2017년 '더 나은 교육·일자리 경로(Aftale om bedre veje til uddannelse og job)' 협의를 통해 근로자를 위한 잡센터와 노동조합 주도의 진로상담 등이 성인 진로교육 제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Cedefop, 2021). 특히 덴마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및 조정과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를 강조한다(Cedefop, 2021).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산은 eVejledning과 공공고용서비스 상담에 투입되며, 성인 역량진단

(IKV) 및 학습휴가 제도에는 성인교육훈련 보조금(VEU-godtgørelse) 등 공공 재원과 노사 협약을 통해 조성된 노동조합의 민간 출연금이 공동으로 활용된다(OECD, 2021).

나. 품질과 성과

덴마크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국가 주도의 성인 진로교육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교육·고용 전반에 적용되는 윤리원칙(FUE)과 더불어, 지역의 고등·성인 진로상담센터(Study and Career Guidance Denmark)는 제공자의 규모, 결과, 효과 등을 문서화하고 이용자 참여를 통한 품질개선을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적 품질보증 시스템을 운영한다(OECD, 2021). 또한 국가 원격 진로상담 플랫폼인 eVejledning은 상담사의 직무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필수로 하며, 3개월간의 집중 입문교육, 정기적인 재교육, 이용자의 경험 및 만족도 조사에 근거한 내부 품질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다. 2020년 설치된 EUK(지자체 교육·진로상담 지원조직)는 진로교육 담당자 간의 현장 네트워킹 및 지식 공유를 통해 지역 상담의 전문성과 일관성 제고를 지원한다(Cedefop, 2021).

다. 전달방식

덴마크는 2017년 정부-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간 3자 합의에 따라 국가 주도의 원격 플랫폼인 eVejledning을 성인 진로지도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단일 경로로 지정하여 주체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eVejledning은 덴마크의 교육 및 노동시장 정보를 통합한 국가 포털과 연동되어 이용자의 진로 관련 자기탐색-상담-직업훈련 연계를 지원한다(OECD, 2021).

한편 2018년 이후에는 지역 고등·성인 진로상담센터를 설립하여 학령기 이후 성인의 노동시장 이행 및 고등교육 (재)진입 등 다양한 진로경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성인교육센터(VUC), 직업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은 포괄적인 진로상담을 통해 진로이탈 예방과 경력전환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실업보험조합(A-kasse) 및 노동조합 주도의 진로지도와 지방자치단체 잡센터의 구직자 및 질병급여 수급자 대상 진로상담이 주를 이룬다. 실업보험조합 및 잡센터는 정기 면담을 통한 실업자 상담뿐만 아니라 재직자 대상 경력 상담도 제공하며, 이는 직업훈련과정과도 연계된다(OECD, 2021).

이러한 국가 주도의 원격 진로교육 허브 구축과 지역의 기업 및 교육기관 등을 통한 면대면 방식의 혼합 전달체계는 성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개인형 진로경로 구축을 지원하며, 진로교육 참여 이력은 국가 포털의 통합 정보도구(JobKompasset)와 연동됨으로써 전반적인 진로지원 과정 및 결과의 효율성을 제고한다(Cedefop, 2021).

라. 지원 범위와 포괄성

eVejledning은 전 연령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원격 개인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로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기반 보편적 진로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 또한 덴마크 성인교육센터(Voksenuddannelsescenter)의 기초/일반 성인교육(FVU·AVU·HF/GSK), 직업학교의 직업훈련(adult vocational training), 고등교육기관의 중도 이탈 위기자 대상 특화 상담을 통해 성인의 지속적인 학습 및 경력전환 수요를 포괄한다(OECD, 2021). 실업보험조합과 노동조합은 실업자 및 재직자 모두에게 경력상담을 제공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잡센터는 실업자 및 질병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로지원을 수행한다. 이와 병행하여 이민자를 위한 언어센터 등 취약계층까지 진로교육 정책 및 사업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Cedefop, 2021). 이처럼 덴마크의 성인 진로교육 지원 범위는 국가 주도의 온라인 포털 및 원격상담의 보편성과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조합을 통한 대면 진로상담의 포괄성을 결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희수 외, 2024).

7. 스웨덴

가. 거버넌스와 재원

스웨덴에서 국가 수준의 성인 진로교육은 교육연구부 및 고용부가 소관하며, 지방 교육청(Skolverket)이 학교와 성인교육 전반의 진로교육 및 상담 지침을 제시하고, 학교감독청(Skolinspektionen)이 진로교육 제공기관의 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성인학습 단계의 진로상담을 제공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자율적으로 진로상담 관련 사항을 개별 조직, 운영한다(Cedefop, 2020b).

스웨덴 공공고용서비스(Arbetsförmedlingen)는 구직자 대상 상담 및 직업훈련 연계를 담당하는 핵심 제공자이며, '직업교육을 통한 매칭(Arbetsförmedlingens strategi för matchning till jobb genom utbildning)' 등 성인 진로교육 관련 지역 및 기업 간의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앙 수준에서는 지방 교육청 주관의 '국가 협력포럼(Forumnätverket)'이 교육·고용, 지방자치단체, 대학, 직능단체를 연결하는 조정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지역 수준에서는 '역량 플랫폼(Regionala kompetensplattformar)'이 경제주체 및 교육기관 간 기술공급 안정을 위한 협업을 지원한다(Cedefop, 2020b).

또한 공공 온라인 포털(utbildningsinfo.se, studera.nu)과 공공고용서비

스의 디지털 상담 패키지는 공공기관 주도로 운영되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시스템 유지 및 업데이트, 서비스 전달 및 전담인력의 지속적 역량 개발은 각 중앙행정기관(교육청, 공공고용서비스 등)의 공적 예산으로 집행된다(Cedefop, 2020b).

나. 품질과 성과

스웨덴의 성인 진로교육 품질관리는 교육 및 고용 부문의 품질체계에 내재화되어 있으며, 이는 진로교육-성인교육-직업훈련 간의 긴밀한 연계에 기초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자체의 내부 품질보증과 고등교육청(UHR) 및 고등교육평가청(UKÄ)의 외부 평가가 병행된다(이희수 외, 2024). 고용 부문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가 '국가 진로상담 전략(national strategy for career guidance)'을 통해 진로상담 역량 프레임, 개별 및 집단 상담 방법론, 사후평가를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 및 규정을 명시하며, 상담사 협회(SAGC)의 윤리강령도 현장 규범으로 활용된다(Cedefop, 2020b).

아울러 스웨덴 정부는 2018년 다기관 공동 운영의 디지털 평생진로 플랫폼을 설계하고, 공공고용서비스 품질보증 및 향후 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함으로써 공공 디지털 허브와 현장 진로교육 제공 주체 간 품질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제고하고 있다(Cedefop, 2020b).

다. 전달방식

스웨덴의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은 초·중등교육부터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성인교육(Komvux), 고등교육 및 노동시장 진입 이후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성인의 진로지도 및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하는 데 중점을 둔다(OECD, 202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성인 상담·정보센터(Vägledningscentrum)를 운영하여 다채널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고용서비스는 자가진로설계 도구(Karriärvägledning på egen hand)를 통해 개인 주도의 진로정보 탐색과 진로경로 설계를 지원한다. 이러한 진로교육 이력은 studera.nu 등 공공 온라인 포털과 연계되며, 2019년 이후 공공고용서비스는 Jobtech를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디지털 매칭 및 진로상담 인프라를 확장하였다(Cedefop, 2020b). 이처럼 스웨덴의 대면-원격 병행 진로교육 설계는 성인의 진로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유의미한 방식으로 평가된다(OECD, 2021).

또한 스웨덴은 성인의 진로관리역량(CMS)을 진로 및 직업상담과 교육 전 과정에 적용하며, 지방 교육청의 진로교육 일반지침은 성인 개개인의 정보탐색-분석-의사결정-전환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스웨덴은 유럽연합 가입국 또는 북유럽 국가 간의 진로교육 관련 노하우 및 사례 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성인학습 현장, 지방자치단체 성인상담센터, 공공고용서비스에서 워크숍과 집단상담 등 성인 진로교육 실천모형을 확산하고 있다(Cedefop, 2020b). 이처럼 스웨덴의 성인 진로교육은 교육·고용 등 생애 전 단계에서 지속적 학습과 경력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OECD, 2021).

라. 지원범위와 포괄성

스웨덴의 성인 진로교육은 보편적 권리와 무상 원칙을 전제로 하며, 교육·고용·고등교육·비형식 성인학습(Folkhögskola) 등 성인학습의 모든 영역에 법적 접근성을 부여하는 보편적 체계로 정립되어 있다(Cedefop, 2020b). 스웨덴 '교육법(Skollag 2010: 800)'은 성인교육(Komvux) 학습자에게 필요에 기

초한 진로상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령(Högskoleförordning SFS 1993: 100)' 역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업 및 진로상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지방분권 체계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성인교육 전반의 진로교육 및 상담 제공에 대한 일차적 책무성을 가지며, 공공고용서비스와 전환협의회(transition councils)가 재직자의 경력전환 상담 및 재교육 수당을 지원한다(Cedefop, 2020b). 이러한 구조는 성인의 전 생애 진로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성인학습, 고용, 고등교육 간 횡단적 연계를 강화한다(OECD, 2021).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국외 성인 진로개발 지원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을 중심으로 국가 수준의 성인 진로교육 정책 사례 및 운영 현황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쟁점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 법·제도 정비를 통한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스 재정립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개발, 진로지도 및 상담 등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국가 수준의 프레임워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희수 외(2024)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는 관련 법률·규칙·조례를 명문화함으로써 이를 국가 수준의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스 체계에 활용(예: 국가 차원의 CMS 및 블루프린트 프레임워크 등)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 진로교육 제공 기관 등 각 주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OECD, 2021).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의 정책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앙-지방 간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교육훈련-고용서비스-진로교육 연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즉, 이들 사례와 같이 성인의 생애진로관리 역량 및 세부영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령 및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기존의 평생교육 또는 학령기 진로교육 영역과 구분되는 성인 진로교육의 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나. 품질 및 성과 관리 고도화

성인 진로교육의 품질 및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 기준인 CEDEFOP 및 ELGPN의 품질보증-증거기반(quality-assurance and evidence-based)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투입-과정-산출-성과' 지표를 국가 표준으로 설정하고, 성인 진로교육 참여에 따른 포괄적 성과(이직·전직, 재무적 성과 및 고용 가능성 향상, 지속적 학습 참여, 웰빙, 경력 자기효능감 등)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다(Cedefop, 2023; ELGPN, 2016).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 및 직업훈련기관 등 민간 부문의 다양한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성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인증·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단위 평가기구(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영국의 CEC, 호주의 국가경력연구소, 독일의 국가진로지도포럼 등의 사례와 같이 성인 진로교육 전담기구의 권한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성인 진로교육의 비전 및 목적, 전문

인력 양성 체계, 품질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실행 주체인 성인 진로교육 제공기관은 '성과공시, 참여자 만족도, 교육과정 설계 시 노동시장 정보 활용도, 진로개발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성과 충족 여부' 등 공통 지표를 정책 및 사업 수행에 반영하며, 수행 이후에는 성취지표의 달성 수준을 공개함으로써 성인 진로교육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OECD, 2021).

다. 전달방식 체계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성인 진로교육의 제공방식(면대면, 집단, 온라인 등)을 다양화하고, 생애 단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진로설계 및 탐색의 요구(진학, 취업, 경력 전환, 은퇴 준비 등)를 반영한 경로 연계형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이희수 외, 2024). 특히 호주의 경우, 경력 공백 여성·중장년층 등 특정 집단을 겨냥한 'Mid-Career Checkpoint'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진단-코칭(진로지도 및 상담)-직업훈련 연계-바우처 제공'을 일원화된 전달체계로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OECD, 2022c).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 역시 성인 진로교육 정책 프레임워크 내에서 교육훈련 및 학습, 고용, 복지를 연계하는 통합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성인 진로교육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생애 단계별 진로교육 수요 및 요구 분석, 나아가 진로개발 정보망 확대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플랫폼을 확충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배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역량기

준과 자격체계를 도입하고, 연간 의무 보수교육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격 및 윤리규정, 연 25시간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실적을 충족해야 하며, 호주의 경우 역시 진로교육 관련 자격 및 대학원 과정 설립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전문학위를 확충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성인 진로교육 담당 전문인력의 역량 프레임을 구축하고, 국가 수준의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현장 보수교육을 제도화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역량 기준과 자격체계의 도입·시행은 국가 수준의 진로개발 및 지원 서비스의 일관성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다(OECD, 2022a). 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통의 역량 기준 확립과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개발은 공공 진로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OECD, 2021). 이러한 국제적 정세 및 권고 기준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역시 평생교육사·직업상담사·경력개발전문가를 포괄하는 국가 공인 역량체계와 표준 직무기술서 등을 재설계하고, 성인 진로교육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희수 외, 2024).

라. 데이터 기반 성인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및 포용성 확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경로와 플랫폼을 통해 축적되는 성인 진로지도 및 상담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이를 노동시장 정보와 연계한 '데이터 기반 성인 진로개발 대시보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의 'eVejledning', 영국의 '모두를 위한 노동시장 정보(LMI for All)' 플랫폼(Euroguidance, 2018)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노동시장 정보 활용 여부를 성인 진로교육 제공기관의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함으로써 생애 단계별 진로지도

및 상담의 수요를 다변화하여 제시한다. 동시에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은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체계 구축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성인 진로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OECD, 2021).

제5장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제1절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방향
제2절 성인 진로교육 정책 과제 도출
제3절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전략

제5장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제1절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방향

1.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와 산업 전환의 가속화, 인구구조의 역동적 변화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며, 과거의 고정적이고 선형적인 진로 경로를 소멸시키고 있다. 특히 기대 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직업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은 성인들에게 평생에 걸친 역량 개발과 진로 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의 진로개발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과 책임만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성인의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개발 지원의 방향성 또한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고정적인 직업세계를 전제로 일자리와 직업훈련 매칭에 초점을 두고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구조였다면, 현 시대의 진로개발은 직

업 선택을 넘어 학습과 일, 여가 등 삶의 다면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관점의 진로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성인 진로교육 정책은 평생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로개발 과정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진로 성공을 지향하며, 개인의 삶의 질과 일 만족을 중시하는 가치 중심의 접근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성인에게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5-1〉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추진 배경

구분	주요 내용	주요 키워드
① 노동시장의 변화	• 급격한 산업 전환 • 기대수명 증가 vs 직업수명 단축 • 고정적·선형적 진로 경로 소멸 • 불확실성과 비선형성 증가	• 직업의 구조적 변화 • 역량 개발 필수화 • 국가의 전략적 개입 요구
② 교육-고용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과거) 일자리-직업훈련 매칭,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 (현재) 학습과 일 등 삶의 통합적 설계 • 지속가능한 진로와 삶의 질 중심 접근	• 가치 중심 접근 • 진로개발역량 지원 • 학습 기회 보편화 요구
③ 정책 구조의 분절, 개별 지원의 한계	• 교육부(평생교육)-고용부(직업훈련) 간 분절 • 파편화된 교육·훈련, 지원 사각지대 발생 • 분절적·획일적 지원 → 복합적·통합적 지원	• 통합 체계 필요 • 수요자 중심의 복합적 지원 요구
④ 사회 안전망 역할 대두	•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 일과 학습 기회의 평등 보장 • 직업 선택의 자유, 평생학습 기본권의 실현 • 개인 책임 → 국가 책무성 강화	• 보편적 지원 • 사회 필수 인프라

자료: 연구진 작성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 진로개발 지원 정책은 교육부의 평생교육과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으로 정책 구도가 분절되어 있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성인의 교육과 훈련을 파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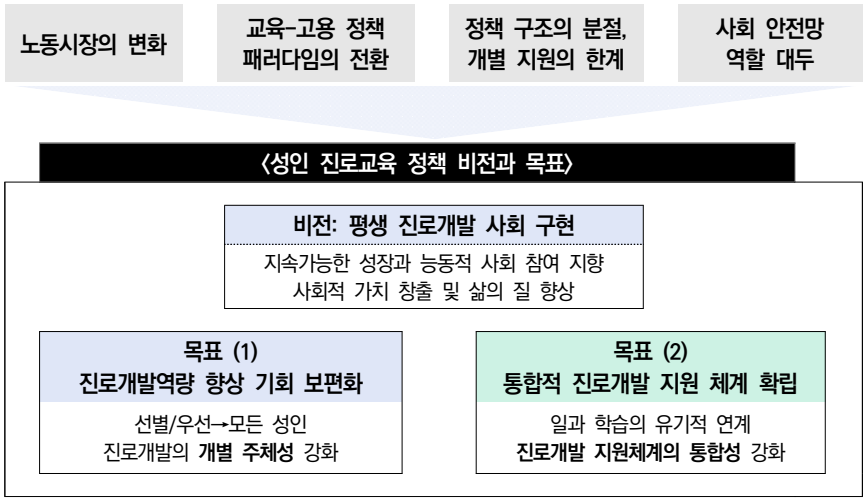
하거나 지원의 사각지대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의 진로개발은 연령, 경제활동 상태, 학습 및 일 경험 등 개인의 다양한 삶의 맥락에 따라 복잡하게 전개되지만, 기존 제도는 획일적인 지원 제공에 머물러 복합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학습과 일, 삶 안에서의 진로개발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국외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가의 성인 진로개발 지원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국민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생학습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돕는 기본권적 지원으로 바라본다. 이는 국가 차원의 진로개발 지원이 단순한 일자리 매칭을 넘어 개인의 주체적인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접근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진로개발 지원을 인재양성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성인 진로교육 정책은 국가의 인재양성 및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도구이자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2. 성인 진로교육 정책 비전 및 목표

앞서 문헌분석과 사례조사, 관계자 면담,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비전으로 일자리 중심의 접근을 넘어 성인이 평생에 걸쳐 진로를 관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능동적 사회 참여를 실현하는 평생 진로개발 사회의 구현을 제안한다. 이는 모든 성인이 개인의 주체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5-1]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추진 방향(안)



자료: 연구진 작성

첫째,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 기회의 보편화이다. 이는 모든 성인에게 진로개발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진로 탐색, 설계, 실행, 적응, 성찰의 과정을 반복하며, 각 생애 단계와 전환기에서 진로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령, 성별, 지역,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성인이 접근 가능한 진로교육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일과 학습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적 진로개발 지원 체계의 확립이다. 최근 평생교육,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각 정책 영역에서 진로개발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관련 정책과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각기 다른 법적 근거와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어, 정책 간 교차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연계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연계하는 수준을 넘어 성인의 진로개발 관점에서 학습과 일, 그리고 여가 등의 삶이 실질적으로 상호 연계되도록 관련 공공정책 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제2절 성인 진로교육 정책 과제 도출

1. 델파이 조사 개요

문헌분석 및 지역 관계자·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 및 과제 초안을 구성하였다. 조사 내용은 1) 성인 진로교육 개념(안), 2) 성인 진로교육 정책 비전 및 목표(안), 3) 성인 진로교육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안)로 구성하였다. 1차 조사 문항에서는 각 영역별 타당성과 수정·보완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2차 조사 문항에서는 1차 수정안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각 추진과제의 시급도와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조사지는 구조화된 폐쇄형 문항과 개방형 의견 조사를 병행하여 구성하였다.

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델파이 조사는 연구진이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 및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전문가 패널이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5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각 내용에 대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1점)부터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5점)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자유롭게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분석은 전체 응답에 대한 표준편차, 긍정률, 내용타당도(CVR), 합의도, 수렴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표준편차는 전체 응답자(20명)의 응답값에서 산출한 것으로 '0.800' 이하인 경우 채택하였다. 둘째, 긍정률은 전체 응답자(20명) 중 '매우 타당' 또는 '타당'이라고 응답한 패널 수의 비율로, 기준치 '80%' 이상인 경우 채택하였다. 셋째, 내용타당도(CVR)는 Lawshe(1975)가 제시한 공식에 따라 20명 이상의 패널 규모를 고려하여 '0.42' 이상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넷째, 합의도는 전체 응답자(20명)의 의견이 합의된 정도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높은 것으로 해석하는데 '0.75' 이상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다섯째, 수렴도는 전체 응답자(20명)의 의견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0.50' 이하인 경우를 채택하였다.

가. 성인 진로교육 정책 비전 및 목표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과 정책 범위에 대해서는 각각 90.0%의 긍정적 의견이 확인되었으며, 성인의 특성에 맞는 어휘 활용, 정책 총괄 주체의 명확화 등 일부 표현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어 이를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성인 진로교육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긍정률이 75.0%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역시 기준값에 미치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수정 및 보완 의견으로는 정책 비전에서 '학령기 이후'라는 표현 삭제, 대상인 성인의 특성 고려와 관련한 '성장' 표현 삭제, 참여보다는 능동적 개념의 '주체적 진로개발' 등의 표현으로 변경 등의 의견이 확인되어 이를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성인 진로교육 정책 목표 중 첫 번째 목표는 긍정률이 80.0%로 나타났으며,

의미 전달을 위한 일부 표현 관련 수정 의견이 존재하여 이를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두 번째 목표는 긍정률이 70.0%로 나타났으며, 타당도 역시 0.40으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정·보완 의견으로는 '순환형'이라는 표현의 의미 전달에 제한이 있어 지속가능성과 유연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 이를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표 5-2〉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성인 진로교육 개념, 정책 비전 및 목표

구분	1차 결과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긍정률	CVR	합의도	수렴도
성인 진로교육 개념	4.20	0.60	4.0	90.0	0.80	0.75	0.50
성인 진로교육 정책	4.10	0.70	4.0	90.0	0.80	0.94	0.13
성인 진로교육 정책 비전	4.05	**0.86**	4.0	**75.0**	0.50	**0.69**	**0.63**
성인 진로교육 정책 목표 1	3.90	0.70	4.0	80.0	0.60	1.00	0.00
성인 진로교육 정책 목표 2	3.70	0.64	4.0	**70.0**	**0.40**	0.75	0.50

주) 기준값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볼드체로 표기함.

나.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는 ①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②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관리 체계 확립, ③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고도화, ④ 포용적 지원 강화 등 4개 영역과 관련 추진 과제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영역인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의 첫 번째 추진 과제인 '성인 진로교육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긍정률은 85.0%로 약간 높았으며, 추진 내용상 일부 수정 및 보완 의견이 있어 이를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두 번째 추진 과제인 '범정부 통합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

스 구축'에 대한 긍정률은 70.0%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타당도, 합의도, 수렴도 등에서도 기준값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정 및 보완 의견으로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운영 등의 추진 가능성과 효용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 운영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의견이 나타나 이를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세 번째 추진 과제인 '성인 진로교육 재원 모델 마련'에 대한 긍정률은 9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추진 내용상 일부 수정 및 보완 의견이 있어 이를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② 영역인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관리 체계 확립'의 첫 번째 추진 과제인 '국가 성인 진로교육 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긍정률은 80.0%로 나타났으며, 추진 내용상 '표준화' 등 규정화된 틀의 도입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두 번째 추진 과제인 '성인 진로교육 운영 체계 확립'에 대한 긍정률 역시 80.0%로 나타났으며, 일부 표현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의견이 제시되어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세 번째 추진 과제인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대한 긍정률은 85.0%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표준편차만 기준값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정 의견으로는 추진 내용상 규정화된 틀의 도입을 제시하는 방안이 부적합하다는 의견, 기존 자격체계와의 연계 명시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네 번째 추진 과제인 '성인 진로교육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긍정률은 80.0%로 나타났으며, 이 과제 역시 표준편차만 기준값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정 의견으로는 '평가 및 모니터링'보다는 '품질 관리'의 접근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량 성과 중심의 지표 예시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타났으며, 이를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③ 영역인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고도화'의 첫 번째 추진 과제인 '온라인 기반의 성인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긍정률은 75.0%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등이 기준값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수정 의견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통합하는 형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타났고, 성인 맞춤형 어휘 활용,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 역시 플랫폼에서 함께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 등의 의견이 있어 이를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두 번째 추진 과제인 '지역 기반 맞춤형 성인 진로교육 모델 구축'에 대한 긍정률은 9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내용 수정 등의 의견이 있어 이를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세 번째 추진 과제인 '개인 주도 진로교육(학습) 기반 마련'에 대한 긍정률은 75.0%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등이 기준값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수정 의견으로 이 추진 과제가 ③ 영역보다는 ④ 영역(포용적 지원 강화)과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기타 표현 변경의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네 번째 추진 과제인 '사회파트너 진로교육 책무 강화'에 대한 긍정률은 85.0%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표현 수정 및 의무제도 도입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④ 영역인 '포용적 지원 강화'의 첫 번째 추진 과제인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한 접근성 강화'에 대한 긍정률은 9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성인의 개별성에 기초한 접근성 강화 등의 내용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어 이를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두 번째 추진 과제인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맞춤형 성인 진로교육 강화'에 대한 긍정률은 85.0%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사전에 선정하여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우선 지원 대상의 발굴부터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세 번째 추진 과제인 '성인 진로 경로 인식 확장 및 우수 모델 확산'에 대한 긍정률은 9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표현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어 이를 2차 델파이 조사에 반영하였다.

〈표 5-3〉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구분		1차 결과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긍정률	CVR	합의도	수렴도
(1)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1)-1	4.40	**0.97**	5.0	85.0	0.70	0.80	0.50
	(1)-2	3.80	**1.12**	4.0	**70.0**	**0.40**	**0.50**	**1.00**
	(1)-3	4.30	0.78	4.0	90.0	0.80	0.75	0.50
(2)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관리 체계 확립	(2)-1	4.05	**0.80**	4.0	80.0	0.60	0.75	0.50
	(2)-2	4.00	0.63	4.0	80.0	0.60	1.00	0.00
	(2)-3	4.30	**1.00**	5.0	85.0	0.70	0.80	0.50
	(2)-4	4.15	**1.11**	4.5	80.0	0.60	0.78	0.50
(3)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고도화	(3)-1	4.00	**0.95**	4.0	**75.0**	0.50	**0.69**	**0.63**
	(3)-2	4.30	0.78	4.0	90.0	0.80	0.75	0.50
	(3)-3	4.05	**0.86**	4.0	**75.0**	0.50	**0.69**	**0.63**
	(3)-4	4.15	0.65	4.0	85.0	0.70	0.75	0.50
(4) 포용적 지원 강화	(4)-1	4.40	**0.80**	5.0	90.0	0.80	0.80	0.50
	(4)-2	4.40	0.73	5.0	85.0	0.70	0.80	0.50
	(4)-3	4.25	0.62	4.0	90.0	0.80	0.75	0.50

주) 기준값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볼드체로 표기함.

3.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대한 연구진 검토를 통해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과 정책 비전 및 목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수정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정한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과 정책 범위, 정책 비전 및 목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패널이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가. 성인 진로교육 정책 비전 및 목표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과 정책 범위에 대해서는 각각 100.0%의 긍정적 의견이 확인되었으며, 중복 문구 등 일부 표현에 대한 수정 의견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도 긍정률이 각각 10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5-4〉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성인 진로교육 개념, 정책 비전 및 목표

구분	1차 결과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긍정률	CVR	합의도	수렴도
성인 진로교육 개념	4.60	0.49	5	100.0	1.00	0.80	0.5
성인 진로교육 정책	4.40	0.49	4	100.0	1.00	0.75	0.5
성인 진로교육 정책 비전	4.50	0.50	4.5	100.0	1.00	0.78	0.50
성인 진로교육 정책 목표 1	4.40	0.49	4	100.0	1.00	0.75	0.50
성인 진로교육 정책 목표 2	4.50	0.50	4.5	100.0	1.00	0.78	0.50

나.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① 영역인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의 첫 번째 추진 과제인 '성인 진로교육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긍정률은 100.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추진 과제인 '범정부 통합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긍정률은 95.0%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추진 과제인 '성인 진로교육 재원 확보 안정화'에 대한 긍정률은 100.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표현 명확화에 대한 보완 의견이 있어 이를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② 영역인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확립'의 첫 번째 추진 과제인 '성인 대상 국가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긍정률은 100.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추진 과제인 '성인 진로교육 전달체계 정립'에 대한 긍정률 역시 10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추진 과제인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대한 긍정률은 95.0%로 높게 나타났으나, 표준편차만 기준값에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인 수정 의견으로는 기존의 관련 자격 등 양성체계가 일부 마련되어 있어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에서는 전문인력의 역량 체계를 기반으로 기존 관련 인력 양성 및 자격 제도 등을 통합·개선하는 방안임을 명확히 하였다. 네 번째 추진 과제인 '성인 진로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긍정률은 95.0%로 높게 나타났다.

③ 영역인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영역명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반이 구축된 후에 추진될 필요가 있는 '고도화'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아 '마련'으로 변경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이 영역의 첫 번째 추진 과제인 '성인 진로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한 긍정률은 10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추진 과제인 '지역 기반 성인 진로교육 운영 모델 발굴'에 대한 긍정률은 95.0%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 번째

추진 과제인 '사회 파트너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일터 기반 진로교육 지원'에 대한 긍정률은 9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들 두 과제에 대해서는 표현 명확화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④ 영역인 '포용적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의 첫 번째 추진 과제인 '개인 주도 진로교육(학습) 기반 마련'에 대한 긍정률은 95.0%로 높게 나타났으며, 표현 및 주체에 맞는 어휘 등의 보완 의견이 있어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두 번째 추진 과제인 '모든 성인의 진로교육 접근성 및 개별성 강화'에 대한 긍정률은 100.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세 번째 추진 과제인 '우선 지원 대상 발굴 및 선제적 지원 체계 강화'와 마지막 추진 과제인 '성인 진로 경로의 다각화 모델 발굴 및 확산'에 대한 긍정률도 10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5-5〉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구분		1차 결과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긍정률	CVR	합의도	수렴도
(1)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1)-1	4.85	0.36	5	100.0	1.00	1.00	0.00
	(1)-2	4.45	0.59	4.5	95.0	0.90	0.78	0.50
	(1)-3	4.60	0.49	5	100.0	1.00	0.80	0.50
(2)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확립	(2)-1	4.55	0.50	5	100.0	1.00	0.80	0.50
	(2)-2	4.50	0.50	4.5	100.0	1.00	0.78	0.50
	(2)-3	4.45	**0.92**	5	95.0	0.90	0.80	0.50
	(2)-4	4.55	0.59	5	95.0	0.90	0.80	0.50
(3)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고도화	(3)-1	4.45	0.50	4	100.0	1.00	0.75	0.50
	(3)-2	4.60	0.58	5	95.0	0.90	0.80	0.50
	(3)-3	4.35	0.65	4	90.0	0.80	0.75	0.50
(4) 포용적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	(4)-1	4.40	0.58	4	95.0	0.90	0.75	0.50
	(4)-2	4.65	0.48	5	100.0	1.00	0.80	0.50
	(4)-3	4.65	0.48	5	100.0	1.00	0.80	0.50
	(4)-4	4.60	0.49	5	100.0	1.00	0.80	0.50

주) 기준값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볼드체로 표기함.

4.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도

가.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별 중요도 및 시급도 분석 결과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각 추진 과제의 중요도와 시급도를 확인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한 중요도 인식 조사 결과, 전체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균은 4.24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추진 과제는 '성인 진로교육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4.65)'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범정부 통합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성인 진로교육 재원 확보 안정화'가 4.60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한 시급도 인식 조사 결과, 전체 과제에 대한 시급도 평균은 3.92로, 중요도(4.24)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다. 시급도가 가장 높은 추진 과제는 '성인 진로교육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과 '성인 진로교육 재원 확보 안정화'로 나타났으며(각각 4.40), 다음으로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와 '모든 성인의 진로교육 접근성 강화'가 4.2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5-6〉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중요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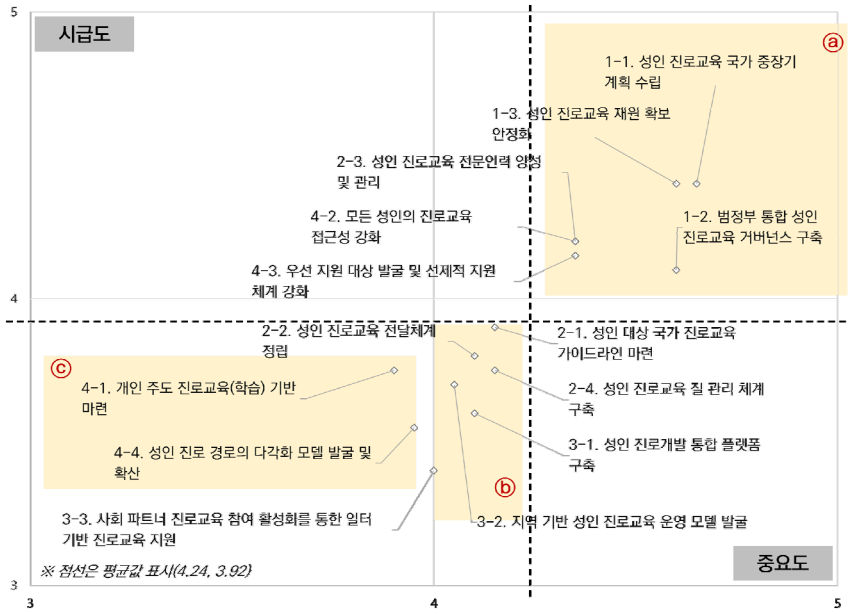
구분	내용(안)	중요도			시급도		
		순위	평균	표준편차	순위	평균	표준편차
(1)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1-1. 성인 진로교육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	1	4.65	0.48	1	4.40	0.73
	1-2. 범정부 통합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	2	4.60	0.49	6	4.10	0.77
	1-3. 성인 진로교육 재원 확보 안정화	2	4.60	0.49	1	4.40	0.66

구분	내용(안)	중요도			시급도		
		순위	평균	표준편차	순위	평균	표준편차
(2)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확립	2-1. 성인 대상 국가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7	4.15	0.65	7	3.90	0.89
	2-2. 성인 진로교육 전달체계 정립	9	4.10	0.77	8	3.80	1.03
	2-3.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4	4.35	0.91	3	4.20	0.81
	2-4. 성인 진로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	7	4.15	0.65	9	3.75	0.70
(3)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고도화	3-1. 성인 진로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	9	4.10	0.70	12	3.60	1.02
	3-2. 지역 기반 성인 진로교육 운영 모델 발굴	11	4.05	0.67	11	3.70	0.71
	3-3. 사회 파트너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일터 기반 진로교육 지원	12	4.00	0.63	14	3.40	0.73
(4) 포용적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	4-1. 개인 주도 진로교육(학습) 기반 마련	14	3.90	0.62	9	3.75	0.83
	4-2. 모든 성인의 진로교육 접근성 강화	4	4.35	0.73	3	4.20	0.81
	4-3. 우선 지원 대상 발굴 및 선제적 지원 체계 강화	4	4.35	0.65	5	4.15	0.79
	4-4. 성인 진로 경로의 다각화 모델 발굴 및 확산	13	3.95	0.80	13	3.55	0.86
전체		-	4.24	0.71	-	3.92	0.87

나.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별 중요도와 시급도 비교 분석

중요도와 시급도 비교 분석 결과, 추진 과제들은 대체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첫째, 중요도와 시급도가 모두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과제들(ⓐ)은 총 6개 과제로 나타났다. 앞서 1영역(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의 3개 추진 과제는 모두 여기에 포함되었으며, 이 밖에도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모든 성인의 진로교육 접근성 강화', '우선 지원 대상 발굴 및 선제적 지원 체계 강화'가 ⓐ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중요도 및 시급도 조사 결과



둘째, 중요도와 시급도가 모두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중요도 평균이 4.00을 상회하는 과제들(ⓑ)은 총 6개로 나타났다. 이들은 ⓐ 영역의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시급도는 낮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과제들로, '성인 대상 국가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성인 진로교육 전달체계 정립', '성인 진로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 '성인 진로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 '지역 기반 성인 진로교육 모델 발굴', '사회 파트너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일터 기반 진로교육'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요도와 시급도가 모두 전체 평균 및 각각 4.0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과제들(ⓒ)은 총 2개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른 추진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와 시급도를 보이는 과제로, '개인 주도 진로교육(학습) 기반 마련', '성인 진로 경로의 다각화 모델 발굴 및 확산'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들의 중요도와 시급도는 모두 3.50 이상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최종안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연구진이 검토한 후, 최종 수정된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비전 및 목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5-7〉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 최종안

성인 진로교육 정책 비전
• 모든 성인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주체적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

성인 진로교육 정책 목표
• (1)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향상 기회 보장 • (2)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성인 진로교육 체계 구축

추진 영역	세부 추진 과제
(1)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 1-1. 성인 진로교육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
	• 1-2. 범정부 통합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
	• 1-3. 성인 진로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
(2)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확립	• 2-1. 성인 대상 국가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 2-2. 성인 진로교육 전달체계 정립
	• 2-3.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2-4. 성인 진로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
(3)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마련**	• 3-1. 성인 진로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
	• 3-2. 지역 기반 성인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
	• 3-3. 사회 파트너 참여를 통한 일터 기반 **진로교육 지원 활성화**
(4) 포용적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	• 4-1. 개인 주도 **진로교육 지원 체계** 마련
	• 4-2. 모든 성인의 진로교육 접근성 및 개별성 강화
	• 4-3. 우선 지원 대상 발굴 및 선제적 지원 체계 강화
	• 4-4. 성인 진로 경로의 다각화 모델 발굴 및 확산

주) 밑줄 및 볼드로 제시된 내용은 델파이 패널들의 의견 및 연구진 검토를 통해 수정된 내용임.

제3절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전략

1.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로드맵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을 단계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인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분절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후 표준화된 지원 체계를 통해 품질을 제고하며, 최종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지원 모델을 통해 정책 비전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단기적으로는 성인 진로개발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재정 기반 마련을 통해 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확립하고, 모든 성인의 진로교육 접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급성이 높은 취약계층 및 우선 지원 대상을 발굴한다. 또한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정책의 실질적인 초기 효과를 창출하고 형평성을 제고한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단기 단계에서 마련한 기반을 활용하여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 전달체계 정립, 질 관리 체계 구축 등 성인 진로교육 지원 시스템의 핵심 구조를 정립한다. 이와 함께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지역과 일터 기반 맞춤형 모델 개발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의 내실을 기하며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거버넌스와 재원,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전달체계의 안정화를 기반으로 성인이 주체적으로 진로를 설계·관리할 수 있는 진로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로 경로 다각화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지속가능한 진로개발의 토대를 완성한다.

〈표 5-8〉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로드맵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핵심 목표	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토대 확립	⇨	정책 운영의 핵심 구조 정립 및 안정화	⇨	주도적 진로개발 생태계 구축
주요 과제	(1)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2-3.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4-2. 모든 성인의 진로교육 접근성 및 개별성 강화 4-3. 우선 지원 대상 발굴 및 선제적 지원 체계 강화		2-1. 성인 대상 국가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2-2. 성인 진로교육 전달체계 정립 2-4. 성인 진로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 3-1. 성인 진로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 3-2. 지역 기반 성인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 3-3. 사회 파트너 참여를 통한 일터 기반 진로교육 지원 활성화		4-1. 개인 주도 진로교육 지원 체계 마련 4-4. 성인 진로 경로의 다각화 모델 발굴 및 확산
기대 효과	정책 추진 기반 확보 초기 실질적 효과 창출		전문성 및 질 관리 강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정책 의존도 감소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자료: 연구진 작성

2. 성인 진로교육 정책 과제별 추진 방안[10)]

가.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1) 성인 진로교육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

‘성인 진로교육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현행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은 교육부(「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진로교육법」)와 고용노동부(「고용정책 기본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그 소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 등 유사 개념이 법

10)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정된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세부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과제별 추진 방안을 도출함.

령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사 개념의 혼용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성인 진로교육 관할 부처의 양립으로 인해 부처 간 권한 배분 및 정책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비록 「평생교육법」[11]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전담기관, 예산, 전문인력 배치 등 구체적 실행 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법적 지위가 더욱 취약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비교적 최근인 2023년 신설된 조항으로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근거가 미비하며, 「진로교육법」의 경우에도 초·중·고 및 대학생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등 진로교육 수혜자로서 성인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있다. 이처럼 부처 간 역할 중복 및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진로정보 및 상담(커리어넷, 워크넷 등)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 주체의 역할과 기능이 포함된 전달체계 역시 산재되어 있으며, 그 결과 성인을 위한 보편적 진로개발 지원에 대한 논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등 성인의 평생 진로개발 보장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과 정책 입안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23년에 발표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교육부, 2022b) 및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교육부, 2023b)에서는 성인 진로교육의 범위를 진로설계 및 학습상담 등으로 다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 수혜자의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다음 '제6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2029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11) 구체적인 법조문은 〈표 2-14〉를 참고함.

에서는 진로교육을 전 생애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나아가 부처 간 관할 법령 간의 유사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진로교육법」이 진로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진로교육법」에 학령기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의 범위와 대상, 내용을 포괄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정책 수혜자, 즉 대학 졸업 이후 성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전담기관 설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세부적인 조항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2) 범정부 통합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

성인 진로교육은 여러 정부 부처 및 사업 수행기관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 진로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등 양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부처 소관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성인의 진로개발 관련 정보 및 상담 시스템을 연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재직자 등 성인의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참여의 사전 단계로서 생애 진로설계 과정 등의 이수에 대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진로교육↔평생학습·직업훈련' 간의 순환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독립적인 「평생진로개발지원법(가칭)」 제정을 검토하여**, 성인 개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을 통합·지원할 법적 기반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평생진로개발지원법(가칭)」 등 법령 신설에 따른 부처 공동 집행기구를 통

한 관련 제도의 일원화도 요구된다. 국가교육위원회 내 주요 의제 상정 등을 통해 평생 진로개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 및 부처 간 합의를 위한 담론이 형성되어야 하며, 평생 진로개발의 관점에서 국가 인재양성 정책을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성인 진로개발 협의회를 운영하며, 성인 진로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 의견 수렴, 전달체계 확립 및 의사결정 참여 구조 개선 등의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3) 성인 진로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은 성인 개개인의 역량개발과 고용정책을 견인하는 공공 인프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및 유럽 등 각국에서는 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 간의 연계, 중앙 및 지자체 수준에서의 재원 다양화,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재원 확보를 통한 정책 품질 보장 및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체계 구축을 마련한다는 성인 진로교육 정책 지침(OECD, 2021)과도 부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인 진로교육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및 AI 전환, 녹색전환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통적인 학력 보완 중심의 평생학습을 넘어, 일-학습-삶을 연계하는 핵심 기제이자 평생 진로개발의 선행요소로서 성인 진로교육의 정책적 범위를 확장하여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인 진로교육의 공공성 및 사회적 편익 등에 대한 거시적 담론 형성과 정착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민간의 성인 진로교육 참여 제고 및 이를 통한 재원 다양화를 위해

서는 대학 및 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진로설계 및 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내일카드배움제, 학점은행제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진로교육 바우처 제도(가칭)' 등을 새롭게 개발하는 등 민관 협력 기반의 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되, 비용은 정부와 개인이 분담하는 등 재원 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재정적 안정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

나.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확립

성인 진로교육을 국가 평생 진로개발체계의 핵심 영역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운영 기준·전문화·품질 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성인 진로교육은 기관별로 상이한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 품질, 전문인력 수준의 차이로 인해 서비스 편차가 크고 연계성 또한 낮은 실정이다. 아울러 성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기존 방식은 생애 단계별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인력도 자격 기준과 경력 경로가 불명확하여 지속적인 역량 축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운영 기준 정비, 국가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진로교육 전달체계 정립,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진로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국가-광역-기초 수준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운영 및 질 관리 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인 대상 국가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성인 대상 국가 진로교육 가이드라인은 성인을 단일 집단으로 보지 않고,

청년기·중장년기·고령기 등 생애 및 경력전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진로개발역량 체계를 재정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교육·고용서비스를 통합한 성인 특화 표준 운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간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탐색, 경력경로 설계, 재직·이직·전직 지원 등 주요 영역별로 대상군 특성에 기반한 세분화된 프로세스와 운영 요소를 제시하여 현장의 실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프로그램 인증제, 성과평가 지표, 전문인력 기준 등 국가 수준의 성인 진로교육 품질보증 체계를 구성하는 상위 표준 문서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성인 진로교육 전달체계 정립

성인 진로교육 전달체계는 성인이 여러 기관을 반복적으로 탐색해야 하는 기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광역–기초–현장 수준의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달체계가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어 성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기존의 다양한 진로·고용·평생학습 자원을 연계·통합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하다.

이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는 정책 기준, 표준 운영 모델, 품질관리 및 데이터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광역 단위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확산과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기초 및 현장 단위는 성인의 생애·경력 상황에 기반한 상담·교육·고용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핵심 실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 구조는 기관 중심이 아니라 기능 중심의 전달체계 로드맵으로 설계함으로써 성인 학습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성인 진로교육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격 중심의 현행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통합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성인 대상 진로지원은 성인학습 이해, 상담 및 코칭, 노동시장 분석, 경력전환 지원 등 복합적인 전문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평생교육사·직업상담사·커리어코치 등 다양한 자격체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직무 정체성과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수준의 성인 진로교육 전문역량 프레임워크(ACCF)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구성된 역량 기반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사 및 직업상담사 보수교육 내에 성인 진로·경력설계 관련 모듈을 편성하고, 지역 기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존 자격체계와 연계된 전문직 경력경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성인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4) 성인 진로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

성인 진로교육의 효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과평가를 넘어, 품질보증(QA)에 기반한 국가 수준의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만족도·참여율 중심의 평가 방식은 성인 진로교육의 실제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성인의 진로전환 실행, 고용·경력 안정성, 학습 지속성 등 보다 다양한 결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성인 특성을 반영한 정량·정성 성과지표(KPI)를 개발하고, 평생교육·고용·지역학습 데이터를 연계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단순히 기관 진단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별 시행계획과 정책지원, 기관 컨설팅, 우수기관 인증제 등과 연계하여 평가-환류-지원이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질 관리 체계는 성인 진로교육의 운영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품질보증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종합하면, 성인 진로교육의 운영 및 질 관리 체계는 국가 가이드라인, 전달체계, 전문인력, 품질관리가 연계되는 품질보증 중심의 선순환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의 생애단계와 경력전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가-광역-기초-현장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존의 분절된 자원을 연계·통합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역량 기반 전문인력 체계와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환류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성인 진로교육의 운영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질 때, 성인 진로교육은 단기적 직업훈련을 넘어 개인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국가 평생 진로개발체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다.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마련

성인 진로교육의 전달체계는 공급자·기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성인의 생애단계와 경력전환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성인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청년기·중장년기·고령기 등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로 문제의 성격과 지원 요구도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현재의 전달체계는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어 성인이 여러 기관을 반복적으로 탐색해야 하는 구조이며, 교육·고용·평생학습 데이터가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진로·고용·학습 플랫폼과 지역 자원을 연계·통합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 국가-광역-기초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데이터 연계 및 표준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광역과 기초 수준에서는 지역 기반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 기반의 탐색·진단·추천 기능과 지역 기반 상담·교육·경력지원이 연계된 온·오프라인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인의 실제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

특히 성인의 진로는 학령기와 달리 '일 중심'의 경력개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전달체계는 경력·자격·학습 이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개인화된 진로설계와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 전환기 취약계층 등 우선지원 대상에 대한 탐지와 지원 연계를 포함함으로써, 성인 누구나 접근 가능한 포용적 진로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통합 플랫폼, 지역 기반 운영모델, 사회 파트너 협력을 유기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고도화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인 진로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

성인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현재 진로·학습·고용 정보가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플랫폼을 연계·통합하는 구조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성인이 여러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탐색해야 하는 현 구조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고용-학습 데이터의 단절을 해소하는 것이 전달체계 고도화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합 플랫폼은 경력·자

격·학습 이력·진로심리검사 결과 등 개별 데이터를 연동하여, 성인의 생애단계와 경력전환 상황에 기반한 개인화된 진로·학습 경로 탐색 기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은 온라인 기반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상담·교육·경력지원 활동과 연계된 하이브리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계좌제, 직무능력은행제, 자격정보 서비스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하고, 지역 기반 상담 및 교육훈련 자원과도 통합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기반 분석 기능은 단순한 자동 추천 수준을 넘어, 경력단절 위험군 예측, 전환 가능 직무 탐색, 지역 산업 변화에 따른 역량 요구 분석 등 진단, 예측, 설계, 연결의 고도화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아가 플랫폼은 개인 수준의 지원을 넘어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 기반 체계로서의 역할도 기능해야 한다. 지역별·연령별·직군별 진로 수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을 조기 탐지하며, 미래 직업 및 역량 수요를 예측하는 등 데이터 기반 분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의 실질적 운영과 정책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 고도화는 성인의 생애 전 주기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지역과 국가 차원의 진로·학습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2) 지역 기반 성인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

지역 기반 성인 진로교육 운영 모델은 성인을 단일 집단으로 보지 않고, 청년·중장년·고령층 등 생애 단계별 특성과 지역의 인구·산업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모델로 설계되어야 한다. 성인의 특성이 매우 이질적인 만큼 지역 단위에서 제공되는 진로지원 역시 대상별로 구분된 서비스 경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일자리재단, 고용센터, 대학, 50플러스

센터 등 지역 자원은 기관 중심이 아닌 상담, 교육, 고용, 경력전환 지원 기능을 기준으로 재구조화하여, 중장년 경력 전환형, 경력단절 여성 재도약형, 청년 초기경력 설계형, 고령자 생애 전환형 등 대상군별 유형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지역 서비스가 서로 분절되어 있어 성인이 여러 기관을 반복적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지역 기반 모델은 지역 플랫폼, 평생학습계좌제, 고용지원체계 등 기존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연계·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전환에 대응한 직업전환 교육, 지역 기업 수요 기반 역량 개발,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간 진로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진로·학습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전환기 성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포용적 지역 진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 파트너 참여를 통한 일터 기반 진로교육 지원 활성화

성인의 진로와 경력개발은 학교 단계와 달리 실제 일터와 고용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업·노동조합·고용지원기관 등 사회 파트너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성인기의 진로 문제는 본질적으로 '일 중심'의 과제이므로 노동시장과 단절된 교육적 조치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역 기업, 업종별 협회, 노동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재직자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일터 기반 진로교육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내 경력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재직자 대상 경력전환 프로그램과 전직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하며, 산업별 특성과 직무 변화를 반영한

진로코칭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교육 담당자, 현장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경력설계 역량 강화 연수는 기업 내부에서 지속가능한 경력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파트너 중심의 일터 기반 진로교육은 산업구조 전환과 AI 시대의 고용 변화에 성인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고, 기업의 인력 재배치와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개인·기업·지역이 모두 이익이 되는 상생적 진로개발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는 통합 플랫폼, 지역 기반 운영 모델, 사회 파트너 협력,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의 네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가 확보되면 성인은 분절된 여러 기관을 반복적으로 탐색할 필요 없이, 하나의 통합된 경로를 통해 진단, 탐색, 설계, 전환에 이르는 전 생애 진로 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국가·지역·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생태계가 형성되어, 성인의 학습·고용·경력이 단절 없이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진로개발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이다.

라. 포용적 잔로교육 생태계 조성

1) 개인 주도 진로교육 지원 체계 마련

‘개인 주도 진로교육(학습) 기반 마련’과 ‘모든 성인의 진로교육 접근성 및 개별성 강화’와 관련하여, 개인의 주체성에 기반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추진되어 온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3년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하여 국가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성인 진로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이윤조 외, 2024; 이희수 외, 2024).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훈련 간의 연계, 교육-고용-복지 통합형 거버넌스, 학습 이력 통합 관리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 개별 영역에서 단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성인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제도(예: 평생학습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역시 교육부-고용노동부 간 협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생애를 아우르는 성인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습, 직업, 경력 등 개인의 '비정형적 경험'을 통합·연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모든 성인의 진로교육 접근성 및 개별성 강화

일반적으로 성인의 교육 참여 및 학습 성과는 형식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성인의 경력경로가 점차 복잡화·다변화됨에 따라 비형식교육 및 무형식학습 등 전통적 교육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경험 및 이에 기반한 진로 설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정표 외, 2022).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오석영 등(2024)은 성인의 지속적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학습경험인정제(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국가학습경험인정제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 다양한 장소 또는 맥락에서 제공되는 학습 및 실무 경험을 인정함으로써 성인의 평생 진로개발을 돕는 제도로서,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서는 국가학습경험인정제의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성인 개개인의 주도성에 기반한 맞춤형 진로교

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평생학습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학습경험인정제와 같은 비정규 교육 경험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를 계속교육 및 직업 전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성인의 노동시장 이동성 제고 및 지속적 진로 설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개인의 생활권 및 직장권을 기반으로 진로개발역량 점검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진로상담 서비스 등을 확대함으로써 성인 진로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인의 다양한 삶의 맥락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과정 전반에서 획득한 기술이나 태도, 의사소통, 대인관계 및 리더십 등 기초역량에 대한 포괄적 인정을 통해 성인의 적극적인 생애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우선 지원 대상 발굴 및 선제적 지원 체계 강화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정책적 우선 지원 대상을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집단(예: 저소득층, 저숙련층, 비자발적 실직자, 장애인, 청년층, 고령층 등)의 진로교육 관련 요구와 수요를 세심하게 파악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위한 포용적 진로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결 과제이다. 성인 진로교육의 지향점은 직업적 지식 또는 역량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성인 개개인의 생애 전환과 자아실현을 위한 가교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성인 진로교육의 가치는 성인의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 보다 건전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 기회 제공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진로개발을 제약하는 장

애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경로를 발굴하여, 삶에서 겪은 경험을 인정·확산함으로써 성인기 진로개발 전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소외계층을 위한 재정적·정서적 지원을 포괄하는 통합적 진로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외계층의 평생 진로개발 및 진로 경로 확대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4) 성인 진로 경로의 다각화 모델 발굴 및 확산

최근 급변하는 사회 구조와 환경 속에서 성인의 진로개발 양상은 더 이상 단일하고 선형적인 진로 경로에 머무르지 않으며, 직업 전환, 재취업, 사회공헌 활동, 창업 등 다양한 형태로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진로 경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인의 진로개발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은 포용적 진로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진로 전환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성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 개인의 만족과 사회 기여에 기반한 삶의 질 향상을 진로개발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 진로 경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기초 연구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

3.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

가. 성인 진로교육 개념의 명확화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타 정책 영역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는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성인 진로교육을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중략)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진로’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부재하고 일반적으로 진로를 직업과 동일시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성인 진로교육이 직업 선택 지원에 한정되어 협소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생애 주기별 전환에 직면한 성인의 복합적인 진로개발 지원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진로(career) 개념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초기에는 개인이 평생에 걸쳐 수행하는 일과 관련한 경험의 총체(Arthur et al., 1989)이자,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과 일에서의 개인 발달을 의미했다(Collin & Watts, 1996). 이후 호주 CICA는 진로를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수행하는 일, 학습, 여가 활동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생활 양식(lifestyle) 개념으로 규정하였다(Career Industry Council of Australia, 2006). 최근에는 일과 학습, 여가 활동을 포괄하는 관점으로, 진로를 여러 삶의 영역이 서로 교차하고 통합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을 포함한 삶의 영역 전반에서 개인이 목표를 향해 자원을 배분·조정하며,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 생애적(whole-life) 과정으로 진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Hirschi et al., 2022). 따라서 성인 진로교육은 단순히 직업을 찾는 활동을 넘어 전 생애적 관점에서 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

도록 지원하는 평생학습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의 7대 영역 중 하나로 보는 분류적 관점을 넘어 교육 방식과 실천 차원에서의 변화 역시 요구된다. 이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 개인의 성찰, 실천, 관계 형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과정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평생학습자의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초점화하여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고유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법」 내 '직업능력 향상교육'과 「평생직업능력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직업능력 향상교육'이 특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습득에 중점을 둔다면, 성인 진로교육은 개인의 평생에 걸친 진로 설계와 관리 역량에 중점을 둔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즉각적인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성인 진로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의 진로개발에서의 주체성과 적응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제시한 재정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성인의 특성을 반영한 진로개발역량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진로교육 정책은 청소년기의 진로 발달 과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성인은 이미 일정한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력 전환, 재취업, 은퇴 등 생애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진로를 재설계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는 등 개별성이 높고 복합적인 요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인기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여, 성인 진로개발역량은 개인의 주체성(agency)을 바탕으로 기존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면서 생애 전환기의 변화에 능동적이며 유연하게 대응하고, 평생에 걸쳐 자신의 일과 학습, 여가 등 삶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으로 차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인 진로교육은 구체적으로 개인이 축적한 경험을 기반으로 일과 학습, 여가의 삶을 재설계하도록 지원하

고, 진로 전환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함양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성인 진로교육 개념의 명확화와 성인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논의는 정책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타 정책 영역과의 차별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협력 지점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성인 진로교육의 정책 추진에 앞서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성인의 진로개발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실천적 논의가 요구된다.

나. 성인 진로교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의 직접적인 근거는 2023년에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 상위 법적 기반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성인 진로교육은 이러한 권리가 생애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또한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국가에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성인 진로교육이 학령기를 넘어 평생에 걸쳐 보장되어야 할 교육적 권리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법률로는 먼저 「교육기본법」 제22조의 3을 들 수 있다. 동 조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개발·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진로교육이

국가의 선택적 정책이 아닌 법정 의무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성인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노동 영역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동법 제6조는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개발 및 향상시키고 생애에 걸쳐 직업생활을 설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교육훈련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노력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성인 진로교육이 개인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사업주와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결합되어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진로개발역량이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사업주의 법적 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헌법적 책무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인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는 단순히 직업 선택을 지원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인 진로교육은 교육 및 학습을 통해 획득한 역량을 바탕으로 경력을 전환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과 노동시장 이행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성인이 평생에 걸쳐 주체적인 진로개발에 기반한 자아실현을 이루고,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표 5-9〉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 관련 법률

구분	조항	내용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의 근거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단순히 직업을 찾는 행위를 넘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성인 스스로 삶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주체적인 진로 탐색 및 설계의 기본 권리로, 개인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직업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 보장이 필요함.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전 생애에 걸쳐 진로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성인 진로교육은 현재 평생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진흥 의무가 있음.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는 국민의 고용 증진과 이를 위한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근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2.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직업 전환, 재취업 등의 필요에 따라 능력개발을 위한 진로교육 기회를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제22조의3 (진로교육)	(진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성인 진로교육 관련 강력한 상위 근거로, 성인 진로교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임을 명확히 함.
3. 평생교육법	제2조 (정의)	1. “평생교육”이란 정의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을 포함한다.	• 성인 진로교육을 평생교육의 법정 영역으로 명시한 직접적인 근거에 해당함.

구분	조항	내용	성인 진로교육 정책 추진의 근거
	제40조의3 (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주체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존 진로교육법상의 센터와 평생교육기관의 연계를 통한 성인 진로교육 확산의 토대를 마련함.
4. 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 (목적)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성인 진로교육을 평생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 기회 확대라는 국가 고용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바라봄.
	제3조 (기본원칙)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할 것.	• 고용정책이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성인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제5조 1항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근로자는 직업생활 동안 끊임없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갖는 노력의 의무에도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함. • 이는 평생학습 및 경력 관리가 성인의 기본적인 책임임을 강조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다. 성인의 일과 학습의 선순환 강화

성인 진로교육이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주체적인 진로개발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역량 강화의 결과가 평생학습 시스템 내에서 효과적으로 축적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로 인정되어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시스템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성인 대상 교육·훈련은 단발성 프로그램에 그치거나, 평생학습 이력이 노동시장에서 자격 또는 직무역량으로 인정되는 연계가 미흡하여 개인의 학습 투자가 실질적인 경력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육과 고용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성인이 학습과 일을 통해 획득한 경험이 사회적·경제적 가치로 보장받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역량의 사회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정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 정규·비정규 학습과 실무 경험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원칙하에, 디지털 배지 등 새로운 인증 방식이 국가 자격 및 산업별 역량 체계와 상호 연계되어 기업의 채용과 인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그간 지속되어 왔으나, 부처 간 분절과 복잡한 이해관계자의 대립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진전을 이루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적 리더십을 통한 범부처의 협의 및 추진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성인의 일과 학습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또한 요구된다. 성인의 경력전환, 재취업, 은퇴 설계 등의 생애 전환기에 요구되는 진로개발 지원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습에 대한 투자가 실제 경력개발로 이어진다는 국가 차원의 사회적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인이 학습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는다는 신뢰는 평생학습 사회를 촉진하는 근본적인 동력이자, 성인 진로개발 지원의 질적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이러한 일과 학습 기회의 반복적인 접근성, 일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자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인의 일과 학습의 선순환은 개인의 행복추구권 실현과 함께 국가 차원의 유연한 인재 양성 체계 확립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SUMMARY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Adult Career Education to Support Lifespan Career Development

Jieun Jeong, Chang Sung Jang, Nara Kim

This study examines the directions and tasks for national adult career education policy in response to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population aging that have created unprecedented uncertainty in the labor market. With the 2023 amend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providing a legal foundation for adult career educa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policy implementation, review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and proposes a comprehensive policy framework.

The theoretical foundation traces the evolution of career development paradigms from trait-factor matching through developmental approaches to the contemporary life-design paradigm, which emphasizes individuals as active agents in creating meaning and direction in their lives. This shift necessitates moving from traditional work-first approaches focused on rapid labor market entry toward career-first approaches that support long-term sustainable growth, social safety nets, and universal career development support systems as essential infrastructure for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freedom of occupation, pursuit of happiness, and lifelong learning.

Analysis of current domestic implementation reveals that while adult career education programs operate within existing lifelong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systems, several critical challenges persist: unclear role delineation among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absence of professional workforce standards and training systems; insufficient sustainable funding mechanisms; and limited inter-ministerial collaboration between the education and employment sectors. Adult learners express strong demand for integrated support systems connecting counseling, education, and employment services.

Comparative analysis of leading countries demonstrates systematic approaches across four policy domains: governance and funding, qual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coverage and inclusiveness. These nations commonly recognize adult career development support as an essential national responsibility while respecting individual agency and ensuring adequate infrastructure and resource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stakeholder interviews, and Delphi surveys with twenty experts, this study proposes the vision of "realizing a society where all adults have guaranteed opportunities to learn throughout their lives, participate in society, and independently develop their careers." The policy framework comprises four strategic areas with fourteen specific tasks: (1) establishing integrated governance

and securing a financial foundation, (2) developing operational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s, (3) building demand-oriented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4) creating an inclusive career education ecosystem. Critical prerequisites include clarifying the concept of adult career education, strengthening national accountability, and enhancing organic connections among adult career education, lifelong learning, and employment systems.

참고문헌

〈국내 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3).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 (2023. 1. 30.)

관계부처 합동. (2024).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2024. 1.)

고용노동부. (2025a). **2025년도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 운영매뉴얼**. (2025. 6.)

고용노동부. (2025b).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관계부처 합동. (2020).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안)**.

관계부처 합동. (2022).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25). **2025년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인생재설계 상담 세부 사업 추진계획(안)**.

교육부. (2019).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교육부. (2022a).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2022b).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

교육부. (2023a).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2.0) 기본계획(안)**.

교육부. (2023b).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교육부. (2024).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안)**.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 **2019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4). **2023 평생교육백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4). **2024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교육부. (2025a). **202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계획(안)**.

교육부. (2025b).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교육기본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3호, 2025. 1. 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 07. 17.)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평생교육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 07. 17.)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진로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 07. 17.)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 07. 17.)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 07. 17.)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5호, 2024. 1. 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 07. 17.)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4호, 2023. 1. 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 07. 17.)

김은석, 이영민, 이효남, 이만기, 천영민, 이윤선, 서현주, 조아름. (2017). **생애경력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김태준, 최상덕, 박승재, 이정우, 한승현, 채대석, 임형재. (2022).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김진희, 김경애, 이정우, 김지혜, 임종헌, 김영석. (2023). **커리어 전환기에**

놓인 4050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김철희, 홍광표, 이정표. (2023). **평생교육체계 효율화 방안**.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형만, 김주섭, 김환식, 박라인, 양정호, 이희수. (2024). **직업·평생교육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교육위원회.

서순영. (2024). **평생교육법의 최근 개정 동향에 관한 소고: 평생학습계좌제를 중심으로.**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유정, 이재열, 이윤진. (2020).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석영, 김지영, 고미라. (2024). **국가학습경험인정제 도입 방안 연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한구, 최영섭, 김현수, 최동선. (2007). **일-학습에 대한 생애설계 종합지원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윤조, 곽진영, 김재연, 윤석인, 박희진. (2024). **경기도 성인 진로교육 정책개발 연구**. 경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이영대, 임언, 이지연, 최동선, 김나라. (2004).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 수립.**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정표, 정혜령, 김철희, 황영아. (2022).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학습경험인정제(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확대·운영 방안 연구**.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종성. (2006).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이재열, 문찬주, 주인중. (2022). **성인 진로교육 수요 분석 및 정책 수립 방안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지연, 권효원, 안중석, 김기헌, 이동혁. (2022). **국민 역량과 삶의 질을**

지원하는 평생진로지도안전망 구축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지연, 권효원. (2021). **한국의 진로교육 혁신 방안: 해외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4), 59-81.

이지연, 박화춘, 이진솔, 권효원. (2019). **한국의 진로교육 혁신 방안 연구: 해외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연, 한상근, 최동선. (2003). **생애단계별 진로지도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희수, 신훈희, 채우공. (2024). **서울시 성인 진로교육 지원방안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진철, 임정훈, 이영광, 강민지, 조홍용. (2020). **성인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정진철, 이승엽, 강민지, 김기민, 이영광. (2021).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모델 개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정윤경, 서유정, 이윤진, 방혜진. (2018). **진로교육 기초연구: 3. 성인 평생학습자의 진로교육 지원 방안.**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진미석, 윤형한. (2003). **성인 진로개발체제 구축.**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미석, 윤형한. (2004). **성인 대상 진로개발 지원인력의 양성·활용 실태와 개선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재은, 한승희. (2015). **고등평생학습체제의 형성과정 분석.** 평생학습사회, 11(4), 1-24.

채창균, 오호영, 정재호, 김경애, 김안국, 김주섭. (202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직업훈련·평생교육체제 중장기 개편**. 세종: 기획재정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외 문헌〉

Arthur, M. B., Hall, D. T., & Lawrence, B. S. (1989). Handbook of career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Akkermans, J., da Motta Veiga, S. P., Hirschi, A., & Marciniak, J. (2024). Career transitions across the lifespan: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8, 103957.

Bierema, L. L. (2024). Rethinking adult career development. A critical perspective.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Bimrose, J., & Barnes, S. (2008). Adult career progression and advancement: A five year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guidanc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Cedefop. (2008). Career development at work: A review of career guidance to support people in employment (Cedefop Panorama Series No. 151).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edefop. (2016). Labour market information in lifelong guidance: Case study visit focusing on IMT en ligne, Placement en ligne, REPÈRES, in Quebec, Canada.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edefop. (2018). Handbook of ICT practices for guidance and career developmen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Cedefop. (2020a). Inventory of lifelong guidance systems and practices: Germany.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edefop. (2020b). Inventory of lifelong guidance systems and practices: Sweden.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edefop. (2020c). Note on lifelong guidance and the COVID-19 pandemic: Responses from Cedefop's CareersNet.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edefop. (2021). Inventory of lifelong guidance systems and practices: Denmark.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edefop. (2023). Towards European standards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lifelong guidance systems and services (Vol. III): A preliminary list of indicators for quality framework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Career Industry Council of Australia. (2006). Career more than just a job: Career development understandings informing myfuture.

Collin, A., & Watts, A. G. (1996). The death and transfiguration of career - and of career guidanc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24(3), 385-398.

Department for Education. (2021). Skills for jobs: Lifelong learning for opportunity and growth.

ELGPN. (2015). Guidelines for policies and systems development for lifelong guidance: A reference framework for the EU and for the commission.

ELGPN. (2016). Quality-assurance and evidence-base (QAE) framework. The European Lifelong Guidance Policy Network.

Euroguidance. (2018). Guidance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European Commission. (2019).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in United Kingdom. EACEA National Policies Platform.

Fuertes, V., McQuaid, R. W., & Robertson, P. J. (2021). Career-first: An approach to sustainable labour market inte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21(3), 429-446.

Hirschi, A., Zacher, H., & Shockley, K. M. (2022). Whole-life career self-management: A conceptual framework.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70(2), 130-145.

Hooley, T. (2014). The evidence base on lifelong guidance. The European Lifelong Guidance Policy Network.

Hutchinson, J., & Hooley, T. (2025). Good adult career guidance: International case study evidence. International Centre for Guidance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Derby.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European Training Foundation. (2021). Developing national career development support systems. ILO & ETF.

Langenbucher, K., & Vodopivec, M. (2022). Paying for results: Contracting out employment services through outcome-based payment schemes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67). OECD Publishing.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 563-575.

NCDA. (2020). 2024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NCDG).

NESA. (2023). Rebuilding employment services: Final report on workforce Australia employment services.

Murry Jr, J. W., & Hammons, J. O. (1995). Delphi: A versatile methodology

for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18(4), 423-436.

OECD. (2004).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Bridging the gap.

OECD. (2016). The OECD jobs strategy: Enhancing labour market performance for stronger and more inclusive growth. OECD Publishing.

OECD (2021). Career Guidance for Adults in a Changing World of Work, Getting Skills Right. OECD Publishing,

OECD. (2022a). Career guidance for adults in Canada. OECD Publishing.

OECD. (2022b). Career guidance for low-qualified workers in Germany. OECD Publishing.

OECD. (2022c). Strengthening career guidance for mid-career adults in Australia. OECD Publishing.

Percy, C., & Dodd, V. (2021). The economic outcomes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mes. In P. J. Robertson, T. Hooley, & P. McCash (Eds.), The Oxford handbook of career development (pp. 37-48). Oxford University Press.

Salajan, F. D., & Roumell, E. A. (2023). Tracing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a vocational training, adult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policy space in the European Union from 1951 to present. Europ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2(3), 347-367.

Savickas, M. L., Nota, L., Rossier, J., Dauwalder, J. P., Duarte, M. E., Guichard, J., Soresi, S., Esbroeck, R. V., & Van Vianen, A. E. (2009). Life designing: A paradigm for career construc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39-250.

Savickas, M. L. (2012). Life design: A paradigm for career interven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0(1), 13-19.

UK Government. (2019). Top employers to help all primary schools offer careers education to pupils.

UNESCO. (2021). Career guidance: A handbook for policy makers.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Whiston, S. (2021). Career counselling effectiveness and contributing factors. In P. J. Robertson, T. Hooley, & P. McCash (Eds.), The Oxford handbook of career development (pp. 337-352). Oxford University Press.

〈웹사이트〉

고용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wk/u/a/1000/seniorCenterInfo.do (검색일: 2025. 07. 3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View.do?policy_itrd_sn=355 (검색일: 2025. 7. 3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InfoP.do?lsiSeq=61692&ancYd=20030527&ancNo=06878&efYd=200309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검색일: 2025. 09. 18.)

경기도일자리재단. (2025).

홈페이지. https://www.gjf.or.kr/main/content/view.do?sn=90 (검색일: 2025. 09. 01.)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gg4060.or.kr/ (검색일: 2025. 09. 05.)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5).

홈페이지. https://50plus.or.kr/org/index.do (검색일: 2025. 09. 01)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bgli.re.kr/kor/CMS/Board/Board.do?mCode=MN083%20&mode=view&board_seq=24425 (검색일: 2025. 09. 0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slei.seoul.kr/program/openUniv/curriculum.do (검색일: 2025. 09. 05.)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https://sll.seoul.go.kr/main/doSeoulSiminIntroView.do?main_se=ssu&gubun=design&mnid=202501413777 (검색일: 2025. 09. 05.)

잡아봐. (2025). https://job.gg.go.kr/main/main.do

중장년 내일센터 홈페이지. (2025).

https://www.elifeplan.or.kr/board/index.jsp?code=corp&ch=corp (검색일: 2025. 09. 01.)

부 록

1. 델파이 조사지(1차)
2. 델파이 조사지(2차)

[부록 1] 델파이 조사지(1차)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 및 과제’ 델파이 조사: 1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은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진은 **성인 진로교육의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과제 초안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1차 질문지는 문헌 고찰 및 사례 분석,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의 초안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수정·보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신분과 관련된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등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하신 조사지는 10월 17일(금요일)까지 e-mail#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10월

연구과제명: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연구진: 정지은 연구위원(책임), 장창성 부연구위원, 김나라 전문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

조사기관: OOOOOO (담당자: OOO)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연구 개요〉 연구 기간: 25년 6월 12일~25년 12월 11일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3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이 평생교육의 핵심 주제이자 제도화된 공공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과 정책 추진 상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 및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및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델파이 조사, 관계자 면담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성인 진로교육 정책 수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주요 결과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성인 진로교육 정책 쟁점 도출	⇔	문헌분석. 관계자 면담	- 국내외 성인 진로교육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급변하는 기술·고용 환경에 대응하여 진로개발의 패러다임이 '직업 선택 중심'에서 '삶 전반의 설계(Life Design)'로 전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과 학습, 여가를 통합적으로 설계 관리할 필요성이 강조됨. - 주요국의 성인 진로교육 정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성인 진로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 확립,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전달 방식의 체계화, 품질 및 성과 관리, 데이터 기반 접근 및 포용성 제공 등의 핵심 시사점이 도출됨. - 관계자 면담 결과, 성인 진로교육 개념의 명확화, 연령-생애단계별 맞춤형 설계,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학습 이력 관리 및 진단 체계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기준 정립, 수평·수직 거버넌스 구축, 민·관 협력 강화, 통합적·단계적 추진 필요성이 확인됨.
▼			
정책 방향 및 과제 초안 도출			
▼	⇔	전문가 협의회	
정책 방향 및 과제 초안 수정			
▼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 우선순위 도출	⇔	**델파이 조사** 1차: 적합성, 개방형 의견 2차: 적합성, 중요도/긴급도	
▼			
세부 실천 방안 도출	⇔	전문가 협의회	

1.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성인 진로교육 개념과 성인 진로교육 정책 범위입니다. 각 항목의 타당성을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시고, 수정·보완 의견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구분	추진 과제(안)	타당성					수정·보완의견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타당성에 ①, ② 응답 시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성인 진로 교육	**성인 진로교육을 "학령기 이후 성인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으로 정의함.** - 성인 진로교육은 성인의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으로서, 교육과정·프로그램·서비스를 포괄함.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내 진로 관련 개념의 통합, 현장 기반 경험 제공, 노동시장 정보(LMI) 제공, 진로 설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포함하며(Bierema, 2024), 지자체의 평생 교육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뿐 아니라 개인의 진로 의사결정과 전환을 지원하는 맞춤형 상담과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포함함.	①	②	③	④	⑤	
성인 진로 교육 정책	**성인 진로교육 정책은 학령기 이후 성인의 진로개발을 공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마련·운영되는 제도·사업·재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의미함.** - 이는 성인 진로교육 개별 프로그램 운영에 한정되지 않고, 법·제도적 기반,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품질 관리와 평가, 데이터·인프라 구축 등 정책 전반의 구조와 실행 체계를 포괄함.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2. 다음은 성인 진로교육 정책 비전 및 목표(안)입니다. 각 항목의 타당성을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시고, 수정·보완 의견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구분	추진 과제(안)	타당성					수정·보완의견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타당성에 ①, ② 응답 시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정책 비전	**학령기 이후 모든 성인이 평생에 걸쳐 학습·성장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평생 진로개발 사회 실현** - 기술·산업·사회 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모든 성인이 학습과 일, 사회 참여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동적 사회를 지향	①	②	③	④	⑤	
정책 목표	**목표 1. 학령기 이후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함양 보편화** - 성인 대상 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 대학 등)을 기반으로 모든 성인이 생애단계별 진로 탐색, 설계, 실행 등을 반복하며 진로를 전환 및 관리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 함양 기회를 보편화함.	①	②	③	④	⑤	
	목표 2. 지속할 수 있는 순환형 진로교육 체계 구축 - 누구나 어느 시점에서든 진로를 전환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교육훈련-일·사회 참여를 지속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생애단계별 진로 관리를 유기적으로 지원함. * 예) 사전 진단(개인 계획), 학습·교육훈련, 일·사회 참여, 사후 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3. 다음은 성인 진로교육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안)입니다. 각 항목의 타당성을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시고, 수정·보완 의견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추진 과제는 (1)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2)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관리 체계 확립, (3)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고도화, (4) 포용적 지원 강화, 4개로 구분하였습니다.**

구분	추진 과제(안)	타당성					수정·보완의견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타당성에 ①, ② 응답 시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 **성인 진로교육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 - 성인의 평생 진로개발 보장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 성인 진로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진로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동법시행령 개정·정비	①	②	③	④	⑤	
	• **범정부 통합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 - 성인 진로교육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가칭)평생 진로개발 위원회' 설립 - 포럼 운영 등을 통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정부, 기업, 교육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구조 마련	①	②	③	④	⑤	
	• **성인 진로교육 재원 모델 마련** -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예산 활용 등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개인, 공공·민간기업, 정부 간 책임 분담 명확화 - 민간기업의 공동 재원 조성 참여 유도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구분	추진 과제(안)	타당성					수정·보완의견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타당성에 ①, ② 응답 시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2)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관리 체계 확립	• **국가 성인 진로교육 프레임워크 구축** - 성인 진로교육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미국 NCDA, 캐나다 블루프린트 등) 개발 및 교육훈련 연계 기준 수립	①	②	③	④	⑤	
	• **성인 진로교육 운영 체계 확립** - 성인 진로교육 교육과정 설계 표준 마련(노동시장 정보 활용, 학습자 경로, 사후 관리 등) - 학습자 지원 체계 표준 마련(진단 및 상담 체계, 개인 진로 이력 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국가 공인 성인 진로교육 역량 표준 수립 - 성인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보수교육 체계 및 매뉴얼 개발 - 전문인력 네트워킹 및 현장 커뮤니티 지원	①	②	③	④	⑤	
	• **성인 진로교육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성인 진로교육 성과 지표 개발(교육훈련 참여율/수료율, 취업률을 넘어 직무 적합도, 삶의 만족도 등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성과 포괄) - 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마련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구분	추진 과제(안)	타당성					수정·보완의견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타당성에 ①, ② 응답 시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3) 수요자 중심 전달 체계 고도화	• **온라인 기반의 성인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 - 개인의 진로 이력, 교육/훈련 정보, 자격 등 학습 및 진로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온라인 기반 자가 역량 진단, 진로상담, 교육훈련, 진로 설계 및 실행 지원이 연계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 **지역 기반 맞춤형 성인 진로교육 모델 구축** - 지역 특화 산업 및 고용 환경 등의 여건을 반영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성인 진로상담 센터 설립 등 지역별 자율적 지원 체계 구축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⑤	
	• **개인 주도 진로교육(학습) 기반 마련** - 개인 주도형 자기 진로 설계 도구 개발 및 보급 - 개인별 진로 목표에 따른 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바우처 제도 개편 및 지원 범위 강화	①	②	③	④	⑤	
	• **사회 파트너(기업/교육기관/노동조합 등) 진로교육 책무 강화** - 직원의 진로(경력) 관리를 위한 기업 내 진로교육 규정화 -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기관 내 성인 진로교육 운영 의무화 - 기업의 재직자 훈련, 교육기관의 학습 과정, 노동조합의 근로자 자치 활동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학습-일' 연계 모델 발굴 및 확산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구분	추진 과제(안)	타당성					수정·보완의견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타당성에 ①, ② 응답 시 반드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4) 포용적 지원 강화	•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한 접근성 강화** - 모든 성인이 생애단계와 지역, 배경에 관계없이 진로개발 기회를 보장 - 생애단계별 차별화된 진로개발 프로그램 개발 - 생활권 내에서 진로상담 등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	①	②	③	④	⑤	
	•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맞춤형 성인 진로교육 강화** - 고령층(50세 이상)의 진로개발 및 관련 역량 점검 지원 - 진로 취약계층 선별, 맞춤 상담 및 교육훈련 제공 -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포함하는 통합적, 선제적 지원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 **성인 진로 경로 인식 확장 및 우수 모델 확산** - 성인의 다양한 진로 경로(직업 전환, 사회 공헌, 창업 등)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사회 인식 확장 - 성인 진로교육 우수 모델 발굴 및 확산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성심성의껏 응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차 조사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록 2] 델파이 조사지(2차)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 및 과제’ 델파이 조사: 2차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연구진입니다. 본 조사는 상기 연구과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로서 지난 조사지에서 주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간 동의도 등 확보를 위한 2회차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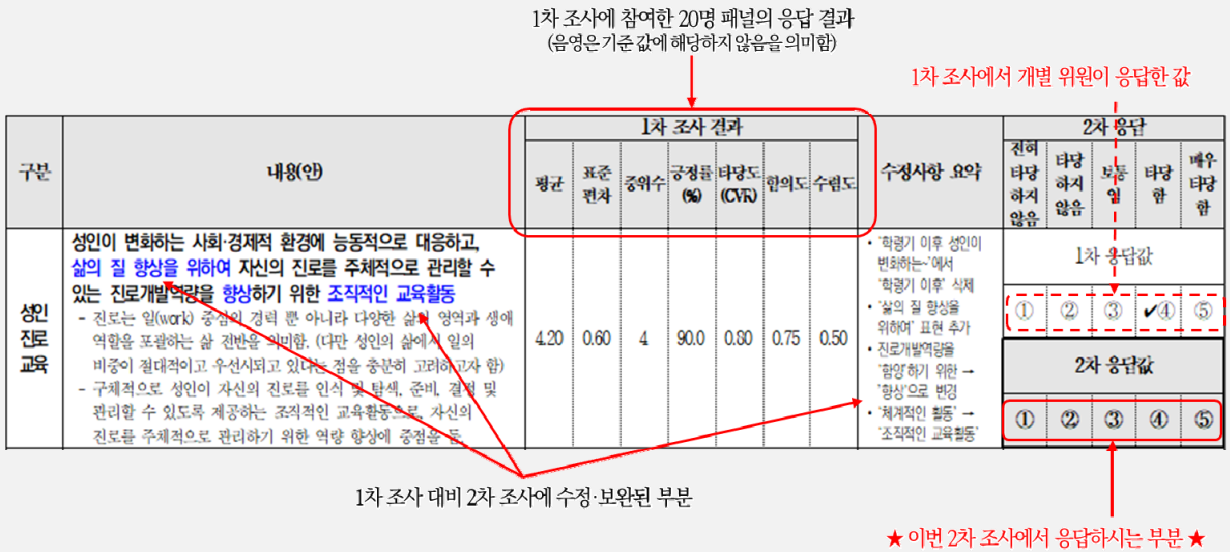
귀하의 신분과 관련된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등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응답하신 조사지는 10월 31일(금요일)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10월

연구과제명: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연구진: 정지은 연구위원(책임), 장창성 부연구위원, 김나라 전문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
조사기관: OOOOOO (담당자: OOO)

2차 조사 응답 시 참고사항 (1, 3, 4번 문항)

□ 다음에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시어, 2차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1.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성인 진로교육 개념과 성인 진로교육 정책 범위의 수정 결과입니다. 1차 응답 결과를 참조하시어 각 항목의 타당성을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시고(2차 응답),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안)	1차 조사 결과							수정사항 요약	2차 응답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긍정률(%)	타당도(CVR)	합의도	수렴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성인 진로 교육	**성인이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조직적인 교육활동** - 진로는 일(work) 중심의 경력 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과 생애 역할을 포괄하는 삶 전반을 의미함. (다만 성인의 삶에서 일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우선시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성인이 자신의 진로를 인식 및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둠.	4.20	0.60	4	90.0	0.80	0.75	0.50	• '학령기 이후 성인이 변화하는~'에서 '학령기 이후' 삭제 •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표현 추가 •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 '향상'으로 변경 • '체계적인 활동' → '조직적인 교육활동'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성인 진로 교육 정책	**성인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 사업 재정 등을 의미함.** - 최근 급격한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계속교육 및 평생학습을 통한 성인의 지속적 역량 개발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개개인의 진로개발에 있어 진로교육의 역할 및 기능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제 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3~'27): 학력보완, 여가선용 수단을 넘어 필수적인 재교육, 향상교육으로 대전환* ** 제 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3~'27):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로 개인의 고용가능성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목표* - 성인 진로교육 정책을 통해 현재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진로개발에서의 개인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직업훈련과의 연계성을 높여 성인의 지속적인 진로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4.10	0.70	4	90.0	0.80	0.94	0.13	• '학령기 이후 성인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에서 '학령기 이후' 삭제 • '성인 진로개발을 공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에서 '공공적으로' 삭제 • '국가 차원에서' → '국가 및 지방정부(지자체) 차원에서' • '제도·사업·재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 사업 재정 등'으로 변경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2. 다음은 성인 진로교육 정책 비전 및 목표의 개요(수정 결과 기준)입니다. 전반적인 타당성, 구조 등의 적정성에 대한 자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자유 의견'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1차 조사 기준〉

정책 비전
학령기 이후 모든 성인이 평생에 걸쳐 학습·성장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평생 진로개발 사회 실현

정책 목표 1	학령기 이후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함양 보편화
정책 목표 2	지속할 수 있는 순환형 진로교육 체계 구축

(1)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 성인 진로교육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
	• 범정부 통합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
	• 성인 진로교육 재원 모델 마련
(2)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관리 체계 확립	• 국가 성인 진로교육 프레임워크 구축
	• 성인 진로교육 운영 체계 확립
	•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성인 진로교육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고도화	• 온라인 기반의 성인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
	• 지역 기반 맞춤형 성인 진로교육 모델 구축
	• 개인 주도 진로교육(학습) 기반 마련
	• 사회 파트너(기업/교육기관/노동조합 등) 진로교육 책무 강화
(4) 포용적 지원 강화	•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한 접근성 강화
	•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맞춤형 성인 진로교육 강화
	• 성인 진로 경로 인식 확장 및 우수 모델 확산

→

〈2차 조사 기준〉

정책 비전
모든 성인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주체적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

정책 목표 1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향상 기회 보장
정책 목표 2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성인 진로교육 체계 구축

(1)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 성인 진로교육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
	• 범정부 통합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
	• 성인 진로교육 재원 확보 안정화
(2)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확립	• 성인 대상 국가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 성인 진로교육 전달체계 정립
	•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성인 진로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
(3)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고도화	• 성인 진로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
	• 지역 기반 성인 진로교육 운영 모델 발굴
	• 사회 파트너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일터 기반 진로교육 지원
(4) 포용적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	• 개인 주도 진로교육(학습) 기반 마련
	• 모든 성인의 진로교육 접근성 강화
	• 우선 지원 대상 발굴 및 선제적 지원 체계 강화
	• 성인 진로 경로의 다각화 모델 발굴 및 확산

〈자유 의견〉

3. 다음은 성인 진로교육 정책 비전 및 목표의 수정 결과입니다. 1차 응답 결과를 참조하시어 각 항목의 타당성을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시고(2차 응답),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안)	1차 조사 결과							수정사항 요약	2차 응답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긍정률(%)	타당도(CVR)	합의도	수렴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정책 비전	**모든 성인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주체적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 - 기술·산업·사회 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모든 성인이 학습과 일, 사회 참여 기회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한 지역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역동적 사회를 지향	4.05	0.86	4	75.0	0.50	0.69	0.63	• '학령기 이후 모든 성인이'에서 '학령기 이후' 삭제 • '학습·성장하고'에서 '성장' 삭제 • '모든 성인이 …학습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평생 진로개발 사회 실현'에서 '주체적으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으로 변경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정책 목표	**목표1.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향상 기회 보장** - 모든 성인이 진로 탐색과 설계 및 실행 과정을 통해 주체적으로 진로를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 향상 기회를 보장함.	3.90	0.70	4	80.0	0.60	1.00	0.00	• '학령기 이후'라는 표현 삭제 • '진로개발역량 함양 보편화'에서 '진로개발역량 향상 기회 보장'으로 변경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목표2.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성인 진로교육 체계 구축 - 성인기의 경력 유지와 전환 등 진로 관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학습과 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개인이 필요한 시점에 유연하게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진로개발을 촉진함.	3.70	0.64	4	70.0	0.40	0.75	0.50	• '지속가능한 순환형'에서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으로 변경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4. 다음은 성인 진로교육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의 수정 결과입니다. 1차 응답 결과를 참조하시어 각 항목의 타당성을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시고(2차 응답),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주십시오.

*** 추진 과제는 (1)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2) 성인진로교육운영 및 질 관리 체계 확립(1차 조사 기준: 전문성 강화 및 품질 관리 체계 확립), (3)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고도화, (4) 포용적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1차 조사 기준: 포용적 지원 강화) 등 4개로 구분하였습니다.**

구분	내용(안)	1차 조사 결과							수정사항 요약	2차 응답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긍정률(%)	타당도(CVR)	합의도	수렴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1)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 **성인 진로교육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 - '국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성인의 평생 진로개발 보장을 위한 국가 비전을 반영한 정책 수립 *제6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8~2032) 등 - 성인 진로교육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및 진로교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및 정비 (고용정책 기본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생애단계 등과의 연계성 고려)	4.40	0.97	5	85.0	0.70	0.80	0.50	•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제시 • 고용정책 기본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의 연계성도 고려함을 명시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 **범정부 통합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 - 국가교육위원회 내 주요 의제 선정 등을 통해 평생 진로개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의 및 합의의 기반 마련 - 평생 진로개발의 관점에서 국가 인재양성 정책 검토 및 범정부 차원의 성인 진로개발 협의회 운영(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 성인 진로교육 정책 관련 포럼 운영 등을 통하여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참여 구조 마련	3.80	1.12	4	70.0	0.40	0.50	1.00	• 국가교육위원회 내 주요 의제 선정 등 추진내용 추가 • 대통령 직속의 '평생진로개발위원회' 운영을 범정부 차원의 협의회 운영으로 변경 • 기존에 제시한 포럼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범위 삭제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 **성인 진로교육 재원 확보 안정화** -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예산 활용 등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개인, 공공·민간기업, 정부 간 책임 분담 논의 - 민간 기업,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조직 및 기관의 공동 재원 조성 참여 유도	4.30	0.78	4	90.0	0.80	0.75	0.50	• 책임분담 명확화보다는 '논의' 수준으로 변경 •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의 공동 재원 조성 참여 유도 추가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구분	내용(안)	1차 조사 결과							수정사항 요약	2차 응답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긍정률(%)	타당도(CVR)	합의도	수렴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2)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확립	• **성인 대상 국가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 성인 진로 관리에 필요한 진로개발역량 및 진로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공통 기준 마련 - 성인 진로교육 설계 및 운영에서의 참조 틀이자 품질 관리의 기준으로의 활용	4.05	0.80	4	80.0	0.60	0.75	0.50	• '프레임워크' 보다는 '가이드라인'으로 표현하고, '표준화된' 등 규정화된 틀의 도입을 제시하는 표현을 삭제 하는 등 추진 내용 전반 수정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 **성인 진로교육 전달체계 정립** - 성인 진로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실행기관, 프로그램 제공기관 간의 전달체계 정립 - 성인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평생교육시설,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4.00	0.63	4	80.0	0.60	1.00	0.00	• '운영체계'를 '전달체계'로 수정 • 주요 추진기관 간의 전달체계 정립 및 협력체계 마련 내용으로 전반 수정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 역량체계 정립 - 성인 진로교육 전문가 양성 및 보수교육 체계 마련 (평생교육사 및 직업상담사 등 관련 자격 간 상호 연계 및 공동 활용 고려)	4.30	1.00	5	85.0	0.70	0.80	0.50	• '국가 공인 성인 진로교육 역량 표준 수립', '매뉴얼 개발' 등 규정화된 틀의 도입을 제시하는 표현 지양, 전문인력 역량체계 정립 등으로 수정 •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등 관련 자격 연계 추진 내용 명시 • 전문인력 네트워킹 및 현장 커뮤니티 지원 삭제(의미가 모호하다는 의견 반영)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 **성인 진로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 - 성인 진로교육 성과 지표 개발 - 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성인 진로교육 운영 모니터링 및 정책 환류 체계 마련(평생교육통계조사 및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시행 계획 및 실적과의 연계 등)	4.15	1.11	4.5	80.0	0.60	0.78	0.50	• '평가 및 모니터링' 보다는 '질 관리' 체계로 표현 수정 • 기존에 제시한 성과지표의 범위 삭제(취업률~심리적성과 등) • 평생교육통계조사 등 기존 자료 연계 내용 추가 • 지자체 평생교육에도 환류체계 마련 등 추진 내용 추가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구분	내용(안)	1차 조사 결과							수정사항 요약	2차 응답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긍정률(%)	타당도(CVR)	합의도	수렴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3) 수요자 중심 전달 체계 고도화	• **성인 진로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 - 개인의 경력, 교육/훈련 정보, 자격, 등 학습 및 경력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마련(평생학습계좌제, 직무능력은행제 고려)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단 및 상담, 진로 설계 및 실행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4.00	0.95	4	75.0	0.50	0.69	0.63	• 개인의 '진로이력'이라는 표현을 '경력'으로 수정 •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형태의 플랫폼 구축으로 제안 •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도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 내용 변경 • '원스톱'이 아닌 '통합적 관리 필요성'을 추진 내용에 강조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 **지역 기반 성인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 - 지자체의 중간 지원 조직(성인 진로개발센터 설립 등)을 통한 지역 기반의 성인 진로교육 운영 모델 구축 - 성인 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성인 진로교육의 특성화 지원(평생학습 집중진흥 지구 연계, 평생학습과 직업훈련 연계성 강화 등 고려)	4.30	0.78	4	90.0	0.80	0.75	0.50	• 기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중간 지원 조직'을 제안하며, 센터 설립 방법도 고려할 수 있도록 괄호 안에 표현함. • 지역별 성인 진로교육 특성화에 있어 지역의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내용으로 구성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 **사회 파트너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일터 기반 진로교육 지원** - 기업의 재직자 훈련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 교육기관의 학습 과정, 노동조합의 근로자 자치 활동 등과의 유기적 연계 지원 및 모델 발굴	4.15	0.65	4	85.0	0.70	0.75	0.50	• '사회 파트너(기업/교육기관/노동조합 등) 진로교육 책무 강화' → '사회 파트너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일터 기반 진로교육 지원' • 기업 내 진로교육 규정화, 고등교육(평생학습) 기관 내 성인 진로교육 운영 의무화 등 의무제도 도입 추진내용 삭제(비현실적이라는 의견 반영) • 재취업지원 서비스도 평생진로교육 내에서 지원하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추가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구분	내용(안)	1차 조사 결과							수정사항 요약	2차 응답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긍정률(%)	타당도(CVR)	합의도	수렴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임	타당함	매우 타당함
(4) 포용적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	• **(영역 3에서 이동) 개인 주도 진로교육(학습) 기반 마련** - 개별 진로 계획에 따른 학습 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 (평생학습바우처(교육부),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학습경험인정제 등)	4.05	0.86	4	75.0	0.50	0.69	0.63	• 영역 (3)에서 (4)로 이동 • '개인 주도형 자기 진로설계 도구 개발 및 보급' 추진 내용 삭제(모호하다는 의견 반영) • 개인별 진로 목표가 아닌 '계획'에 따라 학습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편하는 것으로 추진내용 수정 • 평생학습바우처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시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 **모든 성인의 진로교육 접근성 및 개별성 강화** - 생활권, 직장권 내 진로개발역량 점검 지원, 진로상담 등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 - 성인의 경제활동 상황, 개인의 삶의 맥락 등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4.40	0.80	5	90.0	0.80	0.80	0.50	• '생애단계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한 접근성 강화'에서 '모든 성인의 진로교육 접근성 및 개별성 강화'로 표현 변경하여 추진내용의 특징 강조(특히 생애단계라는 표현은 성인들이 가진 공통성에 기반한다는 전제로 보일 가능성 고려) • 생활권 뿐만 아니라 직장권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추진내용 표현 수정 • 추진내용으로서 개별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강조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 **우선 지원 대상 발굴 및 선제적 지원 체계 강화** - 정책적 우선 지원 대상(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등)의 진로교육 관련 수요 분석 - 진로 취약계층 대상 재정적,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진로개발 지원 체계 마련	4.40	0.73	5	85.0	0.70	0.80	0.50	• 정책적 우선 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기존 안에는 '고령층'만 제시) • 어떤 대상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패널 의견이 상이함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의 '발굴'부터 접근할 필요성 확인, 추진내용과 [과제명]에 반영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 **성인 진로 경로의 다각화 모델 발굴 및 확산** - 성인의 다양한 진로 경로(직업 전환, 사회 공헌, 창업 등)를 발굴 및 확산하여 성인기 진로개발 전반에 대한 사회 인식 확장	4.25	0.62	4	90.0	0.80	0.75	0.50	• 성인 진로 경로의 다양한 모습을 인지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과제명]에 '다각화' 표현 추가 • '우수 모델'로 표현 시 '가시적 성과'가 보이는 사례에 초점을 둘 가능성 있어, 해당 표현 삭제	1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2차 응답값** **① ② ③ ④ ⑤**				

〈추가 의견〉

5. 성인 진로교육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의 수정 결과를 토대로 각 추진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도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안)	추진과제의 중요도					추진과제의 시급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시급하지 않음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시급함	매우 시급함
(1) 통합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기반 확보	1-1. 성인 진로교육 국가 중장기 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범정부 통합 성인 진로교육 거버넌스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성인 진로교육 재원 확보 안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및 질 관리 체계 확립	2-1. 성인 대상 국가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2. 성인 진로교육 전달체계 정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3. 성인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4. 성인 진로교육 질 관리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고도화	3-1. 성인 진로개발 통합 플랫폼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2. 지역 기반 성인 진로교육 운영 모델 발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3. 사회 파트너 진로교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일터 기반 진로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포용적 진로교육 생태계 조성	4-1. 개인 주도 진로교육(학습) 기반 마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2. 모든 성인의 진로교육 접근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3. 우선 지원 대상 발굴 및 선제적 지원 체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4. 성인 진로 경로의 다각화 모델 발굴 및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패널님의 전공과 학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전공**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대표적인 내용 1개만 선택)

① 교육학 ② 상담·심리학 ③ 경영학

2) 귀하의 **세부 전공**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대표적인 내용 1개만 선택)

① 인적자원개발 ② 성인교육 ③ 평생교육 ④ 진로교육 ⑤ 상담 및 심리 ⑥기타(구체적으로 작성: _____)

3) 귀하의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대졸 ② 석사수료 ③ 석사졸업 ④ 박사수료 ⑤ 박사졸업

성심성의껏 응답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저자 약력

- 정지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 장창성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나라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문연구원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 발 행 연 월 일 2025년 12월 11일 인쇄
2025년 12월 11일 발행
· 발 행 인 고 혜 원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424-0816-8 (93370)
· 인 쇄 처 (주)삼일기획 (044)866-3011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값 7,000원〉